

대덕구
공동체
프로젝트

사서
고생하는
그들의

신나는 이야기

마을을 이롭게, 따뜻하게 만드는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

추억의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2021년 12월 6일 초판 인쇄
2021년 12월 8일 초판 발행

글 쓴 이_ 김경희 이연자 이정숙 정여림 조서정
디 자 인_ 전해선

발 행 처_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로94번길 11 3층
<https://ddcenter.kr>
TEL. 042-623-1500 FAX. 042-623-0400
E-MAIL. ddcen2019@daum.net

추억의 뜰
대전 대덕구 송촌북로 15번길 12번지 추억의 뜰
m.blog.daum.net/pandora1504
TEL. 042. 632. 5413 Mobile. 010. 6628. 0536

제 작_ 추억의 뜰

* 이 책은 대덕구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대덕구
공동체 프로젝트

마을을 이롭게,
마을을 따뜻하게,
대덕구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

사서
고생하는
그들의

신나는 이야기

DAEDEOK-GU
COMMUNITY
PROJECT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장

홍 은 영

공동체지원센터 1층에 하나은행이 있다. 혹자들은 은행 문이 닫히는 오후 4시면 은행원들이 퇴근하는 줄 안다. 물론 고객업무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간부터 일을 시작한다.

우리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도 오후 6시부터 또 일을 시작한다. 웃음보가 터질 준비를 늘 하고 있기에 야근이라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단어들도 자주 오르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잃지 않는다.

달 보며 퇴근하고 퇴근 인증샷에는 달님이 휴대폰 갤러리에 얹전히 앉았다. 별을 벗삼아 퇴근하는 날도 허다하다. 우리 센터의 선생님들이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열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도 정시에 퇴근해 본적이 언제였던가 라고 서로 묻는다면 글썽라는 말로 답할 수밖에.

'그 시간까지 뭐해?' 라고 묻는다면 음...딱히 할 말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루종일 일을 할까?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보니 신나는 일도 더러 있는 모양이다.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는 웃음보가 터질 준비를 늘 하고 있기에 우리는 힘을 잃지 않는다.

그래. 우리는 공동체를 즐겁고 이롭게 만드는 마을 활동가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38팀의 공동체들이 저마다의 목적과 취지로 모였다. 30대 청춘부터 80대의 연륜있는 어르신까지...

공동체 활동가들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이웃으로 만나 신나는 일을 모색한다. 갈 길이 조금 멀고 행정업무로 신경전을 벌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마을을 행복하게 즐겁게 만들어보기로 손을 모으고 발품을 같이 팔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손발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보탬이 되어 이웃들이 모이고 훈훈한 마을이 된다면 함께 모여 이로운 결실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 기꺼이 도우미가 되련다.

남의 결방살이를 하면서 센터를 시작했고 지금의 번듯한 공동체센터로 자리를 옮겨오면서 이사한 기쁨을 누릴 사이도 없었다. 대덕구의 마을 공동체들이 들고 오는 많은 꺼리들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즐기며 그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38팀의 공동체들이 나로부터 시작해 너와 우리 더불어 이웃으로 확장되면서 공동체의 힘을 발산하기를 바라며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가 그 길에 손 놓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살맛나는 대덕구, 사람냄새 나는 대덕구를 만드는 마을 활동가들에게 쑥스러운 한마디를 건넨다면 “당신들이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좋은 마을 만들어가요.”

1 + 1 + 1 .

'이웃'이라는 퇴색돼가던 단어가 기사회생되었다.
바로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혼자만 즐거우면 무슨 재민겨?”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여럿이 공동체를 이루었다.

같이 즐겁고,
더불어 기쁜 우리가 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 1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수면위로 올린다.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사서 고생하는 공동체들의 신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 코로나라는 올가미에 갇혀 끙대대는 우리 스스로에게 백신 한방 꼭 찔려주었다. 물론 고통을 동반하는 고통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당연한 부산물이다.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방패막이가 돼주는 공동체의 힘이 발산되면서 삶의 진통은 오히려 꽃으로 피어난다. 더불어 성장하는 우리를 지향하는 그들로부터 에너지는 시작된다.

이웃의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환경문제를 고민하며 미래를 그려본다. 서로 감탄하던 손재주를 나누고, 먹거리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재능기부를 하며 삶의 질을 높여간다. 봉사의 손길이 마을을 이웃을 더 따뜻하게 데워준다. 공동의 고민을 같이 머리 맞대고 풀어본다.

기쁨은 두 배로 확장하고

어려움은 서로 나눠가진다.

그리고 같이 해결해본다.

더 좋은 마을 만들기에 손을 보태고 발품을 판다.

우리 마을을 더 품나게 만들어 본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질적인 삶의 수준을 높여보는 공동의 관심사를 추구한다. 혼자가 둘이 되면서 이웃이 되었다. 그래서 만나면 더 즐겁다 그리고 유익하다.

개인을 벗어나 공동체로, 경쟁을 넘어 공동의 선을 이룬 그들의 활동을 발굴하는 발걸음은 뿌듯하고 한수 배우는 시간이다. 본인의 성장, 이웃과의 유대, 결과물을 통한 결실의 과정이 진하고 아름답다.

공동체의 세포분열이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공동의 선을 이루는 공동체의 여정을 씨줄과 날줄로 원고지 네모 칸에 촘촘하게 담았다.

지역사회의 버팀목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친구들과의 문화 활동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끄는 견인차가 된다.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홀씨가 되어주는 마을지킴이가 곧 행복지킴이다. 공동체 활동은 소외의 짐까지 나누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있다. 한 번의 충격으로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의 위기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면서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을 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공동체 문화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던 진보 성향의 어느 부류가 선도하는 문화가 아니다.

우리 이웃의 아이들,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모두
공동의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같이 즐겁고 더불어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마을 활동가들이 공동체 문화를 보편화 시키는 이 길에 함께 손잡고 나가는 이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 우리가 사는 마을을 떠나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다.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아파트 숲에서 혹은 골목길에서 눈웃음으로 반기는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물론 아직은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서 하얀 이를 드러낸 미소를 볼 수 없지만 눈웃음만으로도 우리는 위안 받는다. 예년보다 겨울이 빨리 찾아온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왔다. 체감하는 온도의 수위는 더 낮아졌다.

목적은 달라도
마지막에 남은 건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꺼리고 다들 닫힌 아파트에서 벨을 눌러기 어색한 이 시대.
섬처럼 한사람 한 가정으로 둥둥 떠 고독한 프레임에 갇혔다. 사람을 섞이게 해주
고 '우리 만나자' 라고 계기를 만들어준 공동체 사업은 그 하나만으로 이미 성공했
다. 결국, 우리는 한 번 더 인식의 강을 건넌다. 바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사서
고생하는
그들의



신나는 이야기

마을을 이롭게,
마을을 따뜻하게,
대덕구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

+ 하나

연대와 소통 더불어 봉사

01. 회덕동 자원봉사회	014
02. 민들레 홀씨 다오소	018
03. 대화동 맘마미아	024
04. 동심회	032
05. 꿈사랑 작은 도서관	038
06. 자라다	044
07. 석봉동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050

+ 두울

재능 나눔, 예술로 피어나다

01. 석봉동 행복지킴이	058
02. 어울림 통기타	064
03. 비래동 새마을 금고	070
04. 노리다락	076
05. 책빛	082
06. 아인	088
07. 사랑방	094

+ 세엣

돌봄과 교육, 어울림

01. 내가 결정한다	102
02. 여울빛올댓아트	108
03. 이멤리멤	114
04. 너나들이	120
05. 다예맘	126
06. 나우리	132
07. 요리홀릭	138

+ 네엣

환경, 생태 그리고 기후

01. 샘물터	146
02. 아람드리 봉사단	152
03. 대박봉사단	156
04. 한밭레츠	160
05. 동네 한바퀴	166
06. 누리나래	172
07. 회덕동 환경지킴이	178

+ 다섯

미디어, 다시 문화

01. 꿈나무	186
02. 나들이	192
03. 복짓는 사람들	198
04. 석봉 굿탕 알리자	204
05. 스튜디오 파이프	210
06. 구구석투	216
07. 중리 미디어단	222
08. 회덕마을 방송	228
09. 글고운	234
10. 우리는 친구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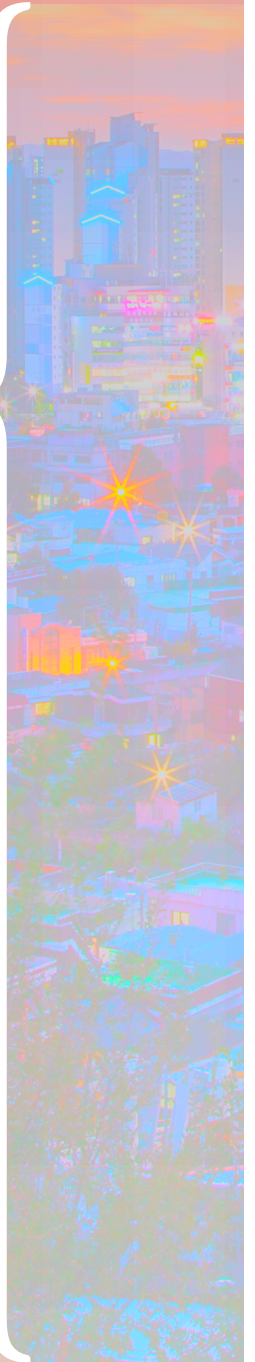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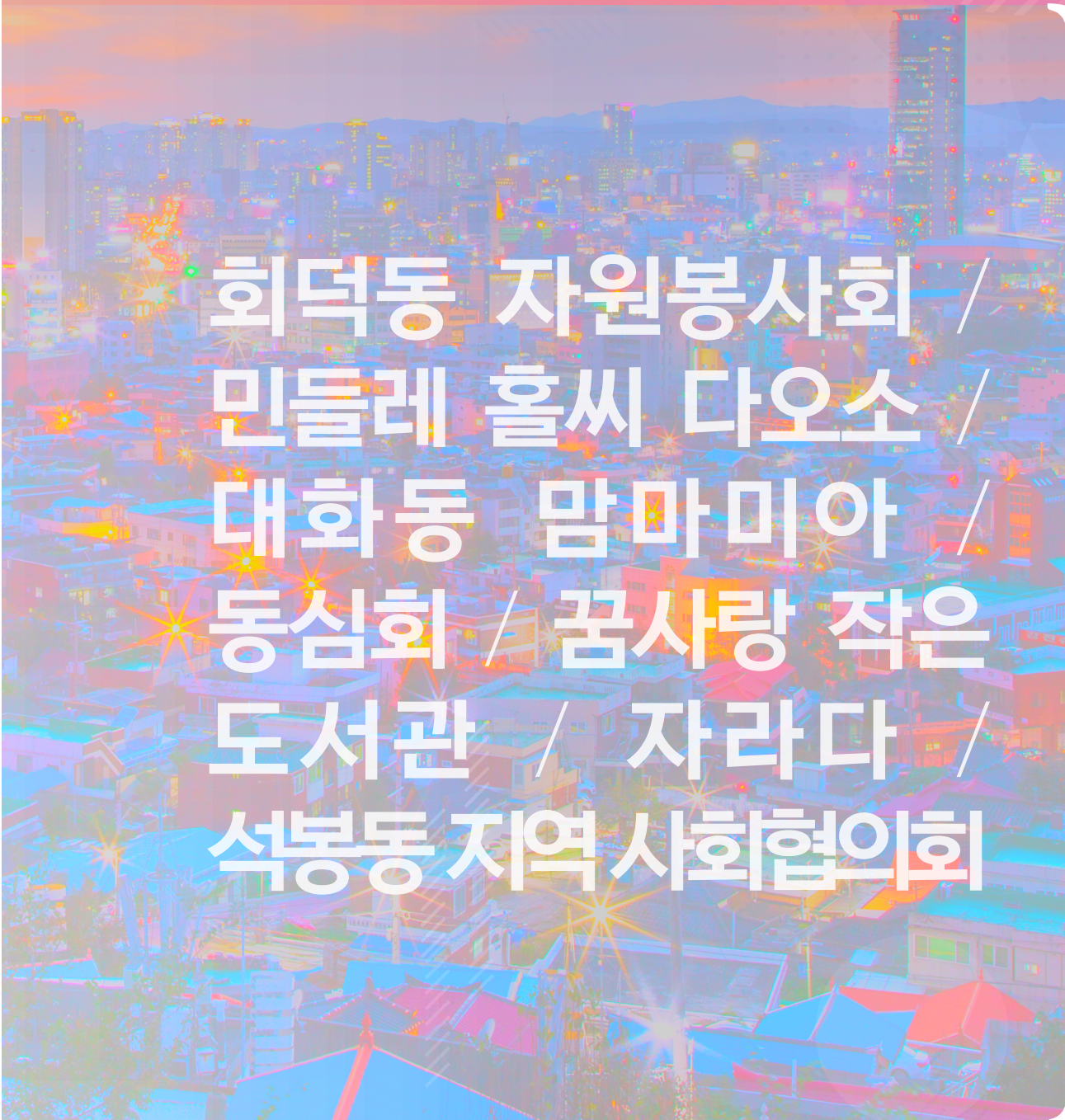
246



하나

연대와 소통 더불어 봉사





회덕동 자원봉사회 /
민들레 홀씨 다오소 /
대화동 맘마미아 /
동심회 / 꿈사랑 작은
도서관 / 자라다 /
석봉동 지역사회협의회

하
나

연대와
소통
더불어
봉사





01

회덕동
자원봉사회

|
**텃밭
공동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서류

서류 보면 구청에서 천만 원은 갖다 쓴 줄 알거야. 100만 원 지원받고 30장이 넘는 서류만 보면 혈압이 쑥쑥 올라 간다. 내 돈 내고 봉사할 때가 차라리 속 편했다. 라면 한 봉지 끓여먹고 사진 찍어라 영수증 붙여라. 궁상스럽게 라면 먹는 사진을 찍으라니... 서류만 네 장이니 이거원! 밖에서 볼 때는 관공서에서 나랏돈 함부로 쓰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깐깐하게 묻고 따지는지 생각이나 해보았나. 그래 우리가 낸 세금들 투명하게 돈 쓰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어지간해야지...

시골냄새가 물씬 난다. 아직은 장동이 흠집나지 않았다. 초록을 뽐내는 마을입구부터 청량감을 더한다. 소란스러운 도심에서 벗어난 이질감이랑기보다 호홉부터 다른 시골의 정취가 숨통을 트여준다.

장동의 푸름이 훼손되지 않은 텃밭에서 야채와 채소들을 골고루 심고 결실을 이웃과 나누며 아직 정담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다. 보람 있는 일이지만 늘 좋을 수만은 없다. 그들에게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서류라는 녀석이다.

서류 생각하면 혈압만 올라가서 공동체 다시는 안하고 싶었지만 유치원 꼬마들이 우리 텃밭에 와서 고사리 손으로 감자 캐는 걸 보면 텃밭 하기를 잘했다. 꼬마들이 텃밭에 심은 오이며 감자 작두콩 여주 옥수수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눈망울을 또르르 굴리면서 물어보면 마냥 웃을 수밖에 없다.



대책 없는 봉사의 오지랖

여성 회원들이 텃밭에 심은 가지를 따서 마늘 다져넣고 들기름에 달달 볶는다. 냄새는 왜 그리 고소한지. 그런데 가지무침에서 어머니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들었던 어린 시절엔 밥상에 가지무침 서로 먹겠다고 젓가락 부딪치기 일쑤였다.

어머니 생각에 코끝도 찡해지고 어르신들 반찬 봉사 해드리고 돌아오는 날이면 발걸음이 너무 가볍다. 에라 모르겠다. 내년에는 고구마나 왕창 심자.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그 맛을 알아버렸다.

이웃과 나누고 봉사하는 그 진한 맛을 알아버렸으니 뿌리치기 힘들다. 내년도 공동체 텃밭 일구고 농사 잘 지어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먹어야지. 봉사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았으니 어쩔 것인가. 이 멈추지 않는 오지랖은 대책이 없다.

02

민들레
홀씨
다오소

다 같이
모여서
웃어보자

하
나

연대와 소통 더불어 봉사

노신사는 브라운 칼라의 바바리 코트를 멋지게 소화하시며 노익장을 과시하신다. 80대의 주 선생님은 마을 공동체 민들레홀씨 다오소의 대표이시다. 5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공동체인 민들레 홀씨 다오소는 민들레협동조합 건강반의 연극활동 공동체다. 대본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닌 리딩씨어터방식으로 연극을 하는 공동체다. 이해를 돕자면 대본을 보고 연극을 하는 방식이다.

대표이신 주 선생님은 현역시절 공직생활과 외항선 부식납품관련 사업을 하신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어르신이다. 후배들과 공동체를 이뤄 연극활동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선생님의 일상에 윤기를 더한다. 80이 넘으신 선생님은 이미 집안의 철학자이시다. 세상의 풍파와 맞서서 이겨내셨고 그 경험은 연륜으로 남았다. 어르신과 공동체를 이룬 후배들은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배움이다.



80넘은 나와 누가 놀아줄 것인가 - 이웃을 불러 모으다

80이 넘으니 친구들도 하나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고 차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먼 산 바라보는 것도 하루 이틀 하루를 살더라도 생기 있게 살고 싶었다. 그 즈음 민들레 건강반에서 리딩 씨어터를 알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이었다. 더군다나 후배들까지 생겨 매일 출근하는 기쁨이 적지 않다. 죽을 때까지 배우라고 하는 말을 실감을 한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노년의 나에게 이리 큰 행복을 안겨줄지 짐작이나 했을까.



연극 첫 연습 날, 그러면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대본을 암기해서 연극을 하기엔 역부족인 나이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리딩씨어터 방식으로 연극을 하게 되었다.

2019년 첫 작품으로 ‘이 연사 외칩니다’를 여섯째 시작하면서 우리끼리 웃고 신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저 즐거웠다. 한 장 신이 나서 뭘 좀 재미나게 해볼까 했더니 코로나라는 복병이 나타나 우리를 꿈쩍 못하게 올라미를 씌워버렸다. 안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을 알차게 채우기 위해 복지관과 문화원을 넘나들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얻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복병이 나타났다. 다들 두려움에 떨고 문밖을 나서기가 두려웠지만 그래도 한 발짝 씩 내딛고 우리는 두터운 마스크로 눈만 내민 채 모였다. 연극 활동에도 당연히 제동이 걸렸지만 그래도 1주일에 한 번씩 서로모여 얼굴 보면서 “살아 있구나”라며 위로하고 힘을 얻었다.

어쩌면 우리는 연극만이 목적은 아니었다. 만남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즐거웠던 거다 소통하고 연대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



‘이웃’을 찾아오다

“너 잘됐다 나랑 친구하자” 우리 연극반의 친구들은 다양한 경로로 한 팀이 되었다. 서울에서 내려와 대전에서 서울 촌놈이 된 김00. 대전에서 친구를 그리워하던 때 우리는 복지관의 서예실에서 만났다. 서예를 먼저 배운 나는 먼저 배웠다는 자격으로 서울에서 내려온 동생한테 서예를 알려주면 관계가 좁혀지고 나는 대뜸 “우리 친구하자”라고 손을 내밀었다. ‘맹진사댁 경사났네’를 같이 연극 하면서 동생이 맹진사, 나는 참봉이 되어다들 까르르 웃고 머쓱해하면서 연극 한마당을 치렀다. 어디가서 그런 즐거움을 맛볼 것인가.

100만원을 그냥 준다고?

우리는 작은 공동체다. 말 그대로 모이자 팀이다. 모여서 뭔가를 시작하는 공동체다. 100만원을 받아서 공동체의 활동 비용으로 사용한다. 서로 모여서 연습하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신다. 시나리오도 쓰고 연극 연습도 전문가에게 배우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들이 활동하는 그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았다. 큰돈이 아니어도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을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해준다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마을 공동체를 굳이 이론으로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 나 같은 노인이 이웃의 동생들과 더 젊은 후배들과 모여서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즐거운 일 유익한 일을 찾아나서는 과정이다.

소외, 공동체로부터 기사회생하다

행정의 간섭보다 행정의 도움이라도 생각하련다.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궁리를 하는 과정만으로도 든든한 벼이 생긴 거 같아 힘이 된다. 스스로 소외의 굴레에 갇혀버릴 수 있는 우리 노인들에게도 의미와 재미를 더해주는 공동체의 존재는 곧 희망이다. 희망의 부재가 깊어지는 시대, 이제는 공동체의 힘을 차용해서 다시 기사회생해야 한다.





하
나

연대와
소통
더불어
봉사

우

리

랑

서

세

요



03

대화동
맘마미아

맘마미아
그리고 유쾌한
아마조네스의
연대





맘마미아 그리고 유쾌한 아마조네스의 연대

대화(大禾)-큰 벼이삭이라는 뜻으로 ‘벼가 잘 되는 곳’이라는 이름이란다. 대화동은 지리적으로 대덕구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이동하고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면서 상대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대화동에 신선한 기류를 일으키는 세 여성 아마조네스가 있다.

대덕구공동체가 가교가 되어 세 여성이 국적을 초월하고 나이차를 넘어서며 연대감으로 똘똘 뭉쳤다. 각기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세 여성이 대화동에 정착하고 일상을 통해 성장하며 활동가가 되어가기까지의 이야기도 드라마틱하다. 그리고 대화동에 희망이 보인다. 맘마미아를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이 함께 ‘대화랑 우리랑 마을장터’를 통해 마을과 가정에 활기와 행복감이 불어 넣어지기를 소망하는 젊은 그녀들이 오랫동안 대화동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

맘마미아 리더 이수영

나는 의상학과를 졸업하고 옷가게를 하다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대화동에 마침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 공단이 있고 공기가 안 좋다는 선입견을 가진 채 나는 결혼하고 처음 대화동으로 들어왔다. 막연히 풍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대화동에 대한 전부였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를 잘 몰랐다. 그러나 우연히 시민운동이랄까 문화산업이랄까 대덕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행사에 접속을 하게 되었다보니 우리 동네 대화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나는 2003년에 결혼해 딸 아이를 36살에 낳았다. 남편에게 미싱을 선물을 받고 미싱 카페에 가입했다. 미싱카페에는 고수들이 많았다. 옷만드는 취미가 생기자 생각보다 많은 양의 원단을 모았고 나는 자연스럽게 공방을 열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죽 원단과 햄프 린넨, 은공예, 목공예 등 배움의 연속이다. 이제 준비 완료.

맘마미아 쾌활담당 이보나

나 이보나는 1981년생으로 35살이던 2015년에 5살 연하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내 고향 와동에서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면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지 형제 6분이 모두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한 철도 가족이다. 친가들이 전부 다 활발하고 사춘들도 흥이 넘치고 명랑하다. 아버지 덕분에 낯선 마을에 등지를 틀기를 여러 번 초등학교를 4번이나 옮겨 다녔다.

함께 하는 공식적인 활동- 맘마미아!

올해 공동체 프로젝트에 선정된 ‘대화랑 우리랑 마을장터’를 하면서 함께 마을의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얘기하며 마을주민 간 소통이 확대되고 공감대가 조금은 넓어진 듯 하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폐쇄적인 마을에서 개방적인 마을로 변모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작은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먼저 워밍업이 필요했다. 명동길은 동심1길인데 대화초등학교 이어지는 길로서 이 라인에 우리 공방이 있다. 친환경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드는 일도 다 같이 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자투리 원단으로 대화동 임산부 가족을 위해 먼 마스크 제작봉사를 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색색이 먼 마스크 120매는 동사무소를 통해 꼭 필요한 분들께 전해졌다. 창조적인 삶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매개체가 되고 싶다. 연대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대화의 문화지킴이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대화동을 지키면서 대화동의 아름다운 모습과 감추고 싶은 흉한 모습도 거부하지 않고 모두 포용하면서 활기찬 시민의 첫 걸음을 당당히 떼겠다. 혼자가 아니라 대화동에 거주하는 같은 여성들과 함께 다 같이 하나둘 모여서 함께 서투르나마 한 걸음 두 걸음 같이 걸어가고 싶다.

2021년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대화랑 우리랑 마을장터

장소 : 대화마당 동심 1길 86
기간 :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시간 : 2시~5시

불거리, 먹거리, 나누기

염마식혜, 물김치, 밀반찬
가족공예, 악세서리, 핸드메이드제품 류
온공예, 린넨류, 종고 등





대화동에서 맘마미아를 통해 인식의 변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족 시대로 진행되면서 이제는 1인 가족이 50% 정도로 근접했다고 한다. 50대 고독사는 흔하디 흔한 단어가 되었고, 도대체 ‘이웃사촌’이란 말도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색해질 정도로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개인이 파편화되어서 삶을 고립된 채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화동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살아있는 인간적인 옛것의 포근함이란 여러 좋은 서정적 단어의 수식어가 어울리는 마을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동네에 비해서 동네 사람들이 가족처럼 챙겨주고 정이 많다. 상대적으로 집세와 집 가격이 저렴해져서 외국분들이 동네로 이주를 많이 해서 차차 빈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많다. 나는 내 딸이 다국적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외국엄마들과도 나는 서투른 영어라도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튼 대화동이 다국적인 문화의 거리를 부각하면 좋을 것 같다. 다국적 문화거리로 점점 변모되고 있다. 떠날 생각도 해 봤지만 우리 건물 앞이 공연 및 예술의 거리가 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과 가정에 활기와 행복감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함께 마을의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얘기하며 소통이 확대되고 공감대가 넓어지는 것을 서로 느꼈다. 결국 내가 참여하며 시작한 프로젝트로 인해 우리 대화동마을이 개방적인 마을로 변모하도록 언제나 지켜나갈 것이다. 기적수업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활동할 것이다.

아야꼬 이야기

톡 톡 톡 talk talk talk

나 아야꼬는 일본 나고야 위 기후현에서 태어났는데 1964년생이다. 일본 화과자 회사에서 파견직원으로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 통일교를 89년도에 처음 이웃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 교리를 들어서 맞다고 생각하다가 95년도에 결혼해서 대화동 옆 유등천 안구만리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맘마미아에 연결된 것이 자랑스럽다.

인터뷰를 마치며....

대화동 지역이라고 일컬으면 원도심 구도심 낙후성 이런 단어들이 함께 떠 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은 어딘가 더 발전한 곳, 인프라가 잘 되어있는 곳, 중심이라는 단어와 반대어이다. 그래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지역 안에 희망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희망을 더욱 더 크게 싹을 틔우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곳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거나 지역에 남아서 등지를 틀고 이웃과 소통하고 정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생생하고 밝고 활기찬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났다. 오늘 만난 아름다운 그녀들.

그녀들은 소통의 즐거움과 소통의 아름다움과 마침내 소통의 기적을 체험하고 보아온 사람들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삶을 즐기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서 남아서 우연히 먼저 활동을 시작한 활동가를 만나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수영씨는 조그마한 꿈을 키워 나가며 도전을 했고 조금씩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오가며 알게 된 친구 둘을 끌어들여 함께 활동해 보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연대를 배웠으며 연대가 지역을 살리는 몫시 커다랗고 소중한 자원임을 배웠다.

04

동심회

소통을
나누고
공감을
그린다

빈곤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이웃을 가만히 보듬는 그들의 활동이 참으로 소중하다. 여전히 지역에서 남아서 미약한 힘이나마 방문작을 손봐주고 깨진 유리창도 갈아끼워 주며 짬짬이 이웃들과 소통하는 것이 기쁘다 한다. 여창구님은 대화동에서 산다. 여러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노후되거나 낙후된 집안 실내를 수리하고 물건들은 수선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겠지만 대화동은 대전 시내 원도심과는 또 분위기가 다르다. 빈집도 폐가도 많고 다문화가정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한 이주노동자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지독한 표현을 하자면 대화동이 슬럼화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최근에 도심재생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지역을 살리는 것이 가속화된다면 좋겠다.



봉사하는 분야는 **집수리인데** **광범위하다면** **광범위하다**

내가 봉사하는 분야는 집수리인데 광범위하다면 광범위하다. 그야말로 맥가이버가 따로 없다. 효율 좋은 led 전등으로 교체해드린다. 요즈음은 전구 하나 제대로 갈아 끼우는 것도 일이며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더구나 led 전등은 쉽게 교체하기가 어렵고 배선이 복잡한 경우에는 난감하기 그지없게 느끼기 때문이다. 선을 제대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좋은 합리적인 동선에 맞추어서 새로 달아주고 연결해드린다.

나의 중요한 작업 루틴은 한가지가 더 있다. 의뢰가 들어와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집을 방문하면 반드시 주인장과 이야기를 듣는다. 마음을 열어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고 삶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한다. 모두가 외로워한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소통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이야기들 먹고사는 소소한 이야기라도 알콩달콩 나누고 싶어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내 나이도 만만치 않으니까 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일도 쉽고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하는 것도 실타래처럼 술술 풀리게 할 수 있다.

동심회 공동체를 결성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자면

대표 강종실, 회계 여창구, 사업담당 김순이, 서기 문필수, 감사 박종식
대화동에 동심길이 있다. 예전에는 대화동에 명동거리라는 별칭이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이름을 따서 동심회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마을 길
이름을 따서 마을을 수리하고 재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모임의 계기
는 대화동 주민자치회에서 뜻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결성했다.

수리 작업 소개를 해주세요.

변기도 고치고 전기도 고쳐준다. 가가호호 찾아다니다 집 구조를 살펴보니
변기가 문제였다. 물은 내려가지만 변기가 지저분하고 낡았다. 오정동 도매
상에 가서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재료를 구입하고 인건비는 재능기부
로 하여서 수리를 시작하였다. 변기 관련 10여 가구, 배관공사는 세면대에
서부터 하수구까지를 배관이라고 하는데 낡아서 물막음이 잘 안되면 바꾸
어드린다.

주름관에서 물이 새기도 한다. 뚫어주고 하수구 뚫어 주는 봉사는 5집 정도
됐다. 세면대 교체해주고 하수도도 고쳐주었다. 대덕구청에서 직접 생활관
련 보수 수리는 해주지는 않는다. 굉장히 뜻 깊다. 하면서도 나중에 뒤에서
욕이나 안 먹나 걱정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다. 혹시나 해서 뒤에서 잘
했나 못했나 말이 나올까 봐 걱정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최근의 코로나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시기에 가장 고통을 피부로 많이 느끼는 계층이 바
로 우리가 만나는 대화동의 거주민들일 것이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
리가 손길 한 번 내밀면 사는 공간이 조금이나마 인간적으로 나아질 수 있
기 때문에 자꾸자꾸 봉사를 계속하게 된다.

누군가 하여야 할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나서서 해야한다. 어디 멀리 떨어
진 곳, 국가가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미약하나마 지금 당장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이웃사촌인 우리가 나서야 한다. 거창하게 인류 보편의 문제를 각
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 우리 이웃과 함께 울고 웃는
기회가 더 소중하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변기 교체는 대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 일주일에 두세 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땀이 비오듯이 쏟아진다. 각자 주머니 털어서 음료수를 사 먹는다. 일해줄 때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지 물 한 모금 얻어 먹는 것도 안타까울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어느 장애인 집에 방문해서 전기를 수리하고 있었다. 옛날 허름한 주택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다 지적 장애인이었다. 밥은 어떻게 겨우 겨우 끓여 먹고 사는 것 같다. 아들은 20대 후반이고 지적장애인 딸은 시설에 보내서 거주하고 있다 한다. 6월이었는데 장애인 센터에서 아들이 들어왔다. 들어오니까 무조건 비명을 지르고 낯선 사람을 보아서 펄쩍펄쩍 위험스럽게 뛰어다녔다. 전기 배선이 다 노출되어 있고 스파크가 일어난 자국이 보였다.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배선을 다 바꾸어주는데 4명이 함께 작업하는데 하루종일 걸렸다. 전혀 소통이 안된다. 부모는 말은 못하지만 고맙다고 하는 표정을 지었다.

대화동은 주거지역이 얼마 없다. 공장이 떠났지만 점차 물류창고들이 들어서고 있다. 대화동 면적의 1/3이 안된다. 도시재생이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이타심이 많이 생겼는가? 어쨌든 예전에 택시 운전을 하면서 노조위원장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주들이 너무 착취를 하는 시스템이었다. 심지어 대한통운에서는 특허를 얻은 일을 할 때 본사 이사와 연결이 돼서 과장급 임원과 연결이 된 것을 대전 부장이 알고 있어서, 대전지부의 문제점을 문서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서를 해줬더니 우리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빼고 사측에서 필요한 것들만 적용하는 것에 실망을 많이 했다. 강자보다 약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대화동에 남아서 나의 기술이 필요한 집은 다 수리해 줄 계획이다.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현장에 남아서 재능기부를 할 것이다.

활동 마무리는 잘 되시나요?

올해 9월이 공동체 활동 마감이다. 이제 자금도 많이 남지 않았고 예약받은 분들의 요구는 전부 다 들어주고 싶다. 올해 실적을 봐서 내년 예산 청구를 해야한다. 대덕구청 대화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작년에 생겼는데, 그 사업에 선정되면 올해는 5백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천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관에서 일일이 다 손길이 닿지 못하는 대화동 전체를 우리 힘으로 맡금하게 수리해주고 싶은 꿈이 간절하다. 하하하하.

활짝 웃는 여창구님의 웃음소리가 긴 장마 뒤에 활짝 개인 푸른 하늘에 생겨난 무지개처럼 싱그럽기만 하다.



연대와
소통
더불어
봉사





05

꿈사랑
작은 도서관

마을을
잇는
씨줄과 날줄

사람과 사람을 나눔으로 잇는 공유마을 디자인

사람, 마을, 공동체, 참여, 협력, 선한 영향력, 평화, 행복,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이러한 단어들을 읽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며 물질적 가치로 재단되지 않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누구는 신념이라 부르고 누구는 영성이라 부를 수 있지만 서로 모였을 때, 서로를 이롭게 하고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나보았다.



시작은 어땠나요?

올해는 주로 모여보자! 이다. 나눔에 대한 이야기와 속성, 개념에 대해 추상적인 것에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들과 실제적 도움이 되는 것들을 심층적으로 나누었다. ah여서 친하고 생각을 방향성을 모으는 기초작업을 완료했다. 선정이 되고 나서 컨설팅을 할 때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이 되었는데 진정성이 최고로 돋보였다. 3년차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기획공모사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마을조사 끝자락에 무엇을 할 것인지 찾아가고 있다.

재능과 공간 기술 물품 공유를 키워드로 공동체 전체를 아루르면서 해보자. 우리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구상해보자. 서로 약간 어색한 사이였지만 도모하려면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식과 사례를 연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코로 나에도 불구하고 1회, 2회는 대면으로 나머지 강의는 줌으로 8월말에 종료했다. 대략 15명 전후로 줌강좌에 참여하였다.

그동안의 성과를 말해주시지요.

재능과 공간, 기술, 물품 등의 공유로 실행했다. 대덕구 공동체 전체를 아우려 보자는 야심찬 기획으로 먼저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구상했다. 마음을 트기 전에는 어색한 게 당연한 법이다. 어색함을 뛰어넘어 공동체성을 함께 도모하려면 친해져야 한다. 교육도 필요한 법이다. 교육이라는 컨셉을 커리큘럼에 넣어서 지식과 사례 프로그램을 8회차로 구성하였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었다. 1, 2회는 대면으로 3차부터 월말에 종료하였다.

교육,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선진지 견학을 가보았다. 가까운 옥천 지역문화창작 공간인 '뚝뚝'과 '옥천신문'을 방문했다. 뚝뚝은 농촌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고래실'에서 운영하며,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메뉴를 개발하여 자립카페를 운영하는 '뚝뚝뚝뚝 즐거운 방과 후 프로젝트'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공동체 모임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마을 전체에서는 어려우니 모여진 사람들끼리 실험적으로 해보자. 비슷한 유형으로 계획하고 있다. 선진지 견학은 '열정, 밀착, 도전, 융합'이라는 다양한 결론을 도출했다. 나눔 활동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눔으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

10월 6-7일 이틀간 송촌컨벤션센터 1층에서 '플로잉 데이'가 열렸다. 400개가 넘는 샌드위치 밀키트 세트를 수령해 가면서 30명이 넘는 분들이 나눔실천단으로 가입하였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졌다. 플로잉데이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사연과 사진들을 보며 나눔의 가치를 많이 깨닿은 소중한 자리였다. 앞으로 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온 마을이 사랑으로 뜨겁게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왜 활동에 참여하시는가요?

나는 충북 충주댐으로 수몰된 중원군 살미면에서 태어났고 318번지 주소는 아직도 기억한다. 6학년때 충주댐으로 설정되면서 이주하게 되었다. 충주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10여분 거리 밭에서 이사를 했고 청소년기를 보냈다. 1남4녀 중 막내로 들판과 산들을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자랐다. 나이 터울이 많은 큰언니가 키워주었다. 부모님은 먹고살기 바빠서 우리를 돌볼 여력이 없었고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서 자연이 나를 키웠고 나의 성격 형성에 장점이 되었다.

남편과 대전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셋째가 태어날 무렵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원봉사를 시작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실은 그때는 처음 만나서 익숙해졌고 2008년 어느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업했다. 어느 날 행정 시스템에 대한 회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소생시키고 살아내게 할 방법은 다른데 있는 것 같다. 시스템에 가까운 복지는 마음이 아픈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시 상담공부를 하면서 학교폭력피해자 등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을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녹여낼까? 마을사람들이 같이 키워야 한다는 인디언 속담이 다가왔다. 예전에 한덕연선생님의 생태복지 관점이 크게 와 닿았다. 대상화하지 말고 잘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복지사의 할 일이라 믿는다.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 사람들을 폭넓게 알아야겠다고 하고 마을을 만나기 시작했다.

비전과 희망을 말해주세요.

마을 안에서 나눔의 키워드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아 파트에 이웃들이 한 단계만 지나가면 서로 이어질 것이다. 전체 구민이 참여 할 수 없지만 나눔이라는 구슬로 연결이 되어서 마을 안에 사랑과 정이 흐르 길 바란다.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사례를 위해 마을 강의를 통해 배우고 있다. 시간공유 품앗이 등 사랑을 전제로 하는 선순환에 대해 도모하고 있다.

활동을 한다기 보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보자.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 기획공모를 내기 전부터 9명의 운영진들이 모였고 진행 과정에서 26명이 나 눔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모이게 되었다.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만나서 마 을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설득하였다. 운영진이 발로 뛰어서 홍보를 했 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우리 공동체 의 특징은 대덕구민으로 구성된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마을 조사를 하였고 구성원들의 가치와 수요를 파악한 후에 창출된 데 이터를 바탕으로 공유마을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발굴해서 형성된 인적 자원을 토대로 물적자원이나 공간적 요소, 재능 등을 나누면서 마을 주민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나눔을 수집해 마을에 재배분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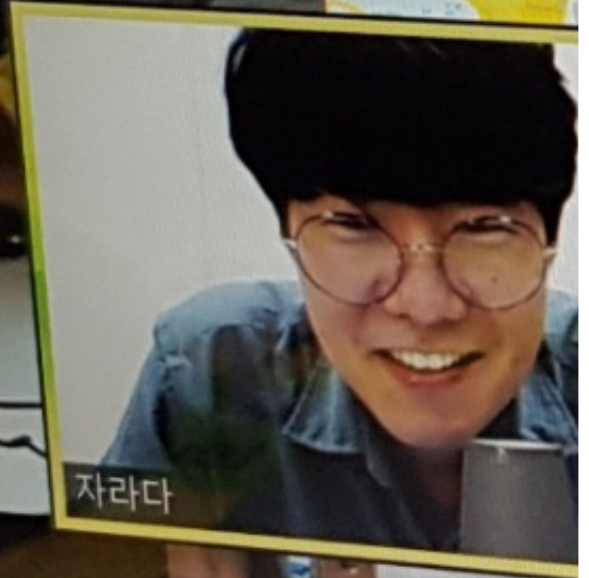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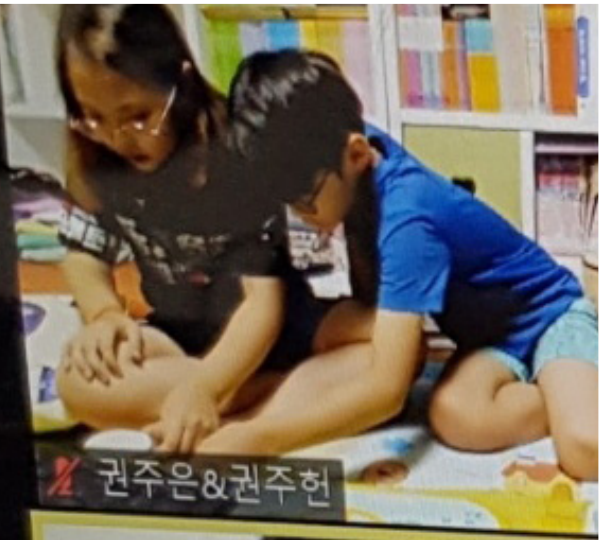
인터뷰를 끝내며...

서글서글하고 친근하고 열린 태도를 지닌 이재형대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 의 관점에서 네트워킹을 시작했다. 그녀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 을 하는 것이다.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주선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최강의 시너지를 내도록 만든다. 그러기 위하여 참여자들은 동등하게 의견 을 내고 각자의 의견들을 소중하게 수렴하고 실행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일 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하자는 것이다. 인간의 여러 특성 중 “흥”이 있다는 것 은 멋지고 강력하다. 최선의 합의에 도달하도록 네트워킹의 각 꼭지마다 그녀 가 있다. 최선의 합의는 바로 공유마을 만들기이다. 대덕구에서 살기 좋은 공 동체를 만드는 흐름 위에 선한 아름다움을 엮는 그녀를 주목할 일이다.

06

자라다

여기저기,
기웃기웃 -
가성비 만렙
활동가



하나

연대와 소통 더불어 봉사

김주희.김동연

주정훈.주승연

가장 알고 싶은 특별한 활동 에피소드는 이른바 줌 활동(zoom activities)이다. 진행하다가 가장 어려운 점은 서류작업이었다.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의 새내기인데 초짜의 능력으로 서류준비와 작성과 보고작업에서 헤매이 정말 고통스러웠다.

이래네

앞으로 비전과 희망을 말해주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놀이할 줄 모르고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방임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에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어 좀 더 잘 놀 수 있고 건강한 정체성을 수립하게 하고 싶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협동해야 하는 것이 놀이에 다 들어있다. 놀이를 통해 소통할 수 있고 현장에서 스킨십을 통해 친숙해질 수 있고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나중에 강사교육도 받아서 마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활동가가 되고 싶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왜 활동에 참여하시는가요?

나는 1974년 이해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3남매에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힘들게 키웠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은 없다.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사람으로서 각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31살에 결혼을 했고 39살에 연년생 아들딸을 낳았다. 환경이 다른 남편을 만나서 결혼과 동시에 많은 걱정거리가 생기고 1년 후에 친정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다. 그 충격으로 장시간 입원을 했고 양방 한방 못 고친다고 해서 퇴원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이가 없는 8년 동안 동네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5명 정도 건사했다. 중학교 때 신생아의 꼬물락거리는 발을 보고 반해서 가방 던져놓고 아이들을 보러 다녔을 정도로 아이를 이뻐했다. 내 애가 없는데 남의 애를 키우니 “생각도 없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냥 아이들이 이뻐고 아이들을 건사하다보면 근심이나 수심이 사라졌다. 기다림 속에서 언젠가 내 아이가 선물처럼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육아를 하다가 노인복지를 공부했다. 중학교 때까지 외할머니와 같이 살아서 노인들이 어색하지 않았다. 친엄마는 75세로 판암동에 살다가 그린타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셔서 가끔 뵙고 있다. 홀엄마를 생각해서 노인들의 특성을 공부했는데 10년간 집에 있으면서 전형적인 주부였다가 2년 전에 독거어르신을 돌봐주는 생활관리사 일을 시작했다. 기존에 발굴되었던 어르신들을 연임해서 1주일에 30명 정도를 방문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확인하고 대화하고 불편사항 등을 확인일지를 기록한다. 노인복지관 소속으로 대덕구에 68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다. 2년 동안 자식보다 낫다는 말을 들으며 일을 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일을 그만두며 아이들과 지지고 볶았다.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미술치료 활동을 했는데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녀교육이 쉬운 게 아니었다.

신참 엄마 생존기



홍은영센터장, 신정은, 송직근선생님의 도움이 컸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방치되어 갈 곳도 할 것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이웃 엄마들이 지쳐갈 때 공동체를 만났다. 좌충우돌하다가 공동체센터를 만나게 되었다. 공동체센터 담당 선생님들이 엄청 편하게 대해 주었다. 도움을 받거나 활동을 하거나에 대해 너무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나누어주었다. 마음을 여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다. 하나하나 정보를 알게 되면서 드디어 『자라다』 공모에 지원하였다.

으쌔으쌔. 우리도 배워야 하고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아리송할 때 센터장의 권유대로 다른 공동체를 방문했다. 여러 공동체가 있으니 이곳저곳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알아보라는 미션이 주어졌다. 함께 참여하면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궁리하다 보니 참신한 아이디어가 퐁퐁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생각이 넓어지고 시야가 커졌다. 미디어가 대세이니 배워볼까? 엄마로서 할 일을 먼저 배워볼까? 아이들과 같이 해볼까? 초기 생각의 파편들이 점차 발전해서 재능기부로 확산해 보자는 기특함으로 넓어졌다.

zoom으로 놀이와 나눔을

꿈사랑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1회차에서 “놀이문화”연구소의 소장 백성민강사를 숙명적으로 만났다. 엄마와 아이들이 동시에 수행하는 놀이를 공부했다. 코로나로 배웠던 놀이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해보자!” 하고 현실에 적용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놀이가 가능할까? 뭐하고 놀을까? 재미가 있을까? 8월9일 첫 만남을 했는데 초 1-5학년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 수업을 경험했기 때문에 zoom을 열어서 놀이가 가능했다. zoom은 여러 화상회의 플랫폼 중의 하나인데 회원가입 절차가 없고 사용이 편리하다. 세상에나, 놀이가 zoom으로 가능하다니!! 미디어라서 진행속도가 한 템포 느리지만 점차 적응해서 게임 종료를 할 때 모두 다 몹시 아쉬워했다. 화상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았다.



1. 제로제로 게임

손가락을 올려서 하는 게임인데 하나 둘 셋 “3” 하면 3명만 접속(on)이 되는 게임으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술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이다. 그림을 그려서 카메라에 가까이 보여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등을 돌려서 카메라를 안 보고 그림을 본 사람이 그림 내용을 묘사하면 나머지 인원이 각자의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카메라에 보여준다. 누가 가장 흡사하게 그림을 그렸는지, 직접 그린 사람이 그림을 보여준다. 말하는 사람의 전달력과 듣는 사람의 경청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인터뷰를 끝내며

2. 숨바꼭질 게임

코너에 1 2 3 4 카메라에 안 보이는 곳을 정해서 카메라가 안 보인 곳에 숨는다. 술래가 3번 나와!하면 3번 구석이 나와야 한다. 아이들이 더 좋아했다. 나온 아이가 술래가 되는 술래 릴레이가 되어서 게임을 이어가는데 본인이 술래를 하고 싶어한다.

3. 컵쌓기 놀이

2시간씩 3회차 프로그램 총 6시간을 놀이를 진행하고 줌으로 식사까지 함께 했다. 10시에서 12시까지 같이 밥을 먹는 모임으로 햄버거와 음료 수 콜팝 등등을 2단지와 3단지에 내가 음식배달을 직접 했다. 집으로 배달된 음식을 줌으로 보여주고 함께 먹으면서 일곱 가정 총 17명이 이벤트에 참여했다.

순수하고 올곧은 마음의 소유자인 이해영님은 보기에다 이마에 “나 정직”이라고 쓰여있었다. 마을사업으로 3명이 시작했는데 참가자가 18명으로 늘어났다. 구원과 천국을 믿는 기독교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천국 만들기를 하고 있다. 초짜 새내기 활동가가 커나가는 과정이 인터뷰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동체센터 직원들이 발을 벗고 상담했다.

홍은영센터장은 능수능란하게 공동체 작명까지 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호기심과 두려움 가득한 초짜에게 “목적지는 공동체 마을에서 다 같이 행복하기야. 걱정마요. 기웃기웃하다가 배우는 거여. 누구나 초보여.” 하고 빙글빙글 웃어가며 네비게이팅 했음에 틀림없다.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니” 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하나

연대와
소통
더불어
봉사

07

석봉동 지역 사회 협의회
따숨 마을만들기

아는 사람만
아는
'봉사의 맛'



헌 청바지, 헌 운동화는 색다른 화분

헌 청바지, 페타이어, 쓰고 난 PT 병, 헌 운동화, 장화...이런 것들이 가야 할 자리는?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란 답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따숨’(지역주민과 함께 가꾸는 따뜻한 숨결이 깃든 마을 만들기) 구성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런 폐물품을 ‘화분 용기’로 이용하자 했다. 여기에 파, 상추 등 각종 채소와 봄꽃들을 심겠다고 생각을 모았다.

석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5년 전부터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를 해왔는데 올해에는 공동체‘따숨’으로로 뭉친 것이다. 15명의 회원들은 쓰레기 증가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주민들에게 환기시키고 마을 환경도 돌본다. 공무원, 사회복지사, 이·통장, 부녀회원, 개인 사업가 등으로 구성원들이 다채롭다.

“아유 반갑네, 요즘 파 값이 비싸서 금값인데...파 화분을 만드니 이게 바로 ‘파테크’네” 파는 심어 놓으면 뿌리 윗부분을 잘라 먹어도 계속 자라 집에 파 화분을 두면 오래도록 베어 먹는다.



을 4월 석봉동 주민센터 앞의 ‘따숨’ 공동체 행사
장에서는 주민이 재활용 페트병에 야채나 봄꽃
을 심어가는 행사가 열렸다. 넘치는 폐자재를 활
용하고 재사용하자는 취지는 주민 화분 만들기
행사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내 살기 바빠 관심을 갖지 못한 주위의 이
웃을 돌아보고 방문해 보자는 캠페인도 함께 기
획됐다. 화사한 봄날을 맞은 주민들은 부스가 설
치된 행사장으로 나와 어떤 야채나 꽃을 심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행사에 모인 주민은
폐자재 등으로 두 개의 화분을 만든다. 하나는 자
신이 갖고 다른 하나는 불우한 이웃을 방문하고
이들에게 기증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석봉동의 한 담장에는 특별한 화분 전시회
가 열렸다. 벽에 매달린 하얗고, 까맣고, 다양한
문양의 운동화 속에서 피어오르는 초록의 넝쿨
식물과 자잘한 꽃들이었다. 알록달록 색칠한 페
타이어 안에서는 고추며 가지 같은 야채가 싱싱
하게 자라고 있었다.

집안의 안 입고 굴러다니던 유행 지난 청바지는
흙으로 채워져 다양한 화초들을 길러내고 있었
다. 주민들은 다양한 폐자재들이 화분으로 변한
결과를 둘러보며 신기하다며 색다른 재미를 즐
겼다. 주민들은 과소비로 쓰레기를 양산하며 살
아오지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따숨은 오는 9월에는 주민들 사전 선호도 조사
를 거쳐 망골공원 일원에 화단을 조성할 예정이
다.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가을꽃들이 활짝 피어
나면 주민들은 눈은 더 즐거워질 것이다.

“마을 노인들은 내 부모, 마을 사람들은 내 형제”

김옥선 대표는 석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도 활약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많아 가는 곳마다 자취를 남긴다.

“다문화가정 햄버거 교환 티켓 나눠주는 행사가 있어 가정방문을 했는데요. 좁은 방에 올망졸망한 아이 셋이 냉방에 매트 깔고 웅크리고 있네요. 엄마는 꽃 만들기 부업한다고 지쳐 있고요. 나중에 쌀 나눠주러 가서 말을 붙여봤어요. 애 아빠는 떠나고 엄마는 아이들 데리고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했어요. 이후 LH공사에서 도움을 주어 방 3개 딸린 빌라에 살게 됐어요”

또 김 대표는 독거노인 안부 묻기 행사를 갔단다. 노인 서너 명이 소주 한 병을 두고 김치 안주 달랑하나 해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 김 대표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마트에서 소주 몇 병을 얼른 사다 상에 놓아드렸다. 노인들은 김 대표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다. 자식들과 연이 끊어져 외롭고 가난한 노인들이었다. 김 대표는 그 자리에 끼여 노래하고 춤추며 같이 놀다 왔다.

“석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저소득층에 led 교체사업, 긴급 병원비 지원사업, 주택 수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연초에는 저소득가정 아이들 교복 지원사업을 해요. 사업을 시행할 때는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우리 마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절대 이런 봉사 못 하죠. 따숨 사업도 혼자서는 절대로 못 하는 사업이죠. 사업 담당자 분 회계담당자 분, 다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는 따뜻한 숨결이 깃든 마을만들기

마을화단 조성 후보지 주민 선호도 조사

석봉동 정자공터



망골공원 일원



신탄진역 뒷편



기타 장소추천

봉사의 맛...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집에만 있거나 내 일만 하면 몰랐을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진짜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경험의 시간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보면, 이제 지나치지를 못한다.

마숨은 앞으로 석봉동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봉사하는 재미를 알려주고 싶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봉사를 하는 점이 보여 아쉽다. 그래서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일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자고 찾는 중이다.

“봉사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죠. 봉사하면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크는 우리 아이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구성원은 자신의 아이 이야기를 소개했다. 딸이 신탄진 중학교 앞길 화단에 물 주는 봉사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무거운 물 주전자를 들고 나르는 일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다. 아이가 일주일마다 계속 다니더니 나중에는 좋아하게 되었다. 그 길 화단을 지나며 ‘내 꽃이야 엄마 이거’ 하고 자랑하더라고 했다.

봉사는 이런 것이다. 처음엔 내 시간을 내서 힘든 작업에 참여해 툭툭거리게 되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만나는 주위 봉사자들에게 선함이 전염된다. 일해 놓은 성과에 감동하게 된다. 그런 맛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찐한 맛’일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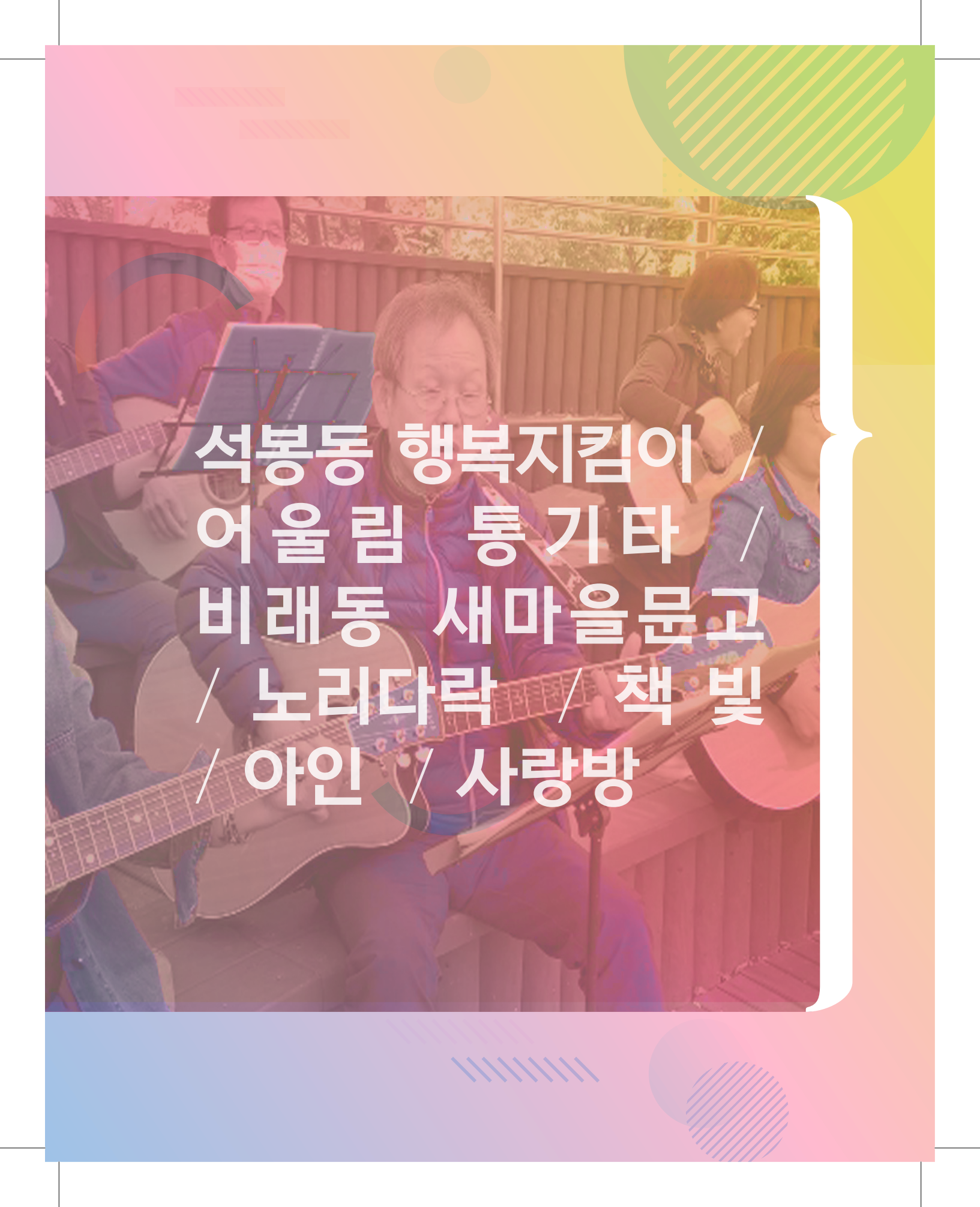




다들

재능 나눔 예술로 피어나다





석봉동 행복지킴이 /
어울림 통기타 /
비래동 새마을문고
/ 노리다락 / 책 빛
/ 아인 / 사랑방

두
글

재능
나눔,
예술로
피어나다

01

석봉동
행복지킴이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추억하다



코로나 블루의 이름표는 외부출입의 자유마저 뚝 끊어 버린 채 냉정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삭막한 땅위에서도 계절은 때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그래 너밖에 없구나’ 라는 위안을 주며 우리를 안아주었다.



석봉동 토박이, 봉사는 고향에 대한 보은

석봉동 토박이로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500년간 뿌리를 내린 집안으로 어찌 보면 석봉동 마을 지킴이 내력의 역사를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마을에 수백 년간 뿌리내리고 사신 조상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과 뿌듯함이 가득 차오르고 그 피를 받았는지 나도 마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각별하다고 자부한다.



결혼과 직장생활도 오직 고향에서 거주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타 지역의 기회도 있었지만 우직하게 나는 고향마을에서 삶을 뿌리내리고 싶었다. 직장은 연구원으로 몇 년간 근무하다 늘 마음속의 뜻한바가 있어 30대 중반에 일찌감치 직장인의 생활을 접고, 전업주부 같은 입장이 되어 마을 봉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내의 전적인 내조가 있기에 가능했다. 나는 마을을 위한 봉사와 마을과 관련된 일을 찾으며 무보수로 활동을 이어 나갔다.

마을의 발전과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 없이 나섰고, 더 나아가 살기 좋은 우리 마을에 대한 변화와 가치를 추구하고 싶었다. 금강 변에 위치한 석봉동은 살아본 사람만이 안다. 조용하고 향토적인 본연의 풍경을 지닌 아름다운 마을이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하는 주변 환경을 보면서 우리 마을도 더욱더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로 거듭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좋은 마을로 바꾸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마을주민들과 합심하여 함께 노력하고 가꾸어 나간다면 그 어느 동네보다도 얼마든지 발전의 가능성과 좋은 마을의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내 고향 석봉동이!

처음에 여러 작은 일들에 참여도하고 주민들을 만나다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기관과 접촉의 기회가 많아졌다. 그 당시 나는 주민자치회 최연소 위원장을 맡으며 마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었다. <학습마을 추진 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회장을 맡게 되었고 공모사업을 통해 조금씩 사업비를 받아 단체를 운영했었다. 그러던 중 주민 센터 복지과에 근무 중인 이근수국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국장님은 나처럼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았다. 뜻과 생각이 맞고 하고자 하는 일에 서로 의기투합하여 본격적인 마을 일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석봉동 행복지킴이의 탄생

그런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가 2017년에 발족한 <행복지킴이> 공동체 단체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 단체를 발족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공모 사업을 통해 받는 사업비로 좀 더 효율적이고 전반적인 마을의 개선과 우리 마을만이 갖고 있는 좋은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마을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컸다.

2017년 발족한 행복지킴이 공동체는 위원들 대부분이 마을 활동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였다. 주로 새마을금고 책봉사, 부녀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 외에 마을사업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나는 회원들이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해서 몇 번 거절 끝에 수락하여 현재까지 이끌고 있다.

석봉동에는 규모가 작은 10여개의 단체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서 <행복마을 추진 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행복지킴이' 단체가 주도가 돼서 2017년부터 제 1회 핑크물리 축제행사를 본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석봉동 금강변쪽에 위치한 버려진 땅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활용을 해보자 생각 끝에 핑크물리를 심게 되었다.

앗 제발요, 살살 봐주세요. 수놓듯이 정성 쏟는 핑크물리축제의 이면

핑크물리는 매우 까다로운 작물이라 관리가 철저해야한다. 핑크물리가 씨를 뿌려서 키우는게 아니라 많은 인력을 동원해 한뼘한뼘 심어서 키우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저 눈으로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인생샷을 찍기에 바쁘다. 그 조차도 코로나로 예전의 진풍경을 그려내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행사기간에 보면 아름다운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무분별하게 핑크물리 밭을 헤집고 들어가 사진을 찍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지어 누어서 찍는 사람들도 있다. 한 번 밟히면 사망이다. 안내판이나 주의는 눈에도 안보이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제발 핑크물리 밭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뒷배경으로 놓고 찍어도 인생샷 충분합니다.

사진전, 우리 고향의 기억과 추억

또 하나 행복지킴이가 추구하는 사업은 <사진전> 개최인데 벌써 3회째를 개최하였다.

나는 취미생활로 사진 찍기를 6년간 활동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비교불가하다. 과거 마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추억을 해서 사진으로 남긴다면, 후손들에게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고향에 대한 애정이 새록새록 피어난다.

사업을 위해서는 역시 지원금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는 오랜 사진 활동 덕분에 나만 마을에 관련된 사진을 갖고 있는데 회원들은 아직 경험과 활동이 적은 편이어서 점차적으로 사진 찍기를 배워서 함께 전시하고 만들어가는 중이다. 공동체 기금을 받아서 사진을 찍고 인화 하여 액자를 만드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회의비와 여러 주민들을 만나는 비용도 꽤나 크다. 올해 <사진전>은 2018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 차를 맞이하고 있다.

석봉동의 미래는 밝다라고 단정짓다

나뿐만 아니라 마을을 사랑하는 지킴이가 많은걸 보면 미래의 희망적인 지역으로 크게 발돋움 하리라 본다.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는 대덕구 신탄진 4개동을 합쳐서 석봉동 <행복지킴이>가 주체가 되어 UCC 영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마을을 홍보할 예정이다. 전문가를 양성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각자 개인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팟 캐스트도 운영할 계획 중에 있다. 지금은 모든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 중지됐지만 매년 열리는 핑크물리축제 행사를 통해 단순히 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을간 중재활동이 되어서 타 지역이나 각각 동네간의 협력과 소비축진을 발전시키고 좋은 마을 만들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함께 상생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종종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돈이 생기냐 마을일에 왜그리 열심이나” 라고 질문을 받는다. 이유가 있다. 따로 대답할 꺼리도 없다. 내 고향, 우리 마을을 사랑하니까. 정답은 항상 단순하다. 그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기를 바라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내 고향이 나를 키우고 기다렸듯이 나도 고향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02

어울림
통기타

기타학습
재능 나눔 및
소외계층에
음악 공연



들어가며

4월의 어느 날 인터뷰 미팅시간에 맞춰서 나는 대덕구 법동시장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햇볕은 다소 따가울 정도로 화창하였다. “이음마을학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황익삼선생님을 포함 4분이 기타연습을 하고 있었다. 유쾌한 만남을 뒤로 하고 후속 인터뷰를 나누면서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좋아하는 기타를 연습하고 연주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나태주 시인의 『응원』을 힘을 내시라고 보내드렸다.



오늘부터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네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함께 가자
지치지 말고 함께 가자...
그 길 끝에서 웃으면서 우리 만나자
『응원』 나태주

공동체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공동체 이름은 ‘어울림통기타’로 멤버들이 센터에 모여서 기타 연주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고 연습하여 기량을 닦아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기타연주 재능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소외계층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기타 공연을 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서로 모여서 함께 기타학습을 통하여 성취감을 맛보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서로서로 어울리고 봉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었다.

우리처럼 기타를 좀더 심층적으로 배우려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기타를 배운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기타를 가르칠 외부강사님을 초빙하여서 수업을 들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버스킹을 통하여 실전 학습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음악 공연에 자신감을 얻게 한다. 소외계층인 요양원과 복지기관 등의 기관과 접촉해서 우리의 기타실력으로 음악 연주를 공연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나를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결성하였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대전 삼성동에서 태어났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충남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다.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공립고등학교에서 전기 전자 정보통신 등을 가르쳤다. 예산에서 가르치다가 초창기 사립으로 동아공고가 생겼을 때 급여가 좋아서 옮겼다. 그때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 전학생들이 다 장학금을 받았고 기숙학교를 운영했다. 서울대도 많이 갔는데 1회에서 제일 많이 갔다. 대전상고는 게임이 안 되었다. 교직생활을 2014년도에 정년퇴직을 했다.

교직생활은 아주 즐겁게 하였는데 그때는 테니스를 좋아했고 지금도 테니스를 즐겨 치고 있다. 음악은 특별히 좋아하거나 애정이 있지는 않았다. 퇴직하고 무료해서 법동주민센터 기타와 노래를 배웠는데 벌써 만 7년 차이다. 테니스 노래 기타 이 세 가지로도 인생이 꽤 차고 있다.

멤버들도 간략히 소개 부탁드려요.

총무는 이해경씨로 회계담당이고, 사업담당자는 김영신씨로 버스킹 장소와 봉사 활동할 장소, 그리고 각종 공연의 계획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최연장자는 76세이신 분과 최연소자 52세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퇴직하신 70대가 2분, 60대 가정주부 4분, 50대 2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호, 최영화, 임순희, 김영숙, 정창용 등으로 주로 대덕구의 중리동과 법동, 송촌동, 비래동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울랄라 버스킹을 진행하셨군요.

다행하게도 법2동 주민자치회 문화예술분과에서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실행하는 사업에 참가했다.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소통하고 어울리는 거리 봉사활동을 하려고 우리가 단체를 결성한 것 아닌가. 각종 음악과 재능을 공연하면서 대덕구에 요란하지 않고 품격이 있는 버스킹 문화를 만들기 위한 원대한 꿈을 우리가 정착시키고 싶었다.

버스킹 진행일은 2021. 7.16(금)으로 미리 리허설을 하느라 1시간 전에 모였다. 4개의 팀이 15분씩 진행하였는데 버스킹 진행시간은 17:00 ~ 18:00 였다. 우리 어울림통기타 팀은 8명이 참여해서, 푸른시절 (김만수), 나는 행복한 사람 (이문세),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 라는 3곡을 연주했다. 사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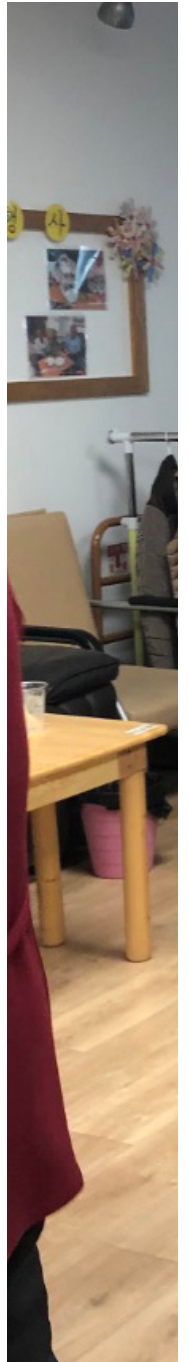
거리공연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실내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관객은 주로 행사 담당자들, 공연팀들, 복지센터 근무자들, 기타 몇 분의 주민들만 참여하였다. 사실 몹시 아쉬웠다. 그래도 진행했다는데 더 의미를 두고 방점을 찍어야겠다.

코로나로 회원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동체센터에서 종종 모였는데 지금 4단계라서 중단되고 있다. 카톡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다. 다른 멤버들도 아마 집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성과라면 20년 12월24일 송촌동의 ‘해드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2020년도에 법동 쌍청 근린공원에서 버스킹을 2회 실시하였다. 어울림통기타 공동체 멤버들은 올해 2021년도에는 연습장소를 이음마을학교에서 대덕구 공동체센터로 이동했다.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더 많은 활동으로 봉사하려고 가슴이 부풀었다. 대덕구 공동체센터의 멋진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서 마음껏 기타 연습을 해본 것도 잠깐. 코로나 4단계로 진입하면서 대관 자체가 금지되었단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봉사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고민만 깊어갔다. 뭔가 업적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감감해 하던 차였다. 간신히 법2동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하는 ‘21년도 울트라 버스킹’에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기로 하고 공연하였다. 관계자들과 연주자 소수만 모인 자리였지만 답답한 갈증은 잠시 풀릴 수 있었다.

나가며...

앞으로 남은 계획으로 봉사활동과 버스킹 공연이라도 할 수 있게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어울림통기타 공동체- 우리 아마츄어 버스커들이 마음껏 모여서 연습하고 기타로 화합하고 버스커로 대중과 소통하고 요양원, 장애인공동체 등을 찾아가 봉사도 실컷 할 날이 곧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사실 우리가 소외계층이라고 구분지을 때 대부분 경제적 관점에서만 구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문화로부터의 소외가 가장 심각하다고 본다. 어울림통기타 멤버들은 음악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 많이 기타 선율로 보듬어서 상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어울림통기타 멤버들 멋있습니다.





재능
나눔,
예술로
피어나다

03

비래동
새마을문고

21년 차
인(人)적
네트워크





우리 공동체는...

작은 동네의 문고에 빼곡히 비치된 7,000권이 넘는 책들, 21년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우리 팀 이름은 ‘비래동새마을문고’, 이름 그대로 우리는 비래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한 공간을 차지하여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그렇게 21년! 우리의 존재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무르며 차츰 낯익은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문고에 첫발을 디딘지가 어느덧 21년이 되었다. 내가 드나드는 분들을 섭외하고 문고지기 모임을 만들었다. 이제는 문고가 우리의 아지트이며 비래동과 함께 살아가고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 핵심 문고지기는 18명 정도이며 언제나 오픈되어있다. 문고의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우정과 신념도 함께 자라고 강인해졌다.



“책! 이제 귀로 들어요 – 오디오 북”

다른 팀과 달리 우리 팀은「해보자」의 연속사업으로 올해 3년 차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지원할 때 단기로 할 것인지 장기로 할 것인지 먼저 구상해보고 공동체센터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이다.

먼저 지난 2년간의 활동 내용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차년도인 2019년도에는 “책! 이제 귀로 들어요- 오디오 북” 이다. 소설, 교양, 아동 분야에서 각각 2권을 선정해서 제작하였다. 회원들이 동화책을 읽는 경험도 어색하고 적응이 잘 안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해냈다. 우리가 1년을 결산하면서 2019년 오디오 북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숨 가쁘게 1년을 보내고 우리 회원들은 모두 사기가 의기충천했다.



애니메이션 더빙

그래서 2년차 도전에 들어갔다. 2020년에 우리 주부들에게는 낯선 분야인 애니메이션 더빙에 도전했다. 우리가 개인의 접근으로 사적으로 도전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비용으로 2020년 애니메이션 더빙 수업을 받으면서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감있게 말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몇 번이고 연습해서 자신의 발음으로 만들어야 했다. 내 발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연구와 표현이었다.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에 목소리로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빙한 애니메이션 목록은 캡슐보이, 신비아파트, 엄마까투리 1/2, 버블버블마린 이다.



동극공연 “특별한 생일선물”

드디어 2021년 3년 차 마지막 사업에서 동극공연 “특별한 생일선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동안 2년 동안 같은 목표로 활동했던 회원들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이 가장 큰 성과이다.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수업이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서 진행되었다. 대관과 모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날들이 많았다. 시간이 확확 지나갔다.

코로나로 인한 척박한 상황에서도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데 모두 감격하였다. 대본을 쓰기 위해 숙제를 많이 했고, 쪽 대본을 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캐릭터의 성격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대본 수업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패턴을 이끌어가는 것과 일상대화화 대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9월에는 연습을 했다. 회원들이 18명인데 이번 동극에서는 8명이 모둠으로 활동하는데, 연극에 관한 모든 것들에 재능기부를 한다.

1년차에 오디오 북 제작을, 2년차에 애니메이션 더빙을 먼저 해봐서 소위 겁들이 없다. 동극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서로 중지를 모으는 중인데 동극까지 왔으니까 환경으로 확실한 수입창출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겠다는 결론까지 도달했다.

나가며

비래동새마을문고 팀 대표인 김다영님의 존재감은 21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문고지기의 인적자원에서 드러난다. 김다영씨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다져진 비래동의 발랄한 주부들이 함께 나이를 먹어가며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참여 인원 스스로가 마을 공동체의 본보기가 되어 각자가 발견한 재능을 마을 자원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공동체로서 21년 가까이 단결해서 존립해 온 이점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식전 행사 공연 팀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도 기대된다.

04

노리다락

디자인으로 마을을 그리는 꼬마작가 육성 프로젝트

두울

재능 나눔, 예술로 피어나다

대덕구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마을문화디자인 분야로 디자인으로 마을을 그리는 꼬마작가 육성프로젝트이다. 나는 신탄진 석봉동 목상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교육해서 지역 디자이너가 되도록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몇 차례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각자 직접 문구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해 로컬 굿즈를 디자인할 것이다. 디자인을 기본으로 기획,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디자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일거리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진행하다가 큰 보람을 느꼈을 때와 어려움은?

우리팀은 기획공모로 선정되었는데 주제활동이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그림수업을 진행해서 굿즈(goods)를 판매하는 기획이다. 문구 작가라는 분야에 대한 진로체험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그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목표이다. 마스크 텀, 스티커로 만들어지는 디자인 그림 수업이 공부인데 코로나 때문에 10명씩 10회차 수업이 목표였으나 팀별로 4-5명만 모집해서 1타임에 2시간 정도 수업했다. 초등학생 6명과 중학생 3명 그리고 고등학생 8명이 30 클래스를 진행했지만 아쉽긴 하다.

먼저 학교에 공문을 보내 어머니들이 공문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했으나 중간에 모집을 다시 하기도 했다. 지역내 카페에 웹자보를 이용해서 알렸다. 장소는 협동조합 “로컬디자인 숲” 목상동에 있고 공유장소가 디자인을 해 주는 협력업체이다. 수업은 주로 집 근처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 열린 토론과 함께 예술적 키워드나 디자인적 소재를 찾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기획서에는 축제 기간에 부스를 마케팅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전시를 한 후 10월에 은행동 아리아갤러리를 하루 대관해서 전시한다.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동시에 굿즈를 판매한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수업 반응을 봐주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부모님들의 피드백이 기분이 좋았다. 어려운 점은 서류작업이다. 여러 가지 하다못해 간식을 먹이는데도 서류며 사진이며 자잘하게 품이 많이 든다. 어쨌든 수익 사업이 아니고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한다는 마음이 많은데 일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서류작업으로 외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왜 활동에 참여하시는가요?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시작했다. 간호사였고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그림을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며 내가 하고 싶은 초크아트를 시작했다. 확신이 있어서 병원을 그만두고 시각디자인학과에 편입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기 했다. 대전mbc에 출연했고, 서울mbc에서 드라마 2편의 배경과 스튜디오 배경을 담당했다. 프리랜서로 2007년 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아이패드로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마케팅공사의 주관으로 “아임 굿즈” 공모전에서 대전을 소재로 한 굿즈를 지원금을 받고 스티커, 엽서, 다이어리, 속지, 패브릭 등등 여러 소재로 만들어 보았다. 또한 대전에서 먹어야 할 6가지 음식인 대전6미를 그림으로 그렸고 음식을 주제로 한 스티커를 그렸다. 대전시 굿즈 공모전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응모했다.

왜 공모사업에 지원하셨나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다. 이 활동에 참여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문구작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새로운 직업군으로 프리랜서이자 아티스트가 되는 길을 알려주고 싶다. 나는 프리랜서로 오래 생활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했다. 하지만 문구디자이너는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가며 돈을 벌 수 있기에 보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일 수 있고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있다. 텐바이텐에서 실물을 개인 판매하거나 파일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수익의 다양성과 확장성이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문구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픽디자이너나 시각디자이너로 인지되고 있는데 문구 디자이너는 업무를 가리킨다. 디자인의 분야는 넓다. 연필이나 도구 등 제품 자체의 외형적인 모양을 디자인하는 경우는 산업디자인이다. 문구나 팬시 디자인 분야는 완성된 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프린팅을 제품에 입히는 그래픽디자인이다.

씩이 보이는 친구가 있다. 아이들 상품이 정말로 팔릴 수 있을까 궁금도 하고, 실험을 해보는 중이다. 아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캐릭터로 자료조사와 반려동물을 관찰하고 토론도 해보는 등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대덕구와 관련된 풍경도 머리를 맞대고 찾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에 집중하시나요?

이 분야는 새롭게 생성되는 분야로서 현재 비전공자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사업활동에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림에 관심이 많거나,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아이들에게 길을 알려줄 것이다. 대기업 시스템과 다르게 문구디자이너 분야가 개인이 스스로 홍보해야 하다보니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아이들과 꾸준히 할 수 있는 근성이 있는 아이들을 발굴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굳은 내용이 대덕구 대청댐 계곡산을 소재로 하는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디지털화해서 편집을 하는데 주안점은 상품성이 있도록 퀄리티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이다. 무슨 내용이나면 아이들은 디자인 부분을 책임지는 거다. 기술적 부분이나 전문적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9월 중순쯤이면 아이들 작품을 베이스로 한 굿즈 상품이 나온다.



신탄진의 특징은 오래된 구읍과 새로 형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이중적 구조가 있다. 아이들의 정체성도 급격하게 양분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시점에서 나는 신탄진이라는 지역의 아이들을 인큐베이팅 하고 있다. 아직 굳즈가 나오기 전이라서 시장의 반응은 솔직히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이라도 아주 극대화와 극소화가 양립하는 시대말이다. 취향이라는 것이 피카소를 좋아할 수도, 줄라맹을 좋아할 수 있다. 극단적 다양성 속에서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는 시대에 문구 디자이너는 해볼만 하다. 획일화된 그림이 잘된 그림이 아닐 것이고 정교하지 않고 못 그려도 잘 팔리는 시대라서 독창성이 먹히느냐의 시험대인 시장으로 나와봐야 한다.

비전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재미있는 일을 좋아하며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고 모든 일이 재미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것들을 발굴하고 아이들을 작가로 성장시키고 싶다. 대전시내에 일러스트 작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과 부산 일러스트 페어가 있는데 대전에서도 해보고 싶다. 안정적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대전지역 작가들이 크고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프리랜서 생활은 불안정한데 일이 몰려다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05

책 빛

책이랑 빛이랑,
중리동 엄마들이
만드는
그림자 인형극

두
어
를

재능 나눔, 예술로 피어나다

책 빛, 그림자 인형극, 두 단어는 낮설게 다가오지만 아이들을 동화 속 세계로 안내하는 중리동 엄마들의 그림자 인형극 활동이다. 중리동의 학교에서 명예 사서로 활동했던 엄마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체를 만들었다. “책이랑 빛이랑” 줄임말인 책 빛이라는 이름처럼 활동 또한 사랑스럽고 신비롭다. 준비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즐거움 이상의 공연이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한꺼번에 쏟아져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침 30분의 시간으로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속 어디선가 사명감이 올라왔다. 책장을 넘기며 침을 꿀꺽 삼켰다.

‘잘 읽어줘야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리딩맘 이었고, 학교에서 도서관 사서 활동을 했던 엄마들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들이 함께한 그림자 인형극 단체다.

2021년 책 빛 공동체 사업명은 ‘옛 이야기로 찾는 사랑 “愛” 중리동 중리동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엄마들의 열정을 모아 그림자 인형극으로 만들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그림자 인형극

다숨어있는 전통 이야기와 그림자 인형극이라는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책 빛, 낮선 만큼 특별한 인형극이다. 주민자치 지원관님께서 중리동엔 공동체가 없다며 마음 맞는 엄마들끼리 공동체 하나 만드는데 어떠냐고 제의를 하셨고 우리는 고민 끝에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알맞은 10명의 인원을 모집했고 아이들과 접하기 쉽고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를 생각 중 “책이랑 빛이랑”을 선택하고 한글자씩 따서 책 빛 이란 단어가 탄생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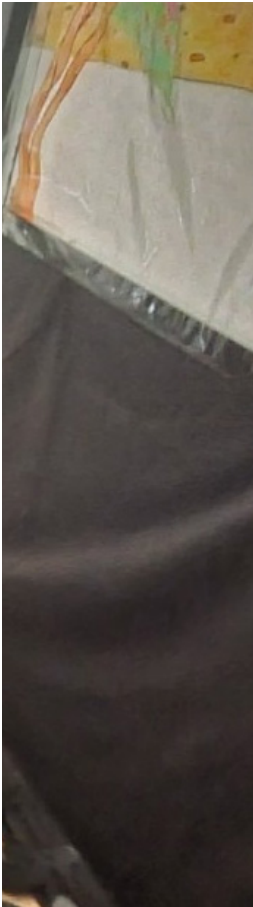


2021년 사업의 경우 중리동에 내려오는 이야기엔 어떤 것이 있을까? 고흥류씨 정려각과 쌍청당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자료가 많이 수집된 것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지만 최종 선택은 우리 엄마들의 뭍이라 고흥류씨 정려각. 류씨부인이 어린 유를 데리고 개성에서 회덕까지 오는 과정과 12살에 과거시험 합격까지 세 줄로 표현한 자료로 정했다. 중리동 지리와 이야기에 능통하신 어르신들을 초대해 말씀을 들었지만 아는 이야기였고 그중 “삼일 밤낮으로 빌었다”란 말씀을 들었을 때 희열을 느꼈다.

10명의 엄마들은 전문적인 사회활동을 하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일이 더디고 습득하는 과정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하지만 열정과 사랑이 많고 각각의 장점이 많았다. 흥대표가 엄마들 하나하나의 장점을 찾아내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 나갔다. 마을 활동 공동체의 위력이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이지 역량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여 대단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역량을 서로 나누고 모아서 발전된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정한 공동체의 역할이며 힘이라는 생각이다.

중리동에 도서관이 없어서 작은 도서관 하나 갖기를 희망하던 엄마들이 모여서 우선 그림자 인형극 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그림자 인형극이라 전문 강사님한테 10번의 교육을 받고 시작해야 했다. 고무판에 그림을 직접 그리는 과정도 생소하고 빛을 비춰 움직이게 하는 과정도 너무나 신기했다. 엄마들도 재밌어 하면서 배우는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인형을 만들고 배경을 그리고 색칠하고 고무판에 인물 하나하나 개성을 살려 그리면 칼을 이용해 섬세하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하나하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작업을 한다. 손가락을 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따르지만 그 아픔을 견디며 작업하다 보면 어느덧 멋진 작품이 완성되어 가고 각자의 실력에 놀라고 욕심이 생긴다. 이야기가 재밌어야 시선을 끌 수 있어서 시나리오 작업은 두통을 동반한다. 서로 대본을 써와서 짜깁기 후에 수정 또 수정 다시 수정하면서 하나의 대본을 만든다. 작가들의 고통을 엿보며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배운다.



단체복으로 화합까지 최고로 만든 책 빛 엄마들



**엄마들은
우아한 백조,
호수 밑에서
사정없이
물질을 하는...**

무대를 만들어 설치하고 판을 세워 무대 뒤에서 후레쉬를 이용해 음과 양을 조절하고. 인형 하나하나 움직이는 동작 섬세하게 표현하고 음악을 이용해 분위기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목소리 연기까지. 무대 뒤에서 서로 기어 다니고 옆으로 구르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인형극을 한다. 수십 번의 연습은 당연한 과정이다. 엄마들은 그림자 인형극을 하는 우아한 백조다. 호수 밑에서 물질하느라 바쁜 백조.

코로나 시국이라 엄마들도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보는 아이들도 마스크를 쓰는 소리 없는 공연이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하다. 신기하고 재밌는 그림자 인형극에 푹 빠진 아이들을 보면 그동안의 노고가 눈 녹듯이 사라진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한창 꿈꾸는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중리동의 전설 같은 류씨부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개성에서 회덕까지 호랑이를 타고 내려왔다는 상상속의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보여준다. 힘들어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림자 인형극을 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 노고는 엄마로서 당연하다. 흥대표가 힘을 북돋워주느라 그랬는디!!! 하며 추임새를 넣어주면 아이들도 따라서 어깨를 들썩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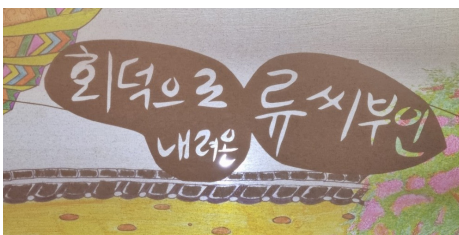


과정에서 결과까지 수고 그리고 수고 결론은 즐거움

공동체 예산을 받고 강사비 거기에 재료비의 품목인 고무판 후레쉬 스피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문구류등의 준비를 예산으로 진행해 준다는데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부터 가졌다. 마음자세가 결과물의 반을 차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을 만들어 보려고 더 열심히 했다. 그림자 인형극은 동적인 활동인데 작년과 올해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움은 두 배가 됐다.

2020년 방귀쟁이 머느리부터 올해 류씨부인 이야기까지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노력이 켜켜이 쌓였다. 공동체 심사 때도 다리가 부르르 떨렸지만 둘이 들어가서 “저희 뽑아주세요 !!” 라고 한마디 던지며 열정을 드러냈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운신의 폭이 작아진 세상, 우리 엄마들이라도 힘을 내서 아이들을 위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림자 인형극은 대 성공이다.

중원초등학교에서 11월2일 공연을 마치면서 그간의 노력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스스로 점수를 후하게 주었다. 교장 선생님도 “꿈꾸는 다락방”에 매시간 마다 오셔서 격려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 호기심을 갖고 공연을 마주하게 되었다. 시나리오 작업부터 연습하는 과정까지 너무 힘들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멈출 수 없다. 물론, 내년에도 할까를 잠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 행정과 관련된 서류들, 쉬운 일정이 없지만 결과만 보면 과정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내년에도 그림자 인형극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제 환경과 기후는 우리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절대절명의 숙제가 되었다. 어른들이 그 숙제의 고리를 풀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물려주어야 할텐데...

심각하게 다가가기보다 그림자 인형극을 통해 환경 문제를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해보면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저탄소 시대를 여는 작은 출구를 그림자 인형극으로 만들어 본다면?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서 2021년 사업을 마무리한다. 수고했어요 그림자 인형극 ‘책 빛’ 팀들!

06

아인

현장에서
철학을
만나다



공동체 응모의 계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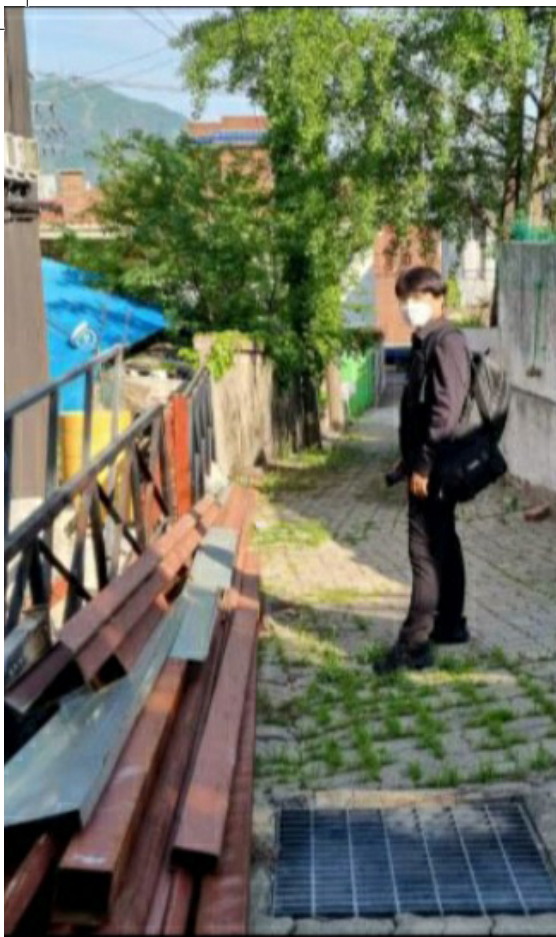
내가 속한 단체인 '아인'은 글쓰기 창작 수단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룹이다. 글쓰기의 대상은 정체성이라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어카이빙(archiving)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기록 보관소 내에 파일을 적재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으나 현재는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록을 파일로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글쓰기의 대상을 자신으로 아카이빙 하다가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 대해서도 어카이빙 해야겠다고 뜻을 모았다. 공동체사업 응모의 계기는 지역 내 공간들을 어카이빙 해서 기록에 남기는 프로젝트로서 오정동과 중리동 공간의 어카이브와 문화적 재해석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기록과 공간에 속해있는 자신에 대한 기록이 목적이다. 익숙하기는 한데 자세히 모르는 공간들로서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대화동 공구거리, 그리고 중리동 가구거리를 대상화했다.



가장 알리고 싶은 특별한 활동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이번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은 너무 자주 접한 나머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간 공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스쳐 지나가지만, 역으로 그 때문에 해당 장소에 대해 깊게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한창 붐빌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밤, 자정이 넘어 신새벽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농산물들을 경매를 거쳐서 옮기는 순간 등 시장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기록하였다. 이런 접근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던 지역의 미처 모르던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케이스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번 공동체사업을 계기로 오정동 공구상가를 가보았다. 문을 닫은 곳이 많았고 임대를 구하는 광고지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공교롭게도 매물광고를 게시한 부동산의 이름이 “밝은 부동산”이어서 아이러니와 비애를 동시에 느꼈다.



진행하다가 큰 보람을 느꼈을 때와 어려움은.

나는 지역의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하고 함께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덕구라는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가 제일 뿌듯하다. 교육이나 강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경우에 참가하신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도 보람을 느낀다. 반대로 프로그램을 중도 이탈하는 분들이 있을 때 제일 속상하다. 기획이나 과정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하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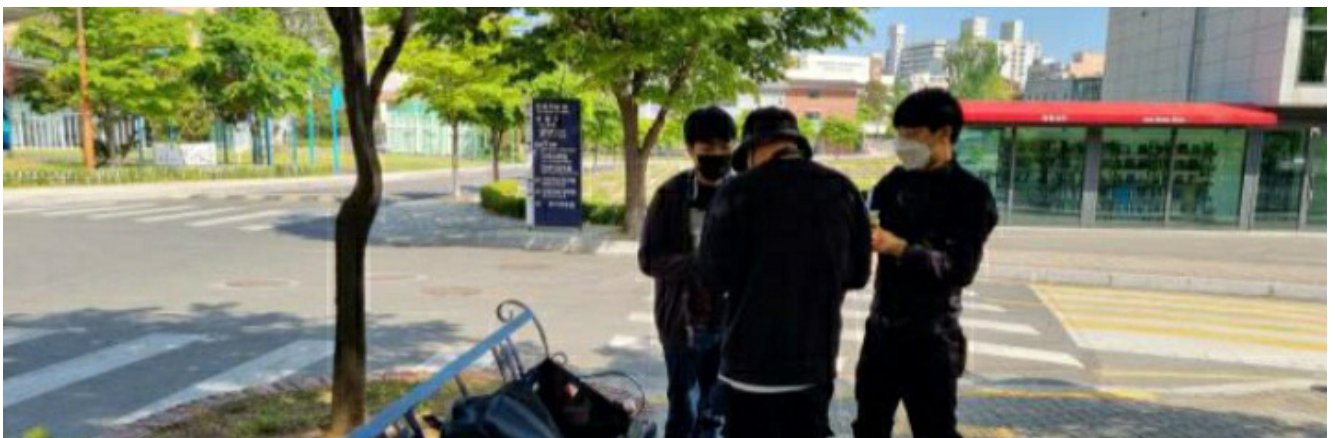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왜 활동에 참가하시나요?

나는 한마디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중간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창원이 고향인데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서 충대를 선택했다. 컴퓨터공학을 부전공했고 조치원홍익대에 조교로 취업하면서 독서모임을 만든 선배를 통해 대덕구청년병커에 사무국장으로 들어가게 됐다. 지하 3층에 위치한 병커를 최고의 마지노선으로 대상화했다. 청년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의 고민으로 갇히어 있을 청년들이 만나는 공간이다. 나는 병커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0으로 시작된 팔로워가 1,000명이 넘어갔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계층들이 존재하고 각 세대들의 절망감을 수치화 한다면 그중에서도 나와 같은 청년들의 절망지수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병커 공간 운영을 담당하면서 청년들에게 최적화된 활용성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성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코로나 위기가 지 보너스로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형태를 수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의 성과를 이야기 해주세요.

대전 대덕구 오정동, 중리동 공간의 로케이션을 통한 기록을 통해서 자산화하는 프로젝트를 목표로 우리는 자주 만나서 현장을 기록했다. 동네 구석구석을 기록하고 평소 유심히 보지 않았던 장소와 오브젝트를 사진으로 아카이빙 했다. 중리동의 현장답사와 함께 우리들이 유의미하게 본 것은 대전 대덕구의 도시계획에 의해 형성된 주택가와 빌라촌이 35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증산도교육문화회관 뒤편에 형성된 모텔촌이 동네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도 사실이다.

오정동 공구상가는 둔산동 건너편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공구상가의 정확한 명칭은 오정동 공산품 특화 거리이다. 이 지구에는 건축자재, 철물, 공구, 산업용재, 천막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400여 곳 밀집해 있다. 중리동과 오정동 두 지역을 여러 차례 각각 다른 시간에 방문하고 사진 자료를 남기며 멤버들이 느낀 감상을 서로 공유하며 대덕구의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기록 사진들에 대한 감상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가운데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 기록에 대한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성된 글에 대해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자그마한 사이즈의 출판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나는 충남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문학과 창작을 좋아했으며 사람들을 만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탐색해왔다. 대학원에도 진학해서 문화콘텐츠 관련과 도시 재생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이 목표이다. 내가 스무 살 시절부터 살아가고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기록들을 꾸준히 쌓아가서 후에 작품집 같은 것도 내 보고 싶다. <원미동 사람들>처럼 <오정동 사람들> 같은 책을 내면 재밌지 않을까? 피카레스크 형식으로 해서 공산품 특화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농수산물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집을 쓰고 싶다. 르포르타주(기록문학)를 바탕으로 창작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

인터뷰를 끝내며

대학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역할을 대학원에 넘겨주고 대신에 취업준비로 방점을 두며 실용학문과 역량 강화로 정체성을 재정립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회복지학과 단 한 학과만 있는 지방의 어느 전문대학도 생겨났다. 제일 먼저 철학과의 정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취업보장이 안 되는 학과인 심리학과의 찾아서 조재혁은 충남대학교에 입학했다.

문학을 좋아하는 문학청년이 문학과 연결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왔던 조재혁은 청년병커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와 인터뷰하면서 아련한 나의 청춘이 소환되었다. 아마도 그는 키크(geek-특별히 열정적인 사람) 정도로 언급되었지. 그러나 그의 가슴에 새겨진 이카로스의 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07

사랑방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우리는
멋진 아줌마들



두울

재능나눔,
예술로
피어나다

사랑방 공동체는 요즘 아줌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 가는 중이다. 이제 더 이상 집안에 혼자 남아 TV 드라마나 보면서 콧물 눈물 썩 빼는 아줌마가 아니다. 더구나 갱년기의 땃에 걸려서 가족들에게 짜증이나 내는 거추장스러운 아내의 모습도 아니고 슬금슬금 피하고 싶은 엄마의 모습도 아니다.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생활 구석구석을 선순환적으로 바꿔 나가는 문화 운동의 중심에 있는 멋진 활동가들이다. 주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건강해져서 코로나19도 거뜰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사랑방에서 배운 손뜨개질과 손바느질로 하루를 시작하는 멋지고 당당한 아줌마들이다.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삶이 아름답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가 되면 조용했던 공동체지원센터가 웅성웅성 깨어나기 시작한다. 현모양처의 삶을 살던 사랑방 회원들이 잠시 주부의 일상을 벗어놓고 개인적 존재 의미를 ‘찾아 사랑방에 모이는 날이다.

한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잠시 잊고 살았던 ‘나’를 찾아 떠나는 이 시간이 사랑방 팀원들에게는 기나긴 경력단절의 시간을 딛고 새로운 ‘나’를 만나러 나오는 시간이다.

“작년에는 마스크와 친환경 마 수세미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과 나눔 행사와 1일 클래스를 통해 지역민 대상 뜨개질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런가 하면 연말에 사랑방에서 만든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작은 전시회를 가졌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만 아니면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서 전시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아쉬워요”

지난해 사랑방 공동체 사업 담당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사랑방 공동체 회장이 된 송영란 대표의 말이다. 지난해 사랑방 공동체 회원들은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두가 어려울 때 어디선가 선뜻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1년 사이에 사랑방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작년에 사랑방을 이끌었던 대표가 다른 역할을 맡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지난해 사업담당을 맡았던 송영란 대표가 사랑방을 새롭게 재건했다. 그러면서 팀원들이 다시 한번 헤쳐모이는 과정에서 회계담당 장현숙씨와 사업담당 이상숙씨가 송영란 대표를 도와 사랑방을 알차게 이끌고 있다.

사랑방 공동체는 다른 모임자 팀에 비해 회원들이 14명이나 되는 회원 부자팀이다. 그러다 보니 적은 예산을 14분의 1로 나눠 알뜰하게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살림을 알뜰살뜰 도맡아 분배하는 사람이 바로 이상숙 사업 담당이다.

사랑방 공동체에서 회계처리를 맡은 장현숙씨는 작년에 못 입는 청바지를 새롭게 리폼해서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가방을 들고나와 한참 동안 가방 자랑에 신이 났다. 가방 규격에 맞게 청바지를 자르고 디자인한 후에 바느질로 꿰매는 작업을 거쳐서 완성했다. 한눈에 봐도 고가의 명품 가방이 부럽지 않을 만큼 멋스러운 가방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뒤늦게 발견한
나의 재능!!!**

여름 한낮, 사랑방 공동체의 공기는 이열치열이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 억누르고 현모양처로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작품 제작 열정들이 뜨겁다. 강사가 가르쳐주는 것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기에는 흘러넘치는 열정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래서 간혹 열정 넘치는 팀원 중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 선행학습을 해오는 팀원도 있었다. 그런데 항상 선행학습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서 엉뚱한 기술을 잘못 배워오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런들 어떠랴! 저런들 어떠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어느새 안방 차지하고 들어앉은 갓 년기도 났다 달아나고 저 멀리서 찾아오던 치매도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삶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자산도 없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랑방 공동체에서는 하하호호 피어나는 웃음꽃이 시들 틈이 없다.

**다시
되찾고 싶은
'나'의 자리**

송영란 대표는 요즘 사랑방 공동체를 이끌면서 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송영란 대표와 같은 생의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 장현숙 회계 담당은 요즘 사랑방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50대에 노크하는 갓년기 불청객도 긍정적으로 발효시키는 힘이 생겼다고 한다.

요즘 사업 담당 이상숙씨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집안 분위기를 예쁘게 바뀌고 있다. 또 청바지를 리폼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가방을 만들었다고 신난 장현숙씨도 요즘 어린 딸이 엄마를 대하는 태도에서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고 한다.

“하루 온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느라 바쁜 엄마의 모습만 보고 자랐던 딸이 얼마 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뜨개질 바구니를 들고나와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엄마한테 가져다주는 건데?’ 하고 물었더니 ‘이거 엄마 일이잖아! 이제부터 엄마일 해’라는 아이의 말에서 엄마에 대한 아이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랑방에 모인 주부들은 사랑방 공동체 활동을 통해 프로 살림꾼에서 ‘일 가정 양립’ 균형을 찾아가는 멋진 슈퍼우먼으로 변신 중이다.

사랑방 공동체 활동은 세상을 바라보는 팀원들의 인식을 확장 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을 때는 당장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에 눌러 사회적 인 일에는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다.

그런데 사랑방에 나와 친환경 마 수세미를 만들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고, 못 입는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면서 자원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작업도 알게 됐다. 업사이클링은 단순 재활용 개념을 넘어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 낸다는 의미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운동이다.

“친환경 수세미를 만들고 빨아 쓰는 마스크를 제작하고 버려지는 헌 옷으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또 생활에서 쉽게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텀블러 주머니를 만들다 보니 결국 이런 활동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결국 지구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과정이다. 우리는 어느새 풍요로운 물질문명 속에서 흔하게 구입해서 쓰고 버리는 삶에 길들여져 왔다. 그러다 보니 환경이 망가지고 급기야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까지 도래했다. 더 늦기 전에 환경을 생각해서 자원을 아껴 쓰고 친환경 물건을 제작하는 습관으로 바꿔 가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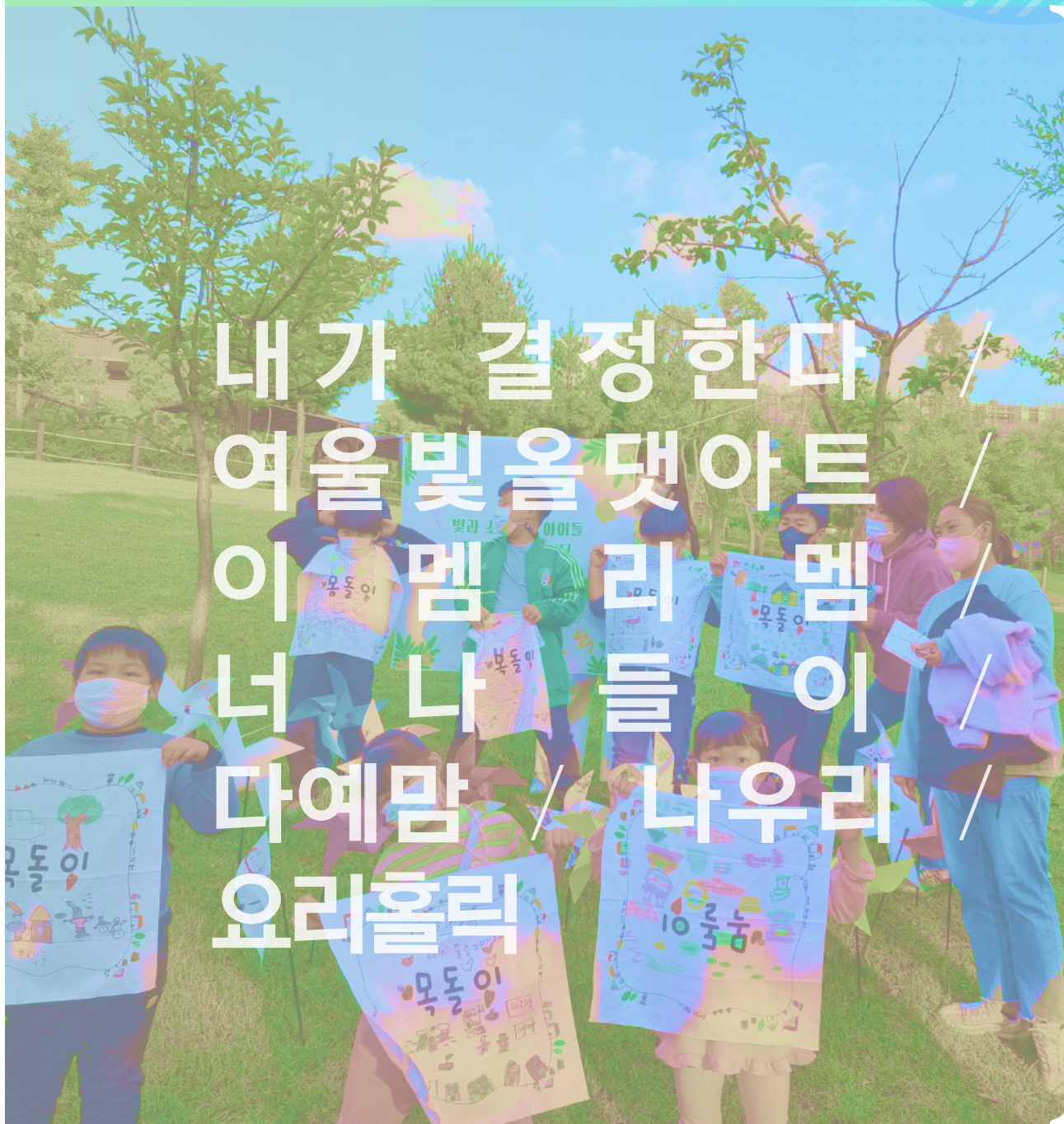


세
엣

돌봄과 교육, 어울림



내가 결정한 다 /
여울빛올댓아트 /
이 멤 리 멤 /
너 나 들 이 /
다예맘 / 나우리 /
요리홀릭





01

내가 결정한다

- 성인발달장애인과
어머니들의 공동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건
독서량보다,
라면 레시피



세엣

과
돌봄교육,
어울림

‘내가 결정한다’ 다소 공격적인 팀 타이틀이다. 세상에는 이론으로 알 수 없는, 반드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세계가 있다. 바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일상이다. 성인발달장애인과 어머니들의 공동체. 덕암동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던 박성아 대표가 2021년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대구 안심마을,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 마을에 다녀온 후 박대표의 마음은 설렘으로 꽉 찼다. 아들 시윤이도 그런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시윤이 36개월 장애를 받아들임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기

시윤이가 36개월 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래의 아이들이 한창 남을 따라하기를 즐기던 때 시윤이는 모방을 하지 않았다. 검사를 했더니 아 니나 다를까 발달장애로 진단이 나왔다. 시어머니 는 “느그 신랑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말문이 터지더라” 시며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으셨다. 물론 나도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들이 나에게 “힘들 지 않느냐”고 묻지만 나는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한 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후 부터 다. 동년배아이들과 같은 성장을 할 수 없다면 100번 1000번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진화하도 록 엄마도 동반자가 되면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이름도 생소한 성인발달 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들은 국가나 지역의 서비스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몸은 성인이지만 인지능력은 아동을 벗어나지 못했다. 부모가 언제까지 옆에서 지켜줄 수 있을지의 의문을 현실에서 풀어보고자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활동을 공동체에서 학습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프로그램이 직접 요리하고 같이 식사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다. 수학을 배우고 독서량을 늘리는 것보다 라면을 직접 끓여보고 일상생활 속 팁들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절실하다. 엄마들이 언제까지 그들 곁에서 수발이 되어 줄 수 없다면 스스로 자립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그들에게는 더 절실하다. 현명한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일부러 시윤이를 일반학교에 보내고 아이가 조금 힘들어해도 견뎌내게 했던 이유기도 하다. 사회 안에서, 무리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면 나도 시윤이도 같이 넘어야 할 산이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시윤이의 성장을 통해 진단하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어린 친구들의 엄마들에게도 일반학교에서 적응해나가기를 권한다.



드디어 우리 손으로 라면 끓여먹던 날, 이런이런!

자립을 돕는 과정은 스스로 혼자 해보는 것부터 시작이다. 슈퍼에 가서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직접 해 먹던 그날. 누구에게나 처음은 낯설고 어설프다.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었다.

00씨(성인 장애인이라 우리는 존대어를 사용한다)는 라면 하나에 물을 한 주전자나 붓고 있었다. 우리 시윤이는 라면 끓이기 구력이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본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본적이 거의 없다. 다들 장애인들이라 집에서 엄마들도 화재의 위험과 자녀들이 혹 다칠까 염려 돼서 음식을 만드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다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00씨가 끓인 라면은 물위에 라면가락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내가 먼저 한 젓가락 맛을 보니 간은 하나도 배지 않아 니맛 인지 내맛 인지 알 수도 없다. “저 국물 좋아해요”라며 00씨는 그 라면에 밥 두 공기를 후루룩 말아 똑딱 해치웠다. 본인이 해먹어서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그래 스스로 라면을 끓여보는 과정은 00씨에게는 희열 그 이상의 경험이다. 아마도 스무 살이 넘어 처음으로 혼자 요리한 라면의 감격이 아마 꽤 오랜 시간 기억될 것이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립

우리 아들 시윤이가 태어난 후 36개월 만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 금쪽같은 내 새끼가 장애인이란다. 몸은 멀쩡한데 발달장애, 청천벽력같은 통보였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울먹이지만 앉았다. 주민자치활동과 장애인 부모연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도움받기만을 바라면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은 없다’. 부모도 항상 곁에 있을 수 없다. 발달장애 성인들은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인지 발달의 장애로 선택의 기회도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책에서 얻는 학습보다 몸으로 체험하는 일상의 활동들이다.

‘그래 직접 요리를 해보자’ 음식 만드는 요령을 서로 웃고 떠들면서 배운다. 남자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라 대식마왕들이 다 모였다. 우리는 삼겹살도 기본이 4키로다.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이 먹어치운다. 상추에 싸먹을 틈도 없다. 쌈장에 묻혀 어느새 폭풍흡입이다. 지난 여름 대청댐 강변에서 바람 솔솔 부는 명당자리에 앉아 구수한 삼겹살 냄새를 대청댐 흐르는 물에 흘려보냈다. 아 그 시간만큼은 우리도 우리 자식들도 그저 즐겁기만 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활동하면서 향후의 청사진도 그려보고 있다. 여기서 멈추기보다. 우리 자녀들이 도움만 받기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을 맛보게 하고 싶다. 요리를 만들어 독거노인분들께 갖다드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밥상에 마주앉은 그림을 그려본다.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도 어느 틈에 또 성장할 것이다. 자녀들은 늘 실수를 연발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은 때때로 속이 터지지만 참 아내기보다 이제 익숙해져 간다. 우리 엄마들도 그들도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기다림 그리고 기회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마들이 곁에서 대신 역할을 해준다면 그들에게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떠먹이는 밥숟가락이 언젠가 독약이 된다면? 힘들더라도 안타깝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 산을 넘지 않으면 우리아이들에게 산 너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수 없다. 그 결정은 바로 당신의 몫이다.

02

여울빛올댓아트

신탄진의 빛,
'여울빛올댓아트'

내 아이 다시, 우리 아이

깜찍한 두 공주님, 장군님 같은 아들, 김대표의 든든한 응원군이 떡 버티고 있는 자리. 그래서 더 빛이 난 여울빛올댓아트. 마을 주부들의 육아 고민을 함께 풀어가고자 한 발 떴었던 그날이후로 5-6년이 지나고 아이들도 같이 성장했다. 김대표부터도 아이 낳고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 둘째 낳고부터 공동육아 단체가 없어서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기가 어려웠고 그 결핍이 김대표와 같은 고민을 하는 엄마들과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마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저가 되었다.

김대표는 신탄진에서 5-6년 전 사회적 자본 센터를 통해서 먼저 마을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 하나가 아이를 키운다’를 책을 추천받고 공감하면서 마을활동에 특히 아이들 돌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린이 집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건 보육이지 아이의 심성이나 정서를 만져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엄마들의 숨은 재능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더 절실해진 아이들 돌봄

누군가가 앞장서서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본인이 마다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돌봄을 시작해야 할 이유는 손을 꼽을 만큼 많았다. 김대표가 나고 자란 목상동, 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마을의 아이들, 마을의 엄마들에게까지 확장되어 돌봄을 시작했다. 마을의 재능 있는 엄마들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해주면서 아이들의 돌봄이 속제로 찾아왔다. 엄마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울텟아트’는 마을의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참새방앗간처럼 드나드는 곳이 되었지만 김대표는 유익한 공간, 재밌는 공간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다. 코로나로 마을의 아이들이 갈 곳을 몰라 방황 할 때도, 피아노 학원과 학습관련 학원이 한 개 밖에 없는 마을 아이들이 활동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울텟아트는 유익한 교육의 산실 역할을 했다. 자칫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5-6학년 남자아이들도 활동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재미까지 더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물론 공동체의 일원인 선생님들이 함께 돌봄 봉사를 하고 있다. 해보자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주 1회 정도 1시-5시까지 돌봄을 시작했다. 코로나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



재능 있는 마을의 엄마들을 지역 작가로 데뷔시키다

여울빛올댓아트 여울빛은 신탄진의 옛이름 새여울에서 비롯됐다. 올댓아트라는 의미를 더해 신탄진의 문화적 가치를 올리고 그 중심에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지역의 엄마들 중에는 재능 있는 분들이 많지만 자격증도 없고 그녀들이 역량을 펼칠 장을 마련하지 못해 재능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알고 보면 그들이 실속 있는 신탄진의 자원이다.

사회 활동하면서 맺어놓은 인연의 고리들을 풀어 재능 있는 그녀들이 수업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더불어 취업까지 도와주었다. 인적자원도 풍부한 신탄진이 아직도 섬마을처럼 남아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재능 있는 엄마들을 출강시키고 상품도 만들어서 활동을 해 나갔다. 장밋빛 탄탄대로가 없듯이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출강의 기회도 없고 판매의 길이 막혀서 막막한 마음을 진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낫 놓고 있기에 우리 아이들, 우리 엄마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작가의 상품을 대리판매 해주고 작가들이 기운을 잃지 않고 재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시스템을 만들어갔다.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았다.

처음 마을 활동을 시작했던 6년 전 둘이 시작했지만 지금 10여명의 인원이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엄마들의 재능을 펼치는 장을 마련하면서 지역의 활동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처럼 마을을 아끼고 마



을을 위해 서로 의기투합하는 열기를 갖기를 바라고 우리도 에너지가 식지 않도록 서로 독려할 것이다.

공예를 전공한 덕분에 손 재능이 다부져 치매 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프로그램 진행할때는 마을 활동가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얻는다. 서로 아끼고 재능을 나누다보니 이웃사촌을 넘어 가족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아낀다. 그래서 우리 공방은 마을의 참새방앗간으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코로나로 잠시 위축 되서 활동을 못하자 먹거리를 챙겨와 같이 먹을 때 코로나 확산을 걱정하자 “우리는 식구인데 어쩌냐 같이 병실 쓰자며”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리기도 했다. 이 끈끈함이 어제 오늘 얻어진 재산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같이 아이들을 돌보고 서로 재능을 나누면서 우리는 마을 활동을 같이 하는 이웃에서 가족처럼 진화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 더불어 사는 그 진한 이름

올 사업안에는 가족공예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어서 가족으로 다이어리를 만들고 초등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자아이들이 팔짝 만들기도 했다. 20-30명의 아이들이 즐기면서 수업하는 모습은 내내 흐뭇하다. 공원에서 빈둥거리는 아이들을 모아 생산적인 활동을 그 넘어 감성을 만져주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도 훈훈하다. 왜? 우리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다.

단풍으로 목상동이 붉게 물든 예쁜 날에 공원에서 ‘목돌이’ 행사를 했다. 목상동 돌봄 이야기, 아이들이 손수건을 만들고 마을의 이웃들이 모여 유익한 가을날을 보냈다. 물론 재미는 당연히 덤이다. 신나게 웃고 떠들며 우리만의 잔치를 했다. 우리는 만나면 즐겁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나고 자란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을 뿐이다. 아니 애정이 더 뜨거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더 유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돈이 목적이 아니기에 열정 페이도 주저하지 않았다. 나 혼자 그 생각을 했다면 의미는 반감됐을 것이다. 다행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마을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남들이 소외로 고민할 때 우리는 함께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기꺼이 시간과 재능을 나누었다.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더불어 마을이 행복한 신탄진의 빛임을 자부 한다. 여울빛올댓아트 역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03

이멤버멤

내 새끼뿐만
아니고
내 집 밖 아이도
챙기고 싶다

세
엣

돌봄과 교육, 어울림

이멤리멤 ‘마니또’

평범한 주부였던 임 대표는 목상동으로 이사 와서는 향수병을 앓으며 외로웠다. 궁여지책으로 ‘맘카페’를 통해 83년생 또래 ‘주부맘’들의 모임을 결성한 후, 그중 충성과 4명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로가 학부형이자 열혈 엄마였던 이들은 의기투합했다. “우리 엄마들은 만나면 친하고 재밌잖아? 그런데 우리 애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외롭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끼리라도 놀게 해줄까?” 임 대표의 제안이었다. 이후 이들 4인은 이멤리멤 공동체를 결성했다. ‘이멤리멤’은 이 멤버 (this member) 리멤버 (remember)의 줄임말로 임 대표를 중심으로 맘카페를 통해 결성된 또래 친구들이 ‘잊지 말고 오래도록 공동체를 지켜가자’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다.

학교에 가면 재미없어요!

“학교 가면 재미없어요. 교실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이 감시하며 ‘말하지 마’라며 혼내세요!” 교육사업을 하고 있어 평소 초등학생 아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은 ‘이멤리멤’ 임영임 대표. 코로나가 터지고는 아이들이 우울해해 안타까웠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입에서 ‘학교가 재미없다’라는 말이 나오니 충격이었다. 아이들은 한 학기가 지나가도 반 친구 이름 하나 외우지 못했다. 가장 힘든 게 ‘친구랑 못 노는 것’이라 했다. 임대표는 아이들이 미쳐가기 전에 도움 줄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좋아할까. 아이답게 재밌게 놀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마니또’는 아이들이 친해지는 마술의 시간

처음 이멤리멤 멤버들이 아이와 함께 만나면 저희끼리는 서먹서먹해했다. 어떤 매개가 필요하다 느껴 고민했다. 그 매개는 바로 ‘마니또’였다. ‘마니또’는 비밀 친구라는 뜻의 에스파냐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편지나 선물, 선행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를 띄기도 한다. 젊은 엄마들의 학창 시절에 한두 번 그런 이벤트에 설레지 않은 친구는 없었다. 그런 행복하고 특별한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자고 다짐했다.

처음 시작은 막막했다. ‘과연 코로나 시대에 마니또 활동에 부모가 애를 보낼까?’ 고민 되기도 했다. 활동은 원래 5회로 예상하다 4회로 줄었다 적은 보조금으로는 제한이 있었고 비용을 고려해야 했다. 만들기 공간은 ‘로컬디자인 숲’ 사무실 공간을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었다. 만들기 작품을 정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공간에 초대해 체험을 시켰다. 완성한 작품은 호감 가는 친구와 교환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부터 어떤 친구한테 마니또 선물을 줄 것인지 고민했다. 다른 친구들을 탐색하기도 하고 옆에 앉은 친구를 관심 있게 바라봤다. 같은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협동하게 되고, 새로운 관계 맺음이 자연스럽다. ‘빠빠로 과자 만들어 친구와 교환하기’ 수업을 첫 번째로 했다. 과자에 초콜릿을 바르는 과정에 줄줄 흘리는 친구. 작업 중간에 초콜릿을 찍어 먹어 보는 친구. 깔끔하게 초콜릿을 바르는 친구. 울퉁불퉁 못생기게 바르는 친구. 아이들은 서로 비교해 보며 킥킥 웃게 된다. 완성된 과자를 서로 나눌 때는 얼굴에 웃음이 번지며 뿌듯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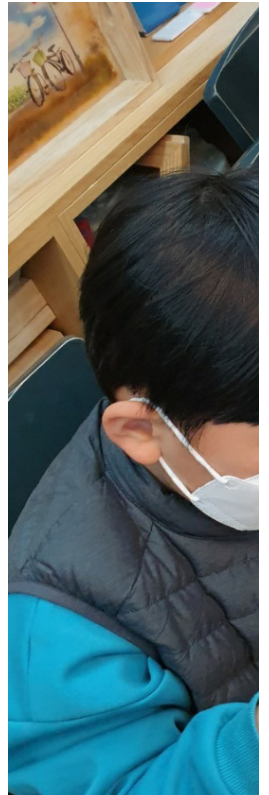
두 번째로 한 ‘슬라임 만들기’(액체 괴물) 활동을 특히 즐거워했다. 물경 물경한 감촉의 슬라임을 손으로 만지며 신기해하고 다양하게 변형되는 형태에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졌다. 오래간만에 여럿이 즐겨보는 자유스러움이었다. 만들기 작업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아이들이 답답하지 않아 보였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웃고 상대의 작품을 보며 흥미로워했다. 5월, 6월에 걸쳐 마니또 행사는 두 번 가졌다. 표정이 어둡고 조용한 한 친구가 있었다. 활동에 의욕이 없어 보여 솔직히 ‘엄마에게 끌려 왔구나’ 싶었는데 작업을 마치고는 달려와서 물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만들어요? 도자기 하면 안돼요?” 7월에 도자기 체험행사를 기획했었는데 코로나 등으로 실행 못 했다. 아이들 실망이 컸다.

수업은 이멤버멤 멤버의 자녀 9명을 기본으로 주변에 소문 듣고 참여하려는 아이들은 오게 했다. 멤버들은 아이들이 제일 만족하니 우리도 기쁘다고 했다. 한번 체험하면 “거기 언제 또 가냐”고 물어온다. 다음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비누 만들기’다. 만들기 재료를 준비해 가정에 배송해서 줌(Zoom)으로 할까 고민 중이다. 공동체 멤버들은 아이들이 행복해할 때 가장 행복하다. 사업비 1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 기쁨은 금액을 훌쩍 넘어선다. “제 꿈은 내 새끼뿐만 아니고 내 집 밖의 많은 아이들까지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아쉬운 점은 활동의 다양성을 찾아야 하는데 시대가 시대이니 제한이 커서요... 코로나 시대라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도 불안해 하세요”

7년간 정든 '또래 친구' 4인 4색 엄마

친구라는 단어는 언제나 편안한 유대감을 준다. 그 안에는 묘한 개방감이 있다. 남편 흉도 좀 보고, 시댁 흉도 좀 보고. 또래 모임 친구 중 늦게 출산한 친구들은 먼저 출산한 엄마들의 조언을 들었다.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것을 사야된다’고 말해준다. ‘어떤 분유가 아이들에게 줬을 때 잘 토한다’거나 ‘어떤 브랜드 기저귀가 발진이 심하다’라는 살아있는 정보였다. “육아에 지쳐 가끔 미치면 밤에 만났어요. 남편에겐 12시쯤 들어올게... 하고 새벽에 들어가요. 신랑은 ‘두 번 다시 가지마’ 하다가 다시 보내줘요. 놀다 들어오면 스트레스 한껏 풀어 남편에게 더 잘해주니....” 세 아이 엄마인 임 대표의 육아 필살기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자 구성원들도 학부모형으로 성장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지 고민했고 공동체 결성으로 이어졌다. 같이 활동하는 4인의 엄마들은 4인 4색을 가졌다.

가을 엄마는 한눈에 봐도 서울 아가씨, 육아 스타일도 화를 안 내는 전형적인 교양있는 엄마다. 미적 감각이 남달라 다른 멤버들의 외모를 ‘터치’해준다. 임 대표는 “저 누가 봐도 촌년이었는데, 눈썹도 이쁘게 그려주고... 그 친구를 만나서 사람 됐어요” 했다. 하진 엄마 동글동글한 얼굴만큼 성격도 동글동글하다. 보통 본인이 화가 났을 때는 표를 내 상대방도 기분 나빠지는데, 하진 엄마는 상대방이 절대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한다. 화도 동글동글하게 낸다. 이 친구로 인하여 모이면 유쾌해지고 대화에 농담, 재치가 넘쳐 모두가 ‘하이 텐션’이 된다. 서후 엄마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와서 맥주 한잔 할래?”하면 언제든 나와주는 마음씨 좋은 친구다. 신탄진에 39년 산 토박이라 지역 소소한 변화상을 가장 많이 안다. 어딜 지나가면 저긴 옛날 유치원이 있던 자리, 여긴 뭐가 있던 자리라며 설명해준다.





공동체로 행복해진 '나'

요즘은 일부러 시간을 안 만들면 사람을 못 본다. 다들 차로 이동하고 지하주 차장에 차 대고 지하 통로로 이동한다. 사람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 코로나 시대라 못 만나게 하니 더 외롭다. 임 대표가 커뮤니티를 이렇게 용기 내어 만들지 않았으면 여기 목상동에서 사람을 못 만나 힘들었을 것이다.

처음 목상동에 와서 우울감과 외로움에 맘카페 가서 '우리 친구해요'라고 말 꺼내기 쉽지 않았다. 셋째 낳고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웃기가 아주 없었는데 지금은 맘카페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은 진리다. "몇 년 전 심리상담을 받아서 검사지 테스트를 해보니 제 행복지수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내 안에 우울감을 꺼내고, 문을 활짝 여니 말이 되게 많아졌어요. 최근에는 공동체 활동으로 활력이 더 생겼어요"임 대표가 활짝 웃는다.

04

너나들이 모아자

|
수요일은
선입견이 '와르르'
무너지는 날



장애와 비장애가 만났을 때, 그들은 요리와 유튜브를 한다.

“또각또각 속속... 쟁그랑 쟁그랑”

무슨 소리일까. 지난 5월부터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마을 부엌은 수요일만 되면 맛있는 냄새와 이야기 소리로 북볏다. 매주 수요일은 공동체 ‘너나들이’의 요리 수업 날. ‘너나들이’는 대덕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선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결성했다. 이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자는 취지로 뭉쳤으며 회원은 13여 명. 모임 대표는 비장애인이다,

요리 수업에서 다 같이 피망을 썰는데 누군가 소리를 지른다. “아... 피가 나네!” 구성원들은 ‘걱정했던 일이 기어이 생겼나’ 하고 우려 섞인 마음으로 소리 나는 곳으로 얼른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는 이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었다. 사람들은 ‘피식’ 웃음을 머금기도 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젓기도 했다. 요리 수업이면 칼을 써야 하니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 다칠까 봐 걱정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재료를 잡아주고 동작을 살피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비장애인이 손을 베었다. 누구나 손을 베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장애는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다’고 했다. 옛날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남아있을 관념의 벽을 허물고 함께 섞이고 싶었다. 구성원들은 활동 소재를 요리와 유튜브 영상 만들기 두 개로 정했다.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고, 유튜브는 시대적인 트렌드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장애인들은 잘 챙겨 먹는 게 필요하고, 세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튜브의 문이 절실히 필요하다.

레시피를 보니 월남쌈, 해산물 오믈렛, 연어 누름 초밥... 가정에서 지금껏 먹어온 음식이 아닌, 색다른 향미를 경험해볼 수 있는 배려가 보인다. 요리가 완성되면 다 같이 만찬을 즐겼다. 설레는 수요일이다. 공동체 이준희 회계담당자가 요리 수업 소감을 말한다. “맛있는 요리 먹는 것도 좋지만, 요리를 통해 여럿이 모이는 자체가 좋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나누어지는 그 무언가가 항상 생겨요. 그런 관계 형성이 설레게 해요” 수요일 요리시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의 장이다. 요리는 한 매개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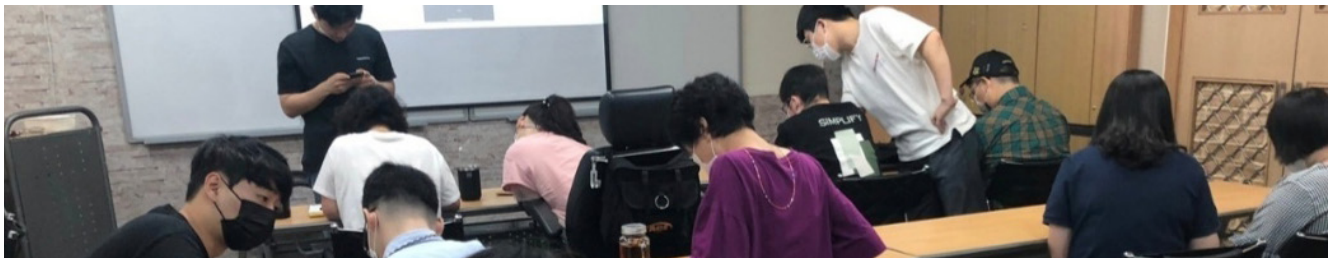
너나들이 공동체 비장애인들은 생각보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사실에 놀란다. 완벽히 하지는 못해도 천천히, 시간을 주면 그들은 다 해낸다는 것. 어찌 보면 비장애인 보다 더 숨씨가 좋기도 하다는 것. 걱정하고 하면 더 잘 한다는 것까지. 설거지하는 시간에는 한 장애인이 너무나 깔끔하게 해서 모두의 찬사를 들었다. 느려서 천천히 하게 되니 꼼꼼하고 깨끗이 마무리될 수도 있었다. “참 야무지기도 하세요”라는 칭찬이 자자했다.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장애 비장애와 관계없이 요리는 그 사람의 성향, 성격에 따라 모양과 맛이 달랐다. 덜렁덜렁하는 습관이 실수하게 하지 장애가 실수를 만들지만은 않았다.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하다... 유튜버 영상 제작

처음 만나들이는 요리 수업 8회, 유튜브 영상 수업 8회로 계획 했는데 7월부터 코로나가 심해져 잠정적으로 쉬고 있다. 요리 수업이 구성원들의 뜨거운 호응과 든든한 회식으로 환영받는 것에 비해, 유튜버 영상제작 수업은 난항을 좀 겪었다. 요리수업과 번갈아가며 유튜버 수업을 했는데 멤버들은 까다로운 영상촬영법, 편집기술 배우기를 어려워했다. 5분 분량의 영상 만들기를 시도했는데,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여겨졌다. 처음 시작 때는 자신의 영상을 만들고 유튜버에 올린다는 기대로 호기롭게 시작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많이 보는 게 유튜브인데 자신들도 유튜버가 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애인 구성원이 말했다. “유튜브 수업 들어오기 싫어요!” 제작 프로그램 등 수업 내용이 복잡해지자 다른 구성원들도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탄전을 피우기 시작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했다. 유튜버 강사는 이에 고민하다 구성원들과 의논해 실습 위주로 수업 방향을 바꾸었다. 복잡한 제작 프로그램, 이론 설명은 줄였다. 난이도를 조절하고 수업 형태를 바꾸니 구성원들의 참여도도 올라갔다. 강사는 쉽게 설명하다 누군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는 심도를 깊게 성실하게 설명해주었다. 수강자의 필요에 의해 답을 구하니 이해를 좀 더 잘하게 되었다. 비교적 영상제작 관련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준희 회계담당자는 이 과정에서 강사와 수강자 사이에서 계단 역할을 해줬다. 누구나 처음 겪는 일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

유튜버 수업은 실무 과정을 익히고 현장 촬영은 조별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영상 소재로는 일상, 요리, 여행 등이다. 주 시청 대상은 장애인들이다. 만나들이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고 ‘같은 장애를 겪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하고 자극받고 활동할 수 있는 의욕을 주고 싶다.





우리들 모두... 언제 손을 베일지 모른다

너나들이에 비장애인으로 참여한 이미정 장애 활동 지원사는 “내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다는 데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죠. 많은 일을 해 봤지만 가장 보람돼요. 3일 전에 교회 장로님과 통화했는데, 당신에게 ‘딱 맞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하셨어요”라며 “누군가 돕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한다.

‘너나들이’는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넌’. 또는 ‘그런 사이’를 말한다. 그들은 공동체의 이름을 고민하고 오랫동안 국어사전을 뒤져 이 이름을 지었다 했다. 이름 설명에서 ‘허물없이’라는 표현에서 묘한 울림이 감지된다. 그렇다. 그들은 상대의 불편함, 불 신속함, 부정확한 행동을 대하더라도 허물로 보지 말아 달라는 것일 것이다. ‘그럴 수 있지’라는 넓은 아량으로 가족, 이웃처럼 서로 대하고 함께,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이 이름에 담지 않았나 싶다. 이준희 회계담당자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고 눈에 잘 안 보이는 장애도 있다고 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며 비장애인 구성원들이 ‘이런 류의 장애도 있구나’ 느끼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비장애인도 언제 손을 베일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장애라는 불편을 겪을 줄 모른다. 장애, 비장애인, 우리 다 같이 벽을 허물고 허물없이 끌어안고 살아가야겠다.

세
엣

과
돌봄
교육,
어울림





05

다예맘

정성 들이는 만큼
피는 꽃...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 엄마들... 임신 때부터 미리 지원해야 해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돼 어린이집마다 십 퍼센트 정도는 다문화 원생이다. 이 아이들은 외모가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보이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박현희 대표는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먹거리를 잘 챙겨 먹는지 염려되고, 사회성과 언어발달도 좀 느려 걱정됐다. ‘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을까?’라며 고민 끝에 다문화 아이들이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부를 지원해, 준비된 엄마가 돼 아기를 낳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심전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주위 어린이집 신은경 원장과 강선영 교사가 모여 2019년 공동체 ‘모이자 사업’에 ‘다예맘’(다문화 예비맘을 위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에 등록했다. 2020년에는 ‘해보자 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로 2년째 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 얘기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박 대표는 우스갯소리로 ‘교사들은 안 늙고 정신연령이 낮다’고 했다. ‘놀아 봤자 거기서 거기지... 직장이 아이들이 모인 곳이니 관심사는 다 아이들이다’라며 애정을 과시했다. 그는 교사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특히 다문화 아이들의 딱한 사정이 자주 화제에 오른다고 했다.

다문화 원아는 시간이 지나면 간단한 언어는 잘 소통되는데, 깊이 있는 대화가 통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언어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이도 있지만, 5살만 돼도 다른 원생과 확연히 차이가 나 공감적 대화가 힘들어지는 다문화 원생도 있었다. 박 대표는 엄마 아빠의 언어 수준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국가에서도 이를 알고 다문화가족 대상 한글 교육을 흔히 시행하는데 그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아보였다.

또 다문화가정에 행하는 국가의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활용 못하는 가정도 많다고 생각했다. 또 그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잘 알 수 있는 기회는 희박한 것 같다고도 했다.

‘다문화 맘’ 지원사업 3년 차... “우리나라 좋은 나라!”



공동체사업 첫해인 2019년에 다예맘은 다문화 지원센터 소개로 다문화 임산부 13명을 모집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온 ‘예비 출산맘’이었다. 대덕구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임산부들의 태교를 위해 미니 하프 연주하기, 가요 배우기 등의 교육을 5회 시행했다. 배냇저고리, 턱받이, 면 손수건 등의 출산준비물 꾸러미를 만들어 그들에게 전달하며 사용법 등도 안내했다. 첫해 지원받은 보조금 1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한국 문화도 전달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못했다. 구성원 사비가 더 들어갔던 것 같다.

2020년에는 상위 ‘해보자 사업’에 선정됐다. 공동체 경험 이 생기고 자신감도 있었다. 보조금도 500만원으로 올라 여유도 좀 있어 졌다. 이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출산문화를 전하고 싶었다. 국·내외 출산맘을 위한 이유식 만들기 등을 기획했다. 공동체지원센터 공유부엌에서 ‘다문화 맘’ 13명을 모아 6회로 수업을 가졌다. 소고기 죽, 버섯 죽, 닭죽, 전복죽 끓이기 실습수업이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요리 수업에서 한 ‘출산 맘’이 서툰 우리말을 뱉으며 기뻐했다. 출산용품 사용법조차 몰라 난처했는데 친절히 안내해주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식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했다. 다문화 원생도 “엄마 음식 평소에는 잘 안 먹는데 이제는 잘 먹게 된다” 고도 말해 보람을 느꼈다.

박 대표는 “다문화가정 남편들은 대개, 결혼을 늦게 한 경우가 많아 아이 나이에 비해 연세가 많죠. 그래서 육아에 생소해요. 다예맘이 챙겨주니 참 고마워하죠”라며 교사들

끼리 그들에게 우리 문화도 전달해주고 한국인의 정을 보여주자고 자주 얘기한다고 했다. 현재 박 대표가 운영하는 중원 어린이집은 원생 43명 중 5명이 다문화 원생이다. 올해는 이 어린이집에서 요리 수업을 했다. 여건상 불을 이용하지 않는 메뉴로 중원 어린이집에 원생을 중심으로 그 어머니 할머니 등이 모여 수업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교육이 힘들어져 요리 재료를 가정에서 보내주고 아이와 만들어 먹게 하고 사진을 받아 보고 있다.

다문화 엄마들은 ‘한국인이 제일 부러웠던 게 아기에게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이었다. 나도 그걸 만들어 아기에게 먹이고 싶었다’라며 반긴다. 구성원 강선영 교사는 ‘다문화 맘이 수업에서 그룹으로 요리하다 보니, 서로 친해져 나중에는 서로 육아 정보도 나누며 절친이 되더라. 먼 나라에서 와, 외롭지 않게 여어주게 돼 좋다. 무거운 재료와 조리기구 나르며 준비할 때는 힘들지만 보람찬 하루가 된다’고 했다. 그들에게 아이를 같이 키우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도 했다.



부족한 엄마의 손길을 대신하는 '다예맘'이 될래요

요리 수업이 인기를 끌며 아이들은 쿠키를 만들고 싶다는 데 예산이 부족해 고민이다. '다예맘'은 다음에는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먹거리를 선정해 수업하고 싶다. 어르신, 엄마, 아이 3세대가 공유할 음식도 만들어 보고 싶다. 한국 전통 음식인 고추장, 메실 청, 막걸리 식초 만들기도 알려주고 싶다. 아이디어도 많고 의욕도 차있다.

'다예맘'은 현재 '다예맘 푸드스토리'라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올려놓았다. 어린이집의 비어있는 공간에서 간식도 공급하고 학습 도우미를 해주는 사업이다.

“초등돌봄 간식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완제품 류가 주예요. 단가가 싸지도 않죠. 그런데 아이들은 질려서 잘 먹지도 않아요. 직장 엄마들은 그런 돌봄이 안타깝죠. 바쁜 엄마들을 대신해 협동조합이 섬세한 엄마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당차게 말하는 박 대표의 의지가 단단해 보였다. 어느 사업이나 힘들 때라 박 대표의 어린이집도 코로나로 인해 원생 수가 줄어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는다. 또 주민자치회의 소통과 나눔 분과장을 맡으며 지역에 대한 봉사의 끈도 놓지 않는 진정한 지역사회의 리더다.

박 대표는 어려운 다문화 아이들 얘기를 할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맺힐 만큼 따듯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인터뷰 끝무렵 그녀는 속에 고였던 한마디를 남겼다. “아이들은 정성을 쏟는 만큼 꽃을 피워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정책은 많은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잘 없어서 안타까워요!”



06

나우리

마을손녀 사랑의 밥상



박희숙- 뭐랄까 그녀의 첫인상은 소녀같이 순수한 모습이었다. 첫눈에 봐도 배려와 겸손이 몸에 배어 있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인터뷰 사진을 먼저 찍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같이 산책을 좀 하기로 했다. 송촌동에서 법동으로 넘어오는 길을 같이 걸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직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공동체지원을 통해 새롭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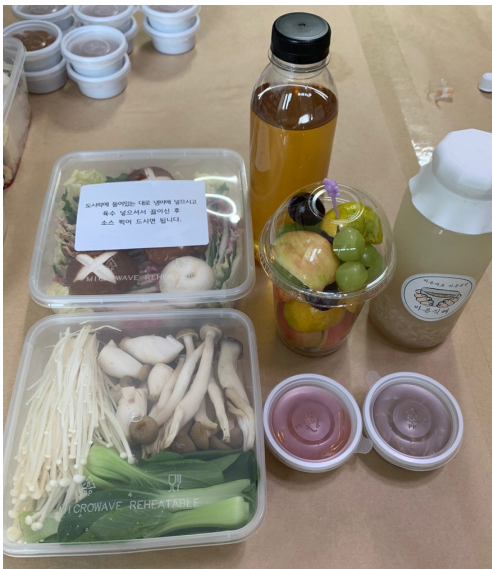


**공동체 명이
“나우리”
라고요?**

**뭔가 느낌이
오는데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많이 접촉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자기사랑을 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배워가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들은 또래집단에서는 소통과 교류가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어르신들과 소통을 하거나 친밀한 교류의 시간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업을 지원하여서 지역사회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1대 1로 매칭해서 만남을 갖는 것은 어떨까? 한 번 구상해 보았다.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배워서 이웃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함께 도시락을 만들고 음식을 먹으면서 소통을 해보는 것은 참 멋진 일일 것 같았다.

활동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시죠.



마음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2021년도 사업으로 여자 중학생 6명과 ‘마을 손녀사랑의 밥상’을 계획하였고 선정되어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활동은 지역 어르신 6명을 아동들과 1:1로 매칭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도시락을 만들어서 대접에 드리는 활동이다. 역시 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하였다.

참여 중학생은 강0은, 박0리, 설0우, 전0이, 이0림, 정0예 모두 6명이고, 참여 어르신은 가0자, 송0숙, 임0숙, 황0옥, 조0순, 남0예 이시다. 도시락을 받은 분의 어떤 반응이 기대가 되는가 물어보았더니 고마워한다, 기쁜 마음이면 좋겠다, 라고 아름다운 감동과 긍정의 언어를 구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예쁘게 잘 만들었다, 넌 예뻐, 아이구, 착하다, 안녕! 넌 괜 찮은 아이야 등 자긍심이 향상된 표현들이 대부분이었다. 역시 마을에서는 모여야 한다. 올해 백신도 모두 다 맞기를 바라고 규제가 풀리면서 내년에는 모두 마스크를 벗으며 만나기를 희망한다.

“코로나여 안녕. 너도 잘 가기 바래. 우리는 마을을 지킬게.”

올해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게 올해 사업은 작년 사업을 바탕으로 연계된 느낌이 강하니까 작년 2020년도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괜찮죠?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인데 부모의 이혼 후 아기 때부터 키워준 고모님에게 자신이 만든 케이크를 선물하였다. “고개를 한참 올려다보아야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커 버린 조카에게 언제 이렇게 컸냐고 하시며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도 나도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아무 편견 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며 아이들이 한 조각 행복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겠다. 한 조각 작은 사랑의 나눔이 혹시 그 아이가 살아갈 힘의 씨앗이 된다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눔의 기적이다.

앞으로 비전과 희망을 말해 주세요.

마을 사업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기회가 되도록 진행했다. 자신이 살고있는 가정과 주변 환경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현재까지는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 사회복지사인 나의 일터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지역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보이겠다. 노년에는 배우고 취득한 보드게임 자격증으로 마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가능하다면 공동체 센터를 통해 마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호호호.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왜 활동에 참여하시는 가요?

나는 구례에서 태어났는데 8남매 중 다섯째로 부모님의 관심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시골 교회에서 주산을 배웠고 찬양대회에도 나갔다. 지금 우리 공동체센터가 추구하는 아이는 마을의 어른들이 함께 키운다는 취지와도 어울린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받은 사랑이 늘 기억 속에 있었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한 아이를 잘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겪었다.

일하는 곳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던 중 활동에 꼭 필요한 진행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꿀 같은 정보를 얻었다. 오로지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원하였고 다행히 심사에 선정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아이들은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며 내가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인터뷰를 끝내며...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지원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철학으로 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진행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각기 다른 할머니 세대 6분과 아이들의 만남을 요리를 징검다리로 해서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는 소중한 기회인 것이다. 이런 모임을 한 번 경험하면 아이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그 경험을 체화시킬 수 있다. 할머니들이 평생을 살면서 마음 깊은 곳에 쌓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등을 배우게 된다면 분명 아이들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아이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도록 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계량할 수 없는 결과물이지만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센터를 통해 마을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마음 밭에 보석이 뿌려진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제한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이들을 따라하고 sns를 하며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 아이들의 발걸음의 방향을 분명 달라지게 할 것이다. 박희숙님과 오미향님이 그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에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세
엣

돌봄과
교육,
어울림

07

요리홀릭

꼬마셰프
‘냉장고를
부탁해’



고대제프 '냉장고를 부탁해' 이름부터 팡팡 튀는 프로젝트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가 이어졌지만 마스크 위로 반짝이고 총명한 눈빛이 초롱초롱한 아가씨는 몇 마디 나누지 않았어도 아주 예의 바르고 반듯한 성품을 감지할 수 있었다.

발랄한 프로젝트 이름도 혹시 이 아가씨가 작명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반듯하고 순수한 아가씨의 이름은 유은영이다. 이번에는 유은영의 젊은 시선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를 따라가 보려 한다. 어차피 각 공동체의 기록이 다양할수록 사고의 스펙트럼이 확장될 수 있고 공동체의 다양성이 역동성을 지닐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요리를 통한 소통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격리되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학교에서도 방과 후 여러 활동들이 많이 축소되었다. 아이들의 서로 간 소통의 기회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또래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를 활성화 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키고자 ‘꼬마셰프 냉장고를 부탁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열어주며 더 나아가 요리를 통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활동과정의 에피소드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을 공동체간의 모임을 요리 교실을 통해 실천 하려고 하였다. 우리는 호기롭게 13번의 클래스와 다양한 메뉴를 시도하였다. 요리교실이 이름 그대로 아이들이 요리에 홀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문어유부초밥’은 소시지를 문어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치즈, 검은깨로 눈과 입을 만든 후 유부초밥 위에 올려 김으로 감싸서 만든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아주 많이 작용하도록 디자인 한 것이다.

‘새둥지 베이글 샌드위치’는 이름이 아주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가? 방법은 베이글 안에 딸기잼과 머스타드 소스를 바른 후 체다치즈, 베이컨, 상추, 계란을 넣은 후 꼬지로 쌓아놓은 샌드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메추리알에 당근과 검은깨로 새를 만든 후 새싹채소를 꾸며 둥지처럼 장식하여 만든다.

‘후르츠 파르페’는 아이들에게 다소 예술성을 실험하게 하는 과정이 되었다. 긴 컵 안에 요거트를 먼저 바닥에 넉넉하게 붓는다. 시리얼, 바나나, 키위, 수박, 마쉬멜로, 초코시럽, 과자를 올려 만든다. 마치 모래시계의 층처럼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개성이 나타나고 층층이 쌓고 담아놓으면서 몹시 즐거워했다.

프로그램 내에서 아주 맛있고 예쁘게 보이는 음식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공동체 활동 중 아이들이 오래오 컵케이크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다. 모든 아이들이 휘핑크림과 설탕을 사용하여 수제 생크림을 만들어 ‘잘 주머니’에 넣는 과정을 처음 경험해보았다. 미숙하지만 서로 조물조물 생크림을 예쁘게 장식하면서 웃고 서로 파티같이 즐거워했다. 코로나의 우울함을 살짝 날려버렸다.

오색컵밥 만들기 시간에는 아동들이 싫어하는 채소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었다. 외래강사 선생님께서 색 조합을 예쁘게 준비해 오셨는데 아이들이 아름다운 채소의 색깔에 모두 반했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동들도 컵 밥의 색 조합에 반하여 맛있어 보이도록 담아내고 누가 더 예쁘게 보이게 담았나 서로 품평도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보람 그리고 어려움?

요리홀릭 친구들이 공동체에서 배운 레시피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부모님과 소통하며 주말에 음식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뿌듯하였다. 그리고 한 아이는 요리를 너무 좋아하여 매 주말마다 부모님께 요리 교실을 부탁하여 맛벌이하는 부모님께서 아동의 욕구를 매번 채워주기 힘들어하셨다고 한다.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만든 음식을 현장에서 서로 같이 나눠 먹고 이야기 하지 못한 점이 어려웠다. 필연적으로 아이들에게 제한된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실행하지 못할 때는 상상의 게임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만든 음식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소개하고 약간의 심층적인 깊이를 가질 수 있는 의사소통을 진행한 것이 기억으로 남는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세태가 너무나 익숙해졌다.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부모님과 독립해서 멀리 떨어져 나가 살면서 자연스레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신의 기질을 타고난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 형제, 친구, 사회 등 점점 더 넓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타고난 기질과 외부 자극들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 나간다. 아동들의 삶의 방향성은 무한대로 달라질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세상이 주는 영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번 안 되는 소박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음식 만들기를 매개로 해서 만났지만 나는 사회의 ‘책임’에 대해 많이 느꼈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따라, 나이에 따라, 기질에 따라 그 변화를 수용하고 울타리를 점점 넓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자신의 책임을 조금씩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게 잠시 맡겨진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덕구 다 함께 돌봄 센터의 교사이면서 한편으로 ‘요리홀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만났지만, 누군가는 식당 주인으로 누군가는 배달원, 지나가는 행인, 학원 선생님, 친척, 부모 등 다양한 형태로 아이를 만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그 아이의 인생에 잠깐 지나쳐 가는 시간 일지라도, 만나는 아이들에게 사회의 이면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역할을 하는 네가 ‘책임’을 갖고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의 비전과 희망에 대해서 한 마디

Live in the present and make it beautiful !

현대는 특히 개인주의로 이웃 간 소통이 거의 단절된 것이 특징이다. 학교, 회사 외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날 기회가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고 사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늘상 착용하고 있어서 서로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다.

직접적인 이웃 간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어 서로를 혐오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현재에 음식만들기 수업이 직접적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기획이 되었다.

유은영씨가 서로의 심장을 이어주는 따뜻한 활동가가 되기를 기대하며 공동체 프로젝트에서 음식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미래에 음식에 대한 다양성을 획득하는 한편, 따뜻함과 재미라는 추억을 하나 가득 얻어갔을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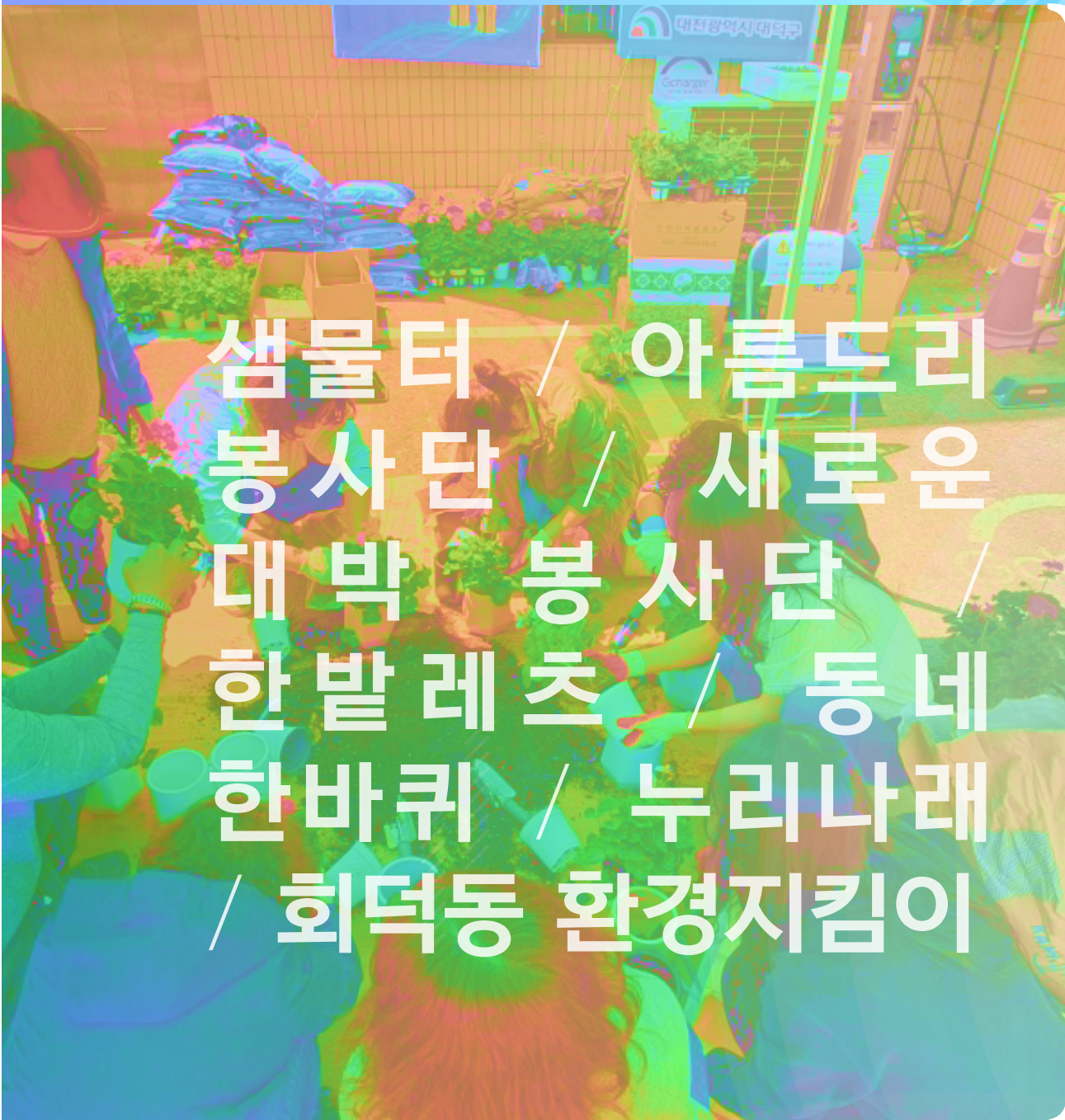
공동체센터를 통하여 여러 세대가 과거 이웃 간 소통의 향수를 기억하여 아동, 가족, 이웃, 마을의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전 세대가 만들어 가고 싶은 소통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비전과 희망이라고 말하는 유은영씨가 서로의 심장을 이어주는 따뜻한 활동가가 되기를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친다.



네
엣

환경, 생태, 그리고 기후





샘물터 / 아름드리
봉사단 / 새로운
대박 봉사단 /
한밭레츠 / 동네
한바퀴 / 누리나래
/ 회덕동 환경지킴이

01

샘물터

| 싱크홀은
위험해,
지하수
수위 측정으로
대비하자!



지하수위를 측정하면 땅 꺼짐을 예방할 수 있다!

몇 해 전 대전 대덕구 법동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빈번한 통행이 있는 인도에 깊이 1.5m 지름 2m의 크기였다. 인근에선 지반이 함몰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지반 함몰과 싱크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주민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면 몹시 불안하다.

‘샘물터’ 공동체는 사용이 쉽고 간편한 지하수위 측정기를 개발해 이런 싱크홀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지하수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결성됐다. 3명의 구성원을 두고 있는 이 공동체의 시원은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업 ‘주식회사 샘물터로 스타트업 기업’이다.

※싱크홀 -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어 생기는 웅덩이



“저희 주식회사 샘물터 대표님은 따로 계시고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에요... 제가 대표가 된 것은 이런 작은 공동체 사업부터 시작해 천천히 역량을 키워보자고 권하셔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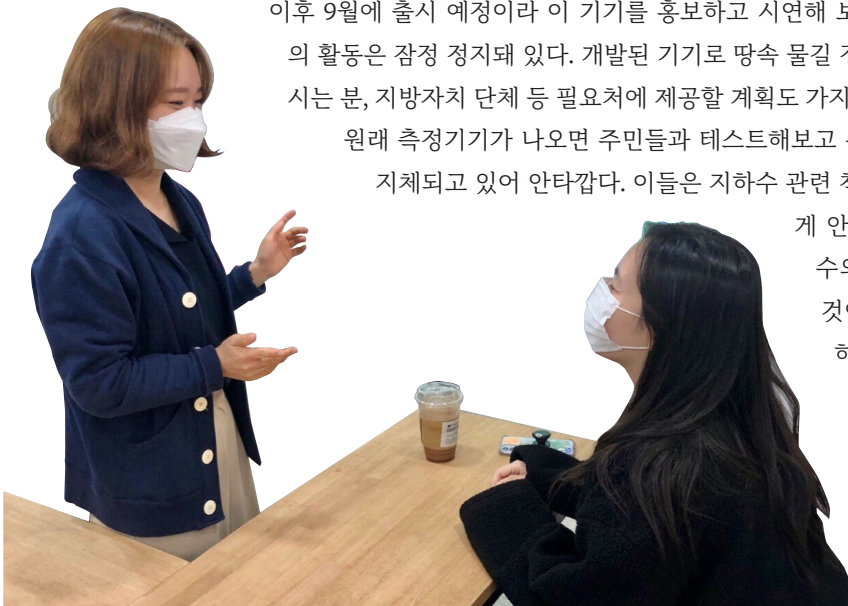
인터뷰에 나온 예보연 대표는 이십 대 중반의 풋풋함을 지닌 진취적인 여성 리더였다. 모든 지하에는 물이 흐르는데 그 양은 차이가 난다. 그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뽑아 쓰면 물이 있던 곳에 빈 공간이 생겨 지반이 무너지는 싱크홀 사고가 난다. 샘물터 공동체는 그런 위험성을 주민에게 알리고 계측 기기를 활용하여 지하수위를 측정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십 대 여성이 난해한 용어와 지하수위 측정이라는 어려운 공법을 꺾기에는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한다. 구성원은 예 대표와 주식회사 샘물터 대표, 다른 여성 직원 1명이다.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공동체라 신선하며 그 추구하는 사업도 다른 공동체에 비해 조금은 생소하고 전문적으로 보인다.

기존의 레이더 기기로 지하수 수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조금 불편하고 전문가들만 하는 작업이며 기기가 비싸단다. 그런데 (주)샘물터에서 개발한 추측 기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큰 이점이다. 샘물터의 자동지하 수위 측정기기는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출신인 (주)샘물터 대표가 개발했다. 올 3월에 기기가 제작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수지도출에서 문제점이 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연구 단계에 있다.

이후 9월에 출시 예정이라 이 기기를 홍보하고 시연해 보려던 샘물터 공동체의 활동은 잠정 정지돼 있다. 개발된 기기로 땅속 물길 정보를 파악해 농업하는 분, 지방자치 단체 등 필요처에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원래 측정기기가 나오면 주민들과 테스트해보고 분석할 예정이었는데 지체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들은 지하수 관련 책자도 제작해 주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하수의 다양한 정보와 이것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고 싶었다고 했다.



무엇을 하던 경험으로 진화된다

예 대표는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나라 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행 중인 방문 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를 1년여 지내다 귀국했다. 이후 우연히 이 기기개발 회사 (주)샘물터에 입사했다. 회사의 가족적인 분위기와 대표의 훌륭한 인품에 시간이 갈수록 애사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근무 형태가 자유롭고 업무 분위기가 좋다. 의사결정도 진보적인 형태라 보기 드문 좋은 직장이라 생각한다.

예 대표는 대덕구 전체에 있는 불연공 방치공의 상태를 파악해 봤는데 국가 등 공유지에 있는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것은 관리가 안 되거나 방치되어 있어서 연락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기기개발이 늦어져 모든 일이 난관에 빠지고 있다. 예 대표는 공동체 적응기를 풀어나갔다.

“모든 게 처음이죠. 그런 만큼, 리스크는 있기 마련이죠...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도리어 구성원들끼리 전우애가 불끈불끈 생겨나고 더욱 뭉쳐지기도 해요”

공동체 보조금 운용에는 고민이 많다. 지원센터가 제시하는 요건에 맞춰서 집행해야 한다. 원래는 기기를 (주)샘물터로부터 샘물터 공동체가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했다. 그런데 공동체 규정상 (주)샘물터는 관련 업체라서 구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기부를 받는 형태로 받아서 공동체에서 테스트해 볼 생각이다. 지하수 관련 도서도 구입해 자료를 수집하고 광고 쪽지도 만들고 있다.

한번은 충남 공주에서 회의 후 회식으로 칼국수를 먹고 회계 공동체 보조금 서류에 영수증을 첨부하려고 보니 메뉴까지 다 나오는 영수증 서식을 첨부해야 했다. 식당에 전화해 메뉴가 다 나오는 영수증 서식을 요청하니 그런 서식은 없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손수 컴퓨터로 영수증 서식을 만들어 공주까지 가져가서 사인을 받아 왔다. 까다롭긴 하더라고 했다.

‘결재가 다가 아니구나. 보조금 쓰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그 경험으로 이제 확실히 영수증 첨부요건을 알게 됐다. 경험이 중요하다. 뭐든지 호락호락 한 게 없다. 20대 후반인 예 대표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다. 애로점에 대해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회계 업무 설명차 추가 교육을 해 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무산되어 아쉽다.



도전하는 젊은 공동체

누군가는 요즘 20대로서 직장 구하기가 쉽다고도, 또 어렵다고도 말한다. 자기 기준에 따라 다르다. 예 대표는 자신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부딪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공동체 활동은 새로 시작하고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는 도전했다. 그런 새롭고 창조적이지만 어려운 일을 거부하지 않았다. 예 대표도 사회 초년병이고 그 회사도 공동체도 새내기다.

“사무실을 대전수자원공사 본사 건물의 작은 공간을 대여해 쓰고 있어요. 불청객이 돼서 사글세 사는 느낌이에요. 사업이 잘 돼서 넓은 곳으로 이사 가면 싶어요” 예 대표는 일단 공동체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본분이라는 것을 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조금 낯설긴 하지만 뭘 하던 간에 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하고 살죠. 항상, 괜찮다고, 긍정적 마인드로 임하고 있어요.”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도 회사 내에서도 나이 많은 구성원이 나이 적은 구성원에게 항상 존대어를 쓴다. 이름 뒤에 ‘님’자를 붙혀 “누구 님”이라 부르며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예 대표는 이런 조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름을 과시했다.

예 대표는 지난해 워킹홀리데이로 뉴질랜드에 1년여 살다 왔다. 누구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환상이 있다. 여유롭고 자유로운 뭔가가 여행지에는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예 대표가 여행지에서 느낀 것은 ‘이곳 또한 또 다른 현실일 뿐이구나’였다.

여행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녀온 사람과 안 다녀온 사람은 다를 것이다. 안 갔으면 계속 환상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가 얻은 건 ‘나 어디에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떠났던 여행의 소득이란다. 예 대표는 여행에서 축적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도전했고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다. 아무튼 ‘샘물터’는 현실감을 가진 낙천적인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다.

젊은 활동가들의 앞날에 건승이 따를 지어다!

※방치공-지하수 개발이 실패되거나 사용이 종료됨에도 이를 되 매움하지 않았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상태인데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수로 파이프).

네
옛

환경,
생태
그리
기후

02

아름드리
봉사단

길 따라
나무 따라
생태 놀이터



너는 이름이 뭐니? 꽃과 나무들에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생태백신 봉사 공동체.
2019년에 <아름드리 봉사단>을 발족했다. ‘아름드리’란 둘레가 큰 나무를 뜻한다. 내가 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무수한 조경수가 심어져 있다. 크고 작은 나무들, 갖가지 화려한 꽃들이 심어진 화단. 눈길은 화단에 멈추었지만 그 나무의 고향은 어디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걸만 사랑하고 있었다. 궁금증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나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다는 우회적인 마음의 표현이었다.

아파트 주변을 빈틈없이 채운 형형색색 나무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황홀한 변신을 위해 소리 없이 준비 중이다. 어느 날 문득 새 옷으로 단장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할테지. 계절의 변화에도 묵묵히 봉사의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가을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벌써 오색의 용단을 걷는 듯 포근하기만 하다.

**예쁘다고?
멋지다고?
그럼
내 이름
알아?**

단지를 돌면서 아이가 쓴 이름표를 나뭇가지에 하나하나 걸어줄 때 나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 팔을 활짝 열고 품속으로 받아들었다. 아이들이 이름표를 걸어주며 ‘단풍나무야 안녕’ 살구나무에게도 ‘살구나무야 안녕’ 나무들은 서로 손 내밀며 아이들의 손을 어루만져준다. 이미 친구가 되었다.

이름표를 달아주고 화단을 지날 때 키 작은 꽃들을 보면서 “선생님 이 아이 이름은 뭐예요?” 선생님은 ‘아 그건 채송화야’ 한 발짝 떨어진 꽃을 보며 “저 아이 이름은요?” “아 그건 봉숭아꽃이네” “봉숭아는 꽃잎을 따서 손톱에 발강게 물도 들일 수 있어”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쫓긋 세우고 들으며 한발 짝 더 친해졌다.



이름을 알면 더 예뻐보인다



아이들은 나무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꽃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자신들이 이름을 걸어 준 나무 곁을 지날 때면, 손으로 가리키며 반갑게 인사를 하고 좋아 했다. 그렇게 한 단지 이름걸기 작업이 끝나면, 조금 떨어진 다른 아파트 단지로 넘어가 이름표를 달아주었다. 바람과 비를 맞으며 사철 서있는 나무의 이름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금이 간다. 떨어질 때마다 부모와 아이들은 새로 보수 작업을 하여 다시 새 원목에 정성스럽게 이름을 써서 달아주곤 한다. 봉사 활동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고, 이름표 달기 현장을 보면서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몇몇의 부모와 아이들로 구성된 회원이 지금은 무려 70여명의 회원 수로 늘어났다.

나무이름표 달기 릴레이가 펼쳐져 제각각 아파트단지마다 무수히 심어진 나무에 이름표가 걸린다면? 상상만 해도 즐겁다. “그 열매 빨간 나무 있잖아, 초록 잎사귀 말이야. 크리스마스 트리 닮은 나무 이름이 뭐더라?” “아 그건 남천이야 크리스마스 트리 처럼 생겼지?” 주고받는 말속에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는 듯하다. 이름을 알면 더 예뻐 보인다.

아름드리 봉사단은 아름다운 봉사단이다.



03

새로운
대박 봉사단

쓰레기로
몸살 앓는
지구를 위한
생활 실천가들



커피숍 공화국, 산처럼 쌓이는 1회 용 컵

커피숍 공화국, 한 집 걸러 한 집이 커피점이다. 1회 용 컵들도 커피점마다 길거리마다 영화관마다 1회용 컵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쉽게 버려지는 컵들을 보면서 “아 큰일이다”라고 한숨만 쉬지 그 다음은 또 어찌 되겠지라며 일상으로 돌아간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대박 봉사단’이 올해 공동체 해보자 팀으로 현실적 대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버려지는 1회 용 페플라스틱 컵을 수거해 주민들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다육이 화분을 만들어 주었다. 화분의 이름도 생긴 모양처럼 다채롭다. 못난이, 사랑이, 행복이, 키다리... 심어진 화분에는 주민이 손수 이름표도 달아준다. 단순히 컵의 재활용보다 다육이 화분으로 재탄생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 재미까지 더하니 즐거운 재활용이 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도 20여 명. 행사 때마다 출석률이 좋다. 재밌으니까... 봉사단도 즐거워하고 주민들도 덩달아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준다.

환경문제, 걱정이 아닌 무조건 실행부터

커피 공화국 사람들인 우리들, 아메리카노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마시고 난 다음의 컵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여름에 헌혈하면 부채를 나눠 주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들고 가지 않는다. 결국 감사 인사로 받은 그 부채는 바로 쓰레기가 된다. 좋은 의도로 주고받은 선물들도 쓰이지 않거나 1회 성으로 수명이 한정되어 이 세상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대박 봉사단 구성원들은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이 산처럼 쌓이는 세태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일어섰다. 카페에서 쓰고 난 1회 용 컵을 거둬들이고 길에서 줍기도 했다. 우리는 이 컵들을 깨끗이 세척해 다육이를 심기로 했다. 구성원들이 심는 것이 아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시민이 들러 직접 이 화분을 이용해 다육이를 심어보고 완성된 화분에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스스로 하면 더 만족하고 행복하게 실행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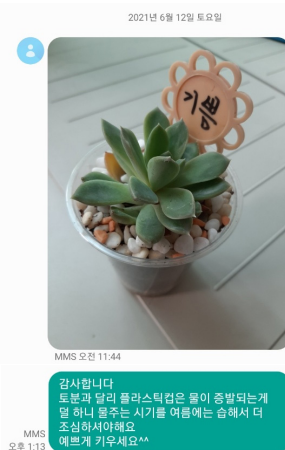
‘못난이, 사랑이, 행복이, 키다리’ 우린 다육이 화분 이름이에요



화분을 직접 만들어 봐야 그 가치를 안다는 의도다. 만든 그 소중함은 다르다. 화분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그들만의 특별한 철학이며 절차다. “진돗개에게 진돗개라 부르지 않잖아요, 화분도 그 만의 이름을 지어줘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키울거라 믿어요” 다육이가 심어진 화분은 다양한 이름으로 작명돼 주인이 된 그들의 손에 들려줘 분양된다. 못난이, 사랑이, 행복이, 키다리 ...이름도 가지가지 사연을 품었다. 어떤 이름을 지을까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붙여놓은 이름표를 보고 활짝 웃기도 한다. 사람들의 소소한 움직임들이 다시 행사장의 아기자기한 즐거움이다. 화분을 들려주는 손에는 전단지도 같이 쥐여 준다. 전단지 안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자’라는 문구가 실려 있다.

처음 행사 장소는 대박 봉사단 회원의 가게 앞이었다. 우선 거리 두기 때문에 ‘아는 집’부터 하자는 취지였다. 피해를 주면 안 되서 우리 회원 가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행사장에는 화분을 심을 작업용 테이블을 놓고, 컵에 물구멍 뚫는 작업도 했다. ‘작은 실천이 좋은 마을을 만듭니다’라는 현수막도 걸었다. 주민들은 오며 가며 쳐다보다 다가와 줄을 섰다. 화분 자체가 짐이 될 수도 있어서 손에 뭔가 들고 있으면 가방에 넣어 가라고 시장바구니까지 준비했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만 오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행사가 끝나도 ‘언제 또 하나’ ‘두 셋트로 하고 싶은데 더 가져갈 수 없나’ ‘우리 가게 앞에서 행사하면 안 되나’ 등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다.

대박 봉사단의 페플라스틱 다육화분 만들기 행사는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씨가 중요하다. 너무 더워도 행사가 어렵고 비가와도 안돼 미리 날씨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했다. 어떤 사람은 “화분이 플라스틱 컵이니 싸구려 티나... 좀 더 예쁜 화분에 옮겨놓고 싶어요”라고 했다. 하지만 사용한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하자는 취지를 살려야 하니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그대로 집에 두고 봐야 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은 크기도 각각 다르다, 플라스틱 컵이 높고 크면 넘어지지 않게 나무 받침대까지 예쁘게 만들어 함께 주었다. 환경을 위한 우리의 서비스는 마무리까지 훈훈했다. 다육이는 일단 심어놓으면 웬만하면 잘 안 죽고 5년은 산다.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생명력이 약해진다. 다육을 화분을 나눠주면서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은 코로나 거리 두기 문제로 연락처와 주소를 남긴다. 대박 봉사단은 화분을 가져간 시민에게 경과도 점검해 본다. 사후 서비스까지 챙겼다. “다육이가 왜 그런지 시들시들해요. 어떻게 하죠?” “네 에... 만들어 가신 화분은 토기가 아니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을 좀 적게 줘야 해요...” 라고 안내한다.



어떤 분은 다육이 키우는 과정을 SNS에 주기적으로 올리며 소식을 전해 오기도 했다. 구성원들은 누군가에게 갔을 때 그 화분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마다하고 즐겁게 다육이 화분을 나눌 수 있었다.

실천하는 용기와 가치, 우리도 동참할 때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행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은데 다육이를 많이 구매해 놓고 있어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 구성원들은 걱정이다. “두 달째 행사를 못 하니... 다육이는 생물이라 제때에 물주고 햇볕도 가려줘야 하는데. 일이 많아요. 다육이를 밖에다 두면 지나던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기도 해요. 어쩔 땐 이 사업을 벌인 것이 후회되기도 해요. 공동체 보조금 회계서류에 치이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요” 구성원들은 다육이 화분 만들기 재료를 패키지로 담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로 전달할까 생각 중이다. 대박 봉사단이 이런 작업을 해오면서 힘든 점도 토로했다. “아무리 캠페인 전단지들 주고 1회용품 사용 절제를 설명해도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기후 변화의 직접적 피해자가 내가 된다는 각성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대박 봉사단은 20명의 구성원으로 인원이 많지만, 다들 열의를 가져 행사 때마다 출석률이 높다. 조직은 탄탄하게 갖춰져 일할 때는 능률이 오른다. 올해 공동체 ‘해보자’ 팀으로 선정돼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다육이, 배양토, 각종 비품 구입비 등으로 쓰여졌다. 대박봉 사단 구성원들은 마지막으로 꼭 시정됐으며 한다면 의견을 주었다. “음식쓰레기 관련 현수막을 제작하면 어디 지원사업이라고 꼭 표시해야 되요. 그러면 한번 쓰고 못 써요. 해마다 다른 지원사업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결국 또 ‘한 번 쓰고 말 현수막 쓰레기’를 만드는 거죠. 행정에서 그런 불합리는 개선해줘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사비로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지원 사업명을 비워놓고 해마다 종이로 바꿔 붙이면 계속 쓸 수 있죠. 뭐든 오래 쓸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의미를 배가 시키는거죠. 그게 우리 사업인데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인식하면 개선점을 고민해 본다. 하지만 고민에서 그치는 사람이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접 개선책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다. 이 둘은 작지만 미세한 차이를 만든다. 미래의 환경을 위해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작은 실천가들의 행보에 감사의 박수를! 더불어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며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첫 발을 떼자.



네
엣

환경,
생태
그리고
기후

04

한발레츠

탄소중독의
삶에서 벗어나
탄소순환사회로
가자



대덕기후화폐를 고안한 오민우 멸종 저항활동가

기후화폐는 지역통화제도를 만든 한발레츠가 지난 21년간 쌓아 온 기반에서 출발하였다. 기후화폐는 기존의 지구를 파괴하는데 일조한 성장경제 개념과 반대쪽에 서있는 대안경제로서 화폐이다. 환경을 위한 대안화폐로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실천은 지구환경을 위한 기후화폐인 '그루'가 생성된다. 그루는 나무를 세는 단위를 차용했는데 채식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환경관련 책 읽기 등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그루로 기후화폐사업단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 페스티벌 등에 참여하거나 제휴된 사회경제적 조직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기후품앗이'에서 만든 채식음식과 업사이클한 제품을 살 수도 있다.

기후학교는 기후교육을 하는데, 기후화폐 이론, 시민정치 행동, 기후위기에 대한 심리적 대처, 채식, 농부가 바라본 기후위기 등으로 짜여있다. 기후 페스티벌은 기후 품앗이로 만든 채식음식과 제품을 나누고 공연을 열 예정이다. 기후화폐는 기후위기를 위해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경제로 가는 발걸음이다.

지구를 데우는 탄소경제는 그만!
"그루"를 키우는 즐거운 실천은 쑥쑥단 카임으로~

지구를 친환경게 만드는 나무"그루"를 키우는
대안경제<기후화폐실험>, 마을에서 함께 만들어가요!
기후위기 실천단 <쑥쑥단 설명회> 9월 3일 7시 줌온라인

쑥쑥단 모여라

기후위기대응활동신천단

가정용하기, 직장용하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채식하기

기후위기대응활동을 통장으로 기록해 그루를 적립.
적립한 그루는 기후학교, 기후품앗이, 기후위기대응축제로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메그드와 네이버뱅크 [대덕기후화폐]로 <쑥쑥단> 기금에주세요.)



대덕기후화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후학교는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기후위기와 마음의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생생한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적극적 대응을 위해 창안되었고 기후위기실천단 쑥쑥단을 공개 모집하였다. 쑥쑥 자란다는 의미를 담고있는 쑥쑥단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실천을 배운다. ‘기후통장’을 받아 기후화폐를 적립한다. 기후학교 강의를 신청하고 강의 시간에 맞추어 밴드에 공유되는 줌(zoom)으로 접속해 공부한다. 기후학교 강의마다 기후화폐 10그루를 사용하고, 기후위기 활동으로 인정해 3그루를 적립한다. 온라인 강의 주소를 밴드에 공지하기 때문에 밴드 가입은 필수이다. 잘 알려진 아나바다, 리사이클, 업사이클을 통해서도 기후화폐가 적립이 가능하다.

내가 제안한 기후화폐는 한발레츠의 지역화폐 경험과 신승철박사의 생태적 지혜 이론을 교집합으로 탄생했다. 기후변화가 명백하게 과학적 사실임에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개인이 대면하기에 애매하게 느껴져서 일반인들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를 위해 고립된 지적 활동이 아닌 의식과 두려움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헌신에 의지할 수 있는 신념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기후변화의 심리학』, p.334). 기후를 예고와 공포로만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종말로 향한 욕망의 폭주를 멈추려면 당장 기후활동을 해야한다. 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싶다면, 자신이 발행한 기후화폐만큼 현금을 모아 기후위기대응 사업에 기부하시기 바란다. 채식식당, 넷제로, 제로웨이스트 상점들과 함께 활발히 소통하는 ‘쑥쑥단’이 늘어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후화폐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대덕기후화폐 사업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학교, 기후품앗이, 기후 페스티벌, 기후자료집 등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과 활동회원 인터뷰를 기록해서 백서를 남길 것이다. 올해 여러 사업팀의 활동이 150페이지 정도의 자료집으로 남겨서 길잡이 역할의 설명서를 만들 것이다. 플랫폼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 우리가 실험적으로 시도했다. 성과와는 상관없이 기후위기에 대한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란다.



한발레츠 (LETS)가 역사가 길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의 기후화폐의 근간은 한발레츠이다.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의 약자로서 ‘지역교환 거래체계’를 뜻한다. 한발레츠에 통용되는 화폐 ‘두루’는 우리 말로 널리, 두루 두루라는 뜻이다. 회원이 620명 정도 있다. 세계에서 지역 화폐와 같은 대안경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화폐 조직이 되었다. 공동체 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문제 해소 등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우리 공동체가 관계 중심의 매개로 작동하며 마을 안에서 나눔과 연대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살아있다.

한발레츠는 홈페이지에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품앗이와 물품을 공유하고 있다. 이동영화관, 두루부엌, 여성일자리 창출, 소규모생산과 판매활동, 소모임, 지역모임 등이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자원의 나눔과 공유는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했다. 어느덧 21년 넘게 지역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중심의 경제활동은 비용이 저렴하며 환경친화적 경제에 기여한다. 20년 동안 지역통화를 지켜오면서 함께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제 함께 기후위기의 시계를 멈추자.

오민우는 멸종저항 활동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공감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과 제약이 많다. 기후학교를 같이 하면서 소감을 발표할 때, 나혼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위기속에서 동질감을 찾아가고 함께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어서 고맙다. 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다가오는데 개인은 공포차원에서 머물고 있으니 관이나 조직이 합리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것과 공포감만 조성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나 기후에 대한 대응은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

경제라는 관점은 모든 것을 두루두루 파괴하였다. 우리가 기대어 사는 지구본 아니라 같이 공생하는 생명체들에게 재앙을 되돌려주고 있다. 성장경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더욱 가파르

게 촉진하고 있다. 지구 대기권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빈 방의 전등은 꺼 두는 사소한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기후학교, 생태전환, 녹색연합, 멸종저항운동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면 누구나 활동가라고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나를 2008년 완전 채식주의자가 되도록 이끌었다. 비건의 삶을 시작한 계기는 내가 다른 동물의 힘을 뺏지 않고 살고 싶었다. 채식이 건강이라는 국소적 의미에서 지구와 동물복지권, 인류의 생존과 다른 생물과의 조화를 향한 생태계에 열려가도록 같이 걸어가고 있다. 나는 혈연 지연 학연에 매몰되는 것을 거부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들과 협동하고 사회적 관계망에 협업한다.

인터뷰를 마치며

인터뷰에서 그는 선문답의 경계를 무심히 왔다갔다 가로지르고 있다. 오민우 한발레즈대표는 세상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에 있으려 한다. 내적 성찰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위대함을 알고 있다. 극락, 천국, 니르바나 등 피안의 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현장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위대함을 알고 있다. 어떻게? 바로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는 유연함이다. 앞으로도 그가 추구하는 것들도 같은 형태이다. 그가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네트워크의 마디는 유연성으로 달혀있지 않고 열려있다. 비가시적인 가치가 그를 통해 지역에서 체화하고 물성화하고 있다. 필자는 오민우대표에게 멸종저항활동가라는 면류관 한 개를 얹어주었다.

05

동네한바퀴

동행하실까요?
지구 살리기

네
옛

환경, 생태 그리고 기후

동네 한바퀴 단체명을 듣는 순간 떠오른 동요가 있다. “다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대표 최희란님에게 동요가 생각난다고 하니 동요에서 차용한 제목이라고 흔쾌한 대답이 돌아왔다. 유쾌하고 배울 점 많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공동체 모임을 만든 계기가 있습니까?

나는 대청댐 둘레길인 로하스공원을 매일 걷는다. 걸을 때마다 쓰레기를 보면서 무언가 해봐야겠다, 저 쓰레기를 나 혼자라도 한번 치워 봐야겠다 결심하고 드디어 시작했다. 쓰레기 봉투하고 집계를 준비해서 혼자서 1년 정도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줍기 시작하였다. 2020년 3월에 이웃 주민들이 의기투합했다.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인드는 참말로 중요하다. 더불어 밤늦게 귀가하는 아이들 귀가 안전도우미를 했다. 9시 이후 10시 정도에 나간다. 큰일은 아니지만 신탄진 이문고등학교, 신탄진초등학교, 학원가를 돌고 건널목에서 서 있다.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들이 휙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해서 사고도 나는 것을 봤다. 우리가 서 있으면 억지로라도 신호를 준수한다.

멤버 소개와 공동체 활동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2020년도에 결성되었는데 깨끗하고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며 아울러 안전한 세상 만들기라는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주된 활동은 동네 구석구석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살피고 깨끗하게 가꾸는 일이다.

아들만 둘인데 다 성장하여 동지를 떠나고 남편과 생활하고 있는 곽영순, 초등학생 두 아이의 엄마 김정은, 늦둥이 딸을 둔 엄마 마정애, 군대간 아들을 둔 엄마 최순이님이 합류했다. 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며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쓰레기도 줍고 학생들의 안전귀가도 도우며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멤버 스스로도 많이 변했고 주위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중에는 남편들까지 도와줘서 보람을 느꼈단다. 아직도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조금씩 찾아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복잡한 서류와 불편한 사진들 때문에 또 참여할지는 생각 중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봉사활동을 마음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류가 복잡하지 않도록 줄여주고 많은 배려 부탁드린다고 꼭 써달라고 했다.

우리는 정말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실감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활동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플로깅의 범주에 들어간다. 플로깅은 2016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 북유럽 중심으로 확산된 운동인데 어원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의 합성어인 Ploking!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스쿼트 운동 자세와 비슷하다는 데서 플로깅이 생겨났다.

신탄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지구 어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지구를 지키는 환경 지킴이들과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양심을 버리려면 대로변에 버려라.



담배갑은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담배꽂초도 우리 플로킹의 비닐봉투에 단골손님이었다. 문제는 담배갑을 씌운 얇은 비닐과 종이를 분리해야 한다. 너무도 얇은 비닐은 벗기는데 많은 공이 든다. 사람들은 버릴 때 대로변에 잘 보이는 곳에 줍기가 쉬운 곳에 버려주면 참 고마울텐데 보이지 않고 찾기 힘들고 줍기 어렵게 안 보이는 곳에 쏘옥 던져놓는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다. “양심을 버리려면 대로변에 버려라.” 구석에 은폐하듯이 던져버리면 줍기가 몹시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종이 나 플라스틱 커피 테이크아웃 컵이다. 이 물건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지구가 걱정이다. 가장 강력한 활동은 그저 덜 버리는 것이다.

사실 나는 마을 활동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직 그러한 인식의 단계까지는 못 올라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쓰레기를 줍는다. 그러자 처음에는 의심쩍거나 의아한 표정을 짓던 이웃들이 한명씩 한명씩 참여하게 되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를지라도 그리고 삶의 경험의 폭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지라도 상관없이 없었다. 정형화된 틀이 없다. 그냥 자연스레 모여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우리는 점점 인식을 확장할 것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활동가라는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임이 공동체센터 지원으로 더 든든해져서 고마울 따름이다. 한시적인 지원 프로젝트이고 곧 끝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모여서 쓰레기를 주울 것이다.

사람이 답이고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며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센터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회원이 몇 명이나? 라는 양적인 성공도 중요하겠지만, 끝까지 함께 하며 애환을 나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즉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원하고 있다. 우리 멤버의 각자의 성찰과 행동 요령을 늘리고, 참여와 실천이 계속된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갈 것을 희망하고 믿고 있다. 파이팅.

인터뷰를 끝내며...

그야말로 한 사람이 작은 일을 시작했다. 부끄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계속했다. 하다 보니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마침 같은 라인에 사는 공동체 센터 구별지기 윤자윤님이 공적인 마당으로 초대했다. 일이 커졌다. 커지면서 이 사람들은 지구적인 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인식의 확장이다. 지구 한 모퉁이 신탄진에서 자신들이 쓰레기 한 개를 줍는 일이 지구를 살리고 있으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티백도 뜨거운 물 속에서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뿜어낸다고 한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연구팀은 티백 하나에서 미세 플라스틱 116억 개와 나노 플라스틱 31억 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환경 과학과 기술, 2019).

종이 빨대는 친환경이 아니고 일회용 쓰레기라는 사실도 배워서 알게 되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고 지구적으로 각 나라가 연대하여야 하는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지구를 병들게 한 인간들이 우리 지구를 다시 살만한 곳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바로 우리 인간들이 시급하게 시작해야 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기후변화는 미세먼지와 이상기온으로 우리 일상에 깊이 침입해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공동체명 : 누리나래
▶ 사업명 : 대덕e점프점프!



네
엣

환경,
생태
그리고
기후

06

누리나래

평생 교육의
등불을 켜다







엄마들!~ 변할 준비됐나요?.

하루는 24시간, 1440분 86,400초에 해당된다. 우리는 매일 매일 24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누리나래 공동체 김정아 대표는 세계적인 작가에 버금갈 정도로 시간 활용의 달인이다. 직장 업무에 누리나래 공동체 사업까지 하면서 끝없는 학구열을 불태우는 열정의 주인공이다.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 급식 지도를 하다보면 편식하는 아이가 아주 많아요. 하나의 예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경우 엄마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 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평소 먹어보지 못한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자연스럽게 편식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팀원들과 공동체 주방에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좋겠다 싶어 음식 나눔 봉사를 기획했어요”

김정아 대표는 엄마들이 변해야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변해야 된다고 강요할 수도 없었다. 다행히 김 대표 주변에는 평생 교육을 실천 중인 인적 인프라가 충분했기에 공동체 활동을 통한 환경 개선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평생교육을 통해 스스로 변화될 때 우리 사회 또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리나래 공동체 사업도 가정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내 마을을 변화시켜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자는 포부도 있었구요”



쾌적한 가정환경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누리나래 공동체 교육 담당 정미선 강사는 온갖 살림살이들이 널브러져 있는 좁은 집안에서 아이들이 북적거리고 있을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정 원생 분포가 많아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정환경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리수납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누리나래 공동체에서 ‘정리수납’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미선 강사의 본업은 서현 어린이집 원감이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원아들 가정에 행복을 옮겨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학부모와 지역민 대상 정리수납 교육이다.

“어린이집 원생 엄마들로 시작해서 학부모 지인들까지 홍보가 되는 대로 교육 대상자를 모집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다행히 어린이집 뒤편 대화동 ‘꿈꾸는 대화 작은도서관’에서 교육 장소를 선뜻 무상으로 제공해 주셔서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누리나래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정리수납 강좌를 진행했다. 안방과 거실 정리에 필요한 만능세제 만들기를 시작으로 제습제 만들기, 석고 방향제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석고 방향제 만들기는 주민들의 앵콜 요청에 따라 1회 더 진행했다.

이 골치 아픈 일을 왜 하고 있지?

“대화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독거노인 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집수리 봉사를 하는 어르신 공동체 모임 동심회가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동심회와 협업해서 엄마들과 함께 정리수납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생활공간을 남에게 오픈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라서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면 재능기부 활동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예요”

정 강사는 교육을 받고 나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몸은 조금 힘들어도 계속 봉사를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간혹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보면 내용보다 형식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 까이꺼 사업비 얼마나 준다고 뭘 이렇게 복잡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나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재능기부 좀 해 보겠는데 회계처리가 발목을 잡고 안 놔 줄 때는 이번만 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김 대표는 이번 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약 4년 전에 큰 공모 사업을 시행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큰 부담 없이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공동체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을 하면서 회계처리를 한 경험이 있어서 별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회계처리가 더 세밀해지고 복잡해 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시작 전에 나눠준 책을 꼼꼼히 정독하다 보니까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김 대표도 물론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용 처리가 투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한다. 또 한편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워낙 공부하기 좋아하는 김 대표라지만 가끔은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한 일로 인해 생업이 위협받을 정도로 신경써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변화는 시작됐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마중물을 붓다

내 마을의 변화는 내가 주도한다는 뜻에서 주민자치 활동이 촉발됐다. 주민자치 활동은 스스로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님과 팀장님이 주민자치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생 중에 평소 자기 자식과 가족 외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던 한 엄마가 그 교육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주변 엄마들에게 공동체 교육에 함께 참여하자고 설득하는가 하면 다른 활동에서도 솔선수범하더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엄마들끼리 따로 소모임을 만들어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활동이 시나브로 주변으로 번져 나가서 지금은 작은 소모임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동체 교육이 지역 활동의 마중물이 되어 천연비누 만들기 소모임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 주민자치 교육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주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 천연비누 만들기 소모임이 주최가 되어 지역 주민 대상 강의와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 1일 교사 활동으로 선순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런 변화들을 감지할 때마다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만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민자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원아 부모 대상 홍보부터 현수막, 포스터, 대화동 밴드 등에 교육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공동체 활동은 한 번, 두 번 경험이 중요하다. 능력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김 대표는 주민자치 활동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주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07

회덕동
환경지킴이

|
**신대동 환경도
지키면서
얼굴도
좀 보자구요!**



네
옛

환경,
생태
그리고
기후



갑천 변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

“예전처럼 반상회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라도 하면서 얼굴 좀 보자고요” 신대동 주민들은 마을의 갑천 주변이 폐비닐이 늘어져 쌓이다 쓰레기장같이 돼버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주민 10여 명이 대책을 논하고 중지를 모아 '회덕동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를 결성하게 됐다. 이들은 스스로 환경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주민들의 단합도 염원했다. 청소가 청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끈끈해지고 돈독하게 맺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동네 사람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겠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저녁 밥때라 텅 비어 있던 노인복지관 앞 평상에 어스름이 내리고, 환경지킴이 구성원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대덕구 에너지과학과 환경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 윤화자 대표가 서두를 열었다.

“갑천 변에서 비닐하우스 농사짓는 사람이 그 비닐을 제대로 수거 안 하고 내버려 두더라구요. 차가 다니는 길이 쓰레기장이 돼 버려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신대동은 하우스로 특수작물을 많이 재배한다. 그러다 보니 하우스 주변에는 관련 자재, 파이프 등이 흐트러져 있기 십상이었다. ‘깨어진 유리창 효과’처럼 주변에 잡다한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고장 난 텔레비전, 밥솥, 라디오, 폐가구 등 가지

가지 주변에 다 갖다 버려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다. 거기다 신대동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주택 단지라 분리수거 관리가 좀 어렵다. 주민 몇몇이 대책을 세우자고 나서던 터에 공동체결성과 보조금 제도를 알게 됐다.

구성원들이 저마다 직장을 가지거나 농사를 지어야 하니 환경 정화 활동 시간대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활동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참여했다. 구성원이 10명인데 이들에 걸쳐서 시간을 냈어야 했다. 4명, 6명으로 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두 부류로 나뉘었다. 윤 대표는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지만 마을이 금방 달라지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일이라며.

주택에는 토박이들과 노인,

빌라에는 젊은이...

‘섞여야 하는데...’

신대동이란 어감에서 그곳엔 왠지 푸근한 마음씨의 시골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같았다. 실제 그 동네는 각저 우뚝 솟은 압채 같은 아파트보다는 나지막하고 소담한 주택들이 더 많이 토닥토닥 자리 잡고 있어 정답게 보였다. 그 주위로 빌라건물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노인복지관이 마을 가운데에 텅 자리 잡았고, 그 앞 너른 마당에는 지붕이 딸린 널찍한 평상이 주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대동 주택에는 대부분 토박이가 산다. 그 주변의 빌라는 주로 젊은 층이 유입돼 산다. 신대동에서 이 두 부류는 섞일 일이 없었다.

저마다 일터에 가거나 논밭으로 간다. 일과를 마치면 집으로 쏙 들어가 다시 아침이 되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일터로 향하고 젊은이들은 먼 직장에 차로 이동한다. 마을의 넓고도 평온해 보이는 노인복지관 앞 이 평상은 그 두 부류가 자신에게 와 둘러앉아 오순도순 웃음꽃 피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지도 모를 일이다.

충무님은 “이 마을에 40년 살았지. 남편은 이 동네 토박이 구대 손이고... 이 동네는 오래전부터 사람들 마음씨가 좋아. 압채 같은 마음이 아니고 시골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떨지...”라며 관심을 보였다. 옛날처럼 마을 사람 얼굴도 알고, 서로 인사 나누며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보였다.

“청소하는데 회의록을 왜 쓰래?”

까탈스러운 보조금

보조금으로 백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사용하기가 너무 까다롭다. 청소도구로 빗자루, 장갑, 쓰레받기, 등을 구입했다. 구성원 회식 때도 인원수와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그냥 공산품 예코백 사서 나누어 주면 안 되고 수공이 일부 들어가는 품목을 해야 된대요.”

보조금 사용 시에는 반제품을 사서 일부 수공이 들어가는 물품으로 제작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시장 가방 250장을 시안 작성해 주문 제작했다. 두 번에 걸쳐 완성됐는데 이것들을 방바닥에 죽 일렬로 펼쳐놓고 사진을 찍어서 서류에 증빙해야 했다. 가방 배포와 계도 활동은 코로나로 인해 잠정 연기되고 있어 안타깝다.

“보조금이라는 게 까탈스러운 게 너무 많아. 청소하고 식사를 했어. 근대 회의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너무 황당해. 영수증, 견적서, 간이 영수증... 물건 하나 사면 무조건 늘어놓고 사진부터 찍어야 하고...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부딪히는 게 많아. 쉽게 생각하고 했는데 결코 쉽지 않아”

윤 대표는 공동체 홈페이지에서 회계 서식을 다운받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컴퓨터에 앉아 서식을 다 만들고 문서를 출력하려는데 프린트 잉크가 없다는 신호가 떴다. 급히 나가 멀리서 잉크를 사다가 또 같고... 회계 서류하다 하루 해를 다 보냈다고 했다. 윤 대표는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해 눈이 잘 안 보이며 불편하다. 눈을 껌벅거렸다.

“복잡한 행정 서식 좀 간소화하는 게 필요해. 이런 식이면 다들 안 한다는 이야기 나오지”



모두가 바쁜 세상... 누군가는 행겨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구성원들은 마련한 시장 가방에 굵은 매직으로 자신들이 실천할 환경보호 문구를 써넣었다. 가방의 주인들이 자신의 다짐을 가방에 직접 적어 넣어 실천을 생활에 새기자는 의도다.

내년 사업을 문자 처음 공동체를 결성하고 내년에는 더 큰 사업에 신청해 보려 했는데, 생각 중이란다.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같이해요” 하면 그들은 멋쩍어한다고 말한다. 덧붙여 “코로나가 문제지”하면서.

동네일 열심히 하노라면 집안사람들이 불편해질 때도 있다. 윤 대표는 물론 총무님도 신랑에게 “큰일 한다. 큰일 해. 엄청나게!” 라는 편지를 자주 듣는단다. 총무님은 동네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술선수범해서 나와주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좋다. 요즘 사람들 내 살기가 급급해 우리를 돌아보는 데 참 각박해지고 있는 중에 만난 귀한 사람들이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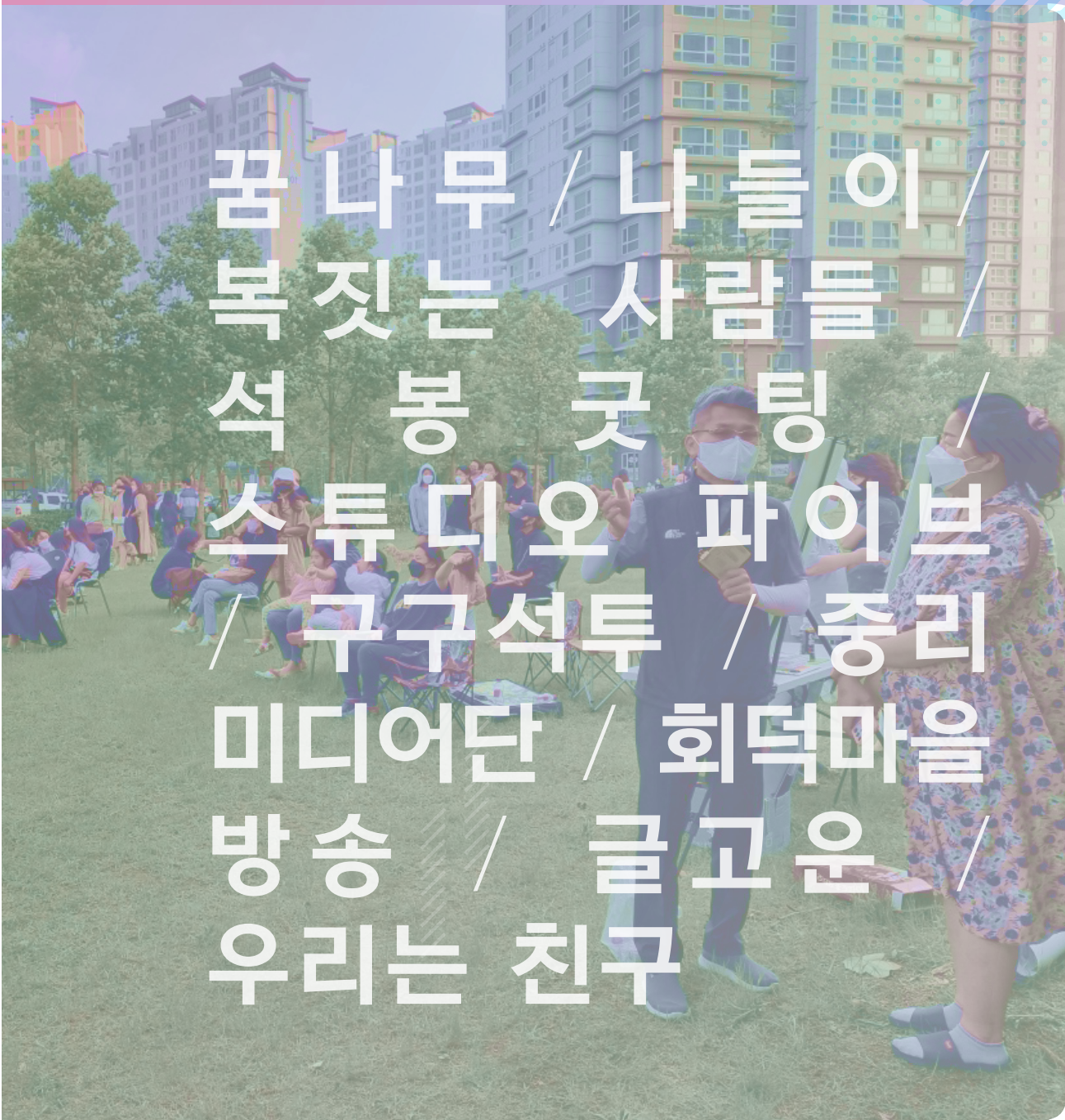
인터뷰 말미에 총무님의 전화벨이 울린다. 신랑님이 밥 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모두가 너무 바쁘다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시간을 조금은 베풀어 ‘우리’를 위해 쓰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그들의 모습은 이 평화로운 동네만큼이나 푸근하고 아름다웠다.



다섯

미디어, 다시 문화





꿈나무 / 나들이 /
복짓는 사람들 /
석봉굿팅 /
스튜디오 파이프
/ 구구석투 / 중리
미디어단 / 회덕마을
방송 / 글고운 /
우리는 친구

01

꿈나무 공동체

마을 사람 셋이면
문화를 꽃피우는
마중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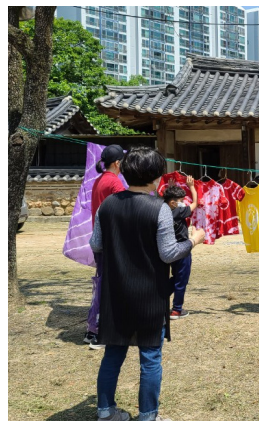
마을 사람 셋이면 문화를 꽃피우는 마중물이 된다.

“지난해 여름 대덕구 주민자치 주최 프리마켓 홍보 현수막을 보고 프리마켓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라서 저는 가을에 열리는 프리마켓에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제작하는 스카프는 여름보다 가을에 더 호응이 좋을 것 같아서 10월쯤에 열리는 프리마켓 참여 의사를 밝혔더니 가을에 참여하려면 지금부터 참가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오뉴월 땀별이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부스를 가마솥처럼 달구었다. 줄줄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느라 정신없는 중에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배꼽시계는 정확하게 울려댔다. 하지만 혼자 지키는 부스라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다.

잠시 다른 부스를 둘러보니 프리마켓 선배들은 손 선풍기부터 냉방 용품까지 꼼꼼히도 챙겨 나왔다. 모기향까지 준비해 온 사람도 있었다. 점심까지 굶으면서 처음 참여하는 프리마켓에서 불과 서너 시간 만에 평생 흘릴 땀을 다 흘린 날이었다. 꿈나무 공동체 윤석지 대표는 점심에 김밥이나 한 줄 먹으면 되겠지 싶어 아무 준비 없이 프리마켓 행사에 나갔다가 한여름 땀별과 사투를 벌인 기억을 불러냈다.

작품 활동으로 치면 30년이다. 82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계속 작품 활동을 지속해왔으니 자타 공인 공예작가인 동시에 대학에서는 겸임교수로 불린다. 개인전부터 그룹전까지 말 그대로 오로지 한 우물만 파 온 증견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아줌마다. 처음 시작한 프리마켓 참가자들 중에서 차출된 재주 좋은 아줌마 세 명으로 시작됐다.





내가 아줌마? 프리마켓에서 시작된 꿈나무 공동체

“현대사회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껏 30여 년의 세월을 중리동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내일이 바빴던 터라 중리동 주민들과 소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원대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봉사는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염색 체험 두 팀과 찜 만들기 두 팀으로 나눠 활동을 진행했다. 작년도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외부로 체험활동을 하러 나갈 상황이 안됐다. 그러다 보니 지역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체험활동이 호응이 좋았다.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은 엄마와 함께 체험활동에 참여하면서 심리적 유대 관계를 깊게 형성하는 한편 꿈나무에서 나눠준 간식을 나눠 먹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학업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는 힐링 기회가 되었다.

“염색 체험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 수준이 높아서 거의 중학생이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또 보고, 느끼는 체험을 넘어 실생활에서 입고 다닐 수 있다 보니 일석이조였습니다. 작년에 염색 체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올해 자신이 만든 티셔츠를 입고 와서 부듯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저렇게들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 활동을 멈출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새로운 팀을 꾸리다

“이 활동이 신경 쓸 일도 많고 자기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다 보니 작년에 같이 했던 선생님 두 분이 올해는 못 하겠다고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봉사도 좋지만 생계가 먼저다 보니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먼저잖아요. 또 한 선생님은 남편 일을 도와야 해서 포기하고 결국 저만 혼자 남게 돼서 공동체 활동은 그만둬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지난해에 같이 활동한 꿈나무 공동체 회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혼자만 덜렁 남게 되니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의지가 소진됐다. 물론 체험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도 많았다. 다들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혼자서는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도 없으니 어쩌나 싶었다.

“공동체 지원팀장한테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주변에 숨은 고수들이 많으니까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숨쉴 좋은 아줌마 그룹에 속했는데 어느새 호칭이 숨은 고수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 정말 숨은 고수들이 있더라구요”

가장 먼저 서양화를 전공해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여민선 선생님을 떠올렸다. 그리고 작년에 다른 팀에서 공동체 활동을 했던 황정희 선생님이 공동체 활동을 접을 계획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여민선 선생님의 참여 의사를 타진한 후에 황정희 선생님을 설득했다.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체험 활동이 실용성까지 갖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체험활동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황정희 선생님이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모스 토피어리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애지중지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은 귀엽기까지 했다. 또 자기가 만든 작품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친환경 가습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다. 이렇게 모스 토피어리 체험 2회가 마무리됐다.

윤석지 대표가 직접 진행한 염색 체험은 공동체지원센터 실내 활동으로 진행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동춘당 마당에서 진행했다. 염색 체험 또한 티셔츠를 만드는 체험으로 진행돼서 체험활동과 동시에 실리까지 챙기는 행사였다. 염색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엄청 행복해했다. 다만 올해 염색 체험은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진행했다.

“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가 먼저 실비 각출을 추천했어요. 공짜라면 내 것 남의 거 구분 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례들이 빈번해서 공여지책으로 찾아낸 방법이지요. 다른 곳에서는 1회에 1만원을 받는데, 꿈나무 공동체에서는 5천원에 푸짐한 간식까지 챙겨줬어요. 학생들이 낸 체험비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준 셈이지요. 엄마 손 잡고 온 유치원생들의 경우에는 학부모 간식까지 넉넉히 챙겨 드렸습니다”

물감 놀이 체험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역수칙 4단계 조정으로 체험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다가 8월 하순에 무사히 물감 놀이 체험을 마칠 수 있었다.

꿈나무 공동체에는 남다른 매력이 있다.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꿈나무 공동체 대표를 맡고 윤석지 대표는 중견 공예작가다. 윤 대표는 1986년에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를 졸업하고 1988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전문 작가다.

엄윤선 작가도 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전문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다. 여민선 작가는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최근에는 작품 제작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활동하고 있다.

두 분의 전문 작가와 학교 체험학습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정희 선생님이 있는 꿈나무 공동체는 정말 지역 내 보물창고다. 이 세 분의 봉사자가 있어서 대덕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꿈을 키우고 ‘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다.

다섯

미디어
다시
문화

02

나들이

금강의 심장,
로하스 길에
'나들이'
가실까요?



우리 김밥 가지고 소풍갈까요?

코로나19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렸다.

팀원들이 엑셀루타워 관리사무실을 통해 걷기 행사를 홍보하고 또 주민자치 센터 봉사자들에게도 행사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신탄진 주민 밴드에도 홍보했다. 진심이 통했던 걸까? 첫 행사치고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날 대략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

걷기 행사가 있던 3월 14일은 화창했다. 이날 진행요원들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먼저 금강로하스 공원으로 속속 모여드는 참가들을 맞아 열 체크를 진행하는가 하면, 다른 요원은 걷기 진행 방법을 설명해주고 트랭글 어플 사용에 미숙한 어르신들을 위해 어플을 깔아줬다. 또 한쪽에는 회원들이 걷기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준비한 김밥과 간식을 나눠 주느라 분주했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한 행사였던 만큼 재미있는 사연들도 많았다. 자전거 타러 나왔다가 걷기 행사 참여를 위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참석자도 눈에 띄었다. 그런가 하면 두 손을 꼭 잡고 나온 연세 지긋한 노부부가 다정한 모습을 연출해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도 했다.

나들이 걷기 행사의 MVP는 뱃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네 딸을 데리고 참석한 만삭의 산모였다. 진행 요원들은 애국자 산모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잠시나마 행사 준비에 쌓인 피로감을 잊을 수 있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기는 딸일까? 아들일까?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아기의 성별을 물으니 태중에 있는 아기도 딸이란단다. 애국자 산모는 다섯 공주의 어머니였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딸 넷을 낳고도 또 한 명의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으니 누가 봐도 애국자가 확실했다. 모두가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살아갈 세상에는 제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없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산모의 순산을 기원했다.



방역수칙 위반 이라고요?

“다들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집 밖으로 나와서 자연에서 호흡하면서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걷기 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석봉동은 신탄진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연 지형을 이용한 힐링 코스가 많은 편입니다”

신탄진은 로하스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 행사에 안성맞춤인 천혜의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나들이를 이끌고 있는 전 대표는 신탄진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나들이 행사로 걷기 행사를 기획했다. 그 결과 금강 로하스 길을 따라 걷는 제1회 걷기대회 코스가 결정됐다.

“금강 로하스 공원에서 출발해서 핑크물리 공원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5킬로 구간과 보조댐 지나 캠핑장까지 왕복하는 10킬로 구간 그리고 대청댐 광장까지 왕복하는 15킬로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걷기 구간을 정하긴 했지만 출발지와 최종 종착지까지 걸은 킬로 수대로 완주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참가자가 많아 주민을 생각하는 진심이 통했다는 생각에 흐뭇해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경찰차가 달려오고 파출소 직원들이 행사장으로 출동했다. 이게 뭐 일인가 싶어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혹시 걷기 행사 참가자 중에 범죄자라도 있다는 것인가? 파출소 직원들이 경찰차를 타고 급히 달려온 이유가 궁금했다.

이날 난리법석을 친 범인은 바로 코로나19였다. 지나가던 행인이 멀리서 행사 장면을 지켜보고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니까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큰일이다 싶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범인을 잡기 위해 출동했다.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에 감탄하고 돌아간 뒤 행사는 다시금 순조롭게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이처럼 생각지 못한 에피소드로 인해 더 풍성한 추억으로 물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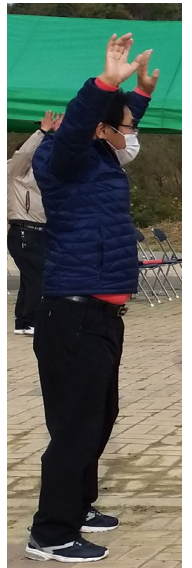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보완해서 더 멋진 행사로

걷기 행사는 참가자가 출발지로 다시 돌아와야 끝나는 규칙으로 진행됐다. 물론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었다. 그래도 완주를 독려하기 위해 출발지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완주 기념 배지와 즉석 기념사진 촬영 그리고 기념 액자를 만들어 참가자가 원하는 문구를 캘리 작가가 직접 적어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내걸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규칙을 정해놔도 꼭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청개구리는 어디든 있는 법이다. 이날도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창의적인 참가자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진행자들은 청개구리 참가자가 있을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사 시간이 다 끝난 뒤에도 마지막 참가자가 원점으로 되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끝까지 몇 명의 참가자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출발만 하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참가자들이 있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뒤에 겨우 안심하고 행사를 철수할 수 있었다. 이 또한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일이니만큼 다음 걷기 행사 때는 처음 행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 다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턱없이 작은 예산이다.

“예산이 작은 데다 비용 처리 또한 복잡해서 정작 좋은 일을 기획하고 싶어도 머뭇거리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예산 분배와 복잡한 서류를 간소화시키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마을 만드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르신 같이 나들이 가실래요?

애들아! 같이 나들이 갈까?

전병준 대표는 석봉동에서 나고 자라 석봉동에 뿌린 내린 석봉동 토박이다. 그래서 석봉동에 살고있는 모든 외로운 어르신들의 든든한 아들이자 소외된 어린아이들의 멋진 삼촌이면서 아빠 같은 존재다. 이런 전병준 대표에게는 옆에서 늘 든든하게 지켜주는 송선일 총무와 자원봉사자 후배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김미림 간사가 있다.

누군가가 마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면 누구나 토를 달거나 궤방 놓는 일 없이 모두가 의기투합하는 멋진 마을이다. 이들은 각자가 자기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전병준 대표는 이런 든든한 지원군들이 많기때문에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나들이 행사다. 독거 어르신들과 모범 운전자를 매칭시켜서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계획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 나들이를 구상하고 있다.



03

복짓는 사람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는 ‘용띠’ 엄마들이다

‘복 짓는 사람들’은 한 마을에서 동갑내기 아이들을 키워낸 엄마들의 모임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이야기의 소재부터 관심사가 아이들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엄마들의 우정도 조금씩 더 돈독해져 갔다. 그러는 사이 아무리 붙잡아도 냉정하게 뿌리치고 가는 것이 세월이라고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하는 사이 엄마들도 세월에 발효되고 있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은 저 혼자 다 큰 줄 알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애인 따라 놀러 나간다. 아이들이 떠난 빈 등지에 남겨진 엄마들은 서로 늙어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때로는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찾아 먹으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50을 넘긴 나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 버스에 떠밀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네 아이의 엄마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라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갱년기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대덕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로컬푸드 매니저 양성과정 강연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 듣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 폭풍 검색을 시작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들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뜻깊은 활동을 해 보자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또 무엇보다도 엄마들 각자가 전문적인 재능을 보유하고 있었던 터라 송춘동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치했다.

복잡한 서류와 사업계획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복 짓는 사람들 권미숙 대표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인터넷이 능숙한 플로리스트다. 최영심 씨는 손재주가 탁월한데다 그림까지 잘 그리는 재주꾼이다. 또 요리를 잘하는 김현진 씨는 늘 맛있는 요리로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는 지덕체를 겸비한 현모양처다.

이 정도 능력이면 송촌동 주민들에게 복을 나눠주기에 충분한 실력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다. 뜻을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고 용기까지 충전했으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막상 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의외의 복병이 숨어 있었다. 복잡한 회계 서류부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잘 갈무리해서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하는 사업계획서 문구까지 처음부터 예상 밖 장애물이 나타났다. 사실 회계 콤플렉스는 어쩔 예상할 수 있었던 어려움이기도 했다.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용띠 엄마들이 돈독한 우정과 실패 경험에서 쌓인 노하우가 있으니 멋지게 성공시킬 수 있으리란 확신이 있었다. 사업계획서는 작성 예시 기본 틀에 맞춰 작성했다. 디테일한 부분은 센터 매니저의 세심한 지도를 통해 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할 수 있었다. 힘든 일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복을 전해 드립니다

송동촌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어버이날 행사로 꽃바구니와 꽃사지 만들기를 진행하기로 한 날이었다. 송동촌 공동체지원센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수업 재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학습자들을 기다리는 권미숙 대표의 얼굴에도 어느새 환한 미소가 번졌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최영심 씨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나눠주면 좋을까? 고민하느라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쳤다. 무엇을 그릴까? 어떤 소재를 선택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공동체 수업에서 만날 사람들과 함께 그릴 그림 소재를 찾느라 인터넷 검색부터 이런저런 자료들도 뒤져봤다. 권 대표가 첫 수업 아이템을 ‘꽃’으로 정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음 수업 아이템도 자연스럽게 꽃으로 결정됐다.

수채화 그리기 수업 주제를 정해놓고 보니 효율적인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됐다. 재료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정된 금액 안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디자인 공부를 한 딸이 좋은 물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답을 얻어냈다. 그렇게 딸이 쓰던 물감들을 챙겨 넣어가며 수업 재료들을 준비했다. 그런 다음 딸에게 색깔 만드는 비법까지 알아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민들 대상 수채화 그림 그리기 수업이 시작됐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둘러보다 보니 지금은 그저 평범한 아줌마들인데 한때는 다들 꿈 많은 소녀들이었을 텐데.... 어느새 우리한테 갱년기라는 복병이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제 수업을 통해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온 자신을 잠시라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시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건물 올리는 거 아냐?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도 있었고 즐거웠던 일들도 많았다. 하지만 결국 용띠 엄마들이 해냈다. 그리고 용띠 엄마들이 마을 사람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갱년기를 훌쩍 뛰어 넘어 하하 호호 웃음꽃 피우는 행복한 시간들을 가꿔 가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돈과 행복을 불러온다는 해바라기도 그리고 부와 명예를 상징한다는 목단도 그렸다. 처음 시작은 비록 미미했으나 하나씩 완성하다 보니 멋진 작품들이 탄생했다. 어떤 사람은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되겠다고 덕담을 주고 받았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다 그러다 건물주 되는 거 아니냐고 추켜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막상 재능기부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코로나19가 학교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시켜서 하루 온종일 집에 있는 아이들 밥 챙기랴 공부 챙기랴 몸부터 마음까지 다 지쳤었는데 공동체 수업에 나오니까 살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구요.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에 서로 작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다 보니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물감이 붓끝을 타고 번져 나가는 모습에서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단박에 사라져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학습자도 있었다. 최근 영심씨는 작은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또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또 이렇게 모여서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을 창작해보는 활동들이 주는 효과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활동이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선보이다 보니 나에게 부족한 점을 더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부족함을 보완하는 계기를 통해 제 스스로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네 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





다.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생겨서 가족들도 공동체 활동을 적극 응원해 줍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더불어 성장해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다 보니 갱년기를 벗어나서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 짓는 사람들 공동체에서는 권미숙 대표를 필두로 어버이날 ‘꽃 사지’와 ‘꽃 바구니’ 만들기, 그리고 최영심씨가 진행하는 수채화 그리기에 이어 김현진씨가 맡은 가정 요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최영심씨는 수채화 그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천연 면실을 이용한 인형 만들기 수업까지 기획해 놓은 상태다. 빨리 코로나19가 안정 상태에 접어들어서 더 멋진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04

모이자 석봉탐험대
(석봉 good thing 알리자)

공동체 ‘모이자’
결성은 위밍업,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석봉동을 탐험해, 아이들 교육자료로 만들고 싶다.

석봉동의 알려지지 않은 좋은 것들을 찾아 홍보하자는 임무를 갖고 있던 주민자치회 알리자 분과. 이 단체의 위원 10여 명은 올해 ‘석봉 탐험대’란 이름의 공동체를 설립했다. 구성원들은 개인 사업가, 요식업 종사자, 공무원, 상인, 주부 등으로 연령대는 30대에서~60대까지 다양하다. 재주 많은 이 구성원들은 서로를 지켜보며 한 가지 고민에 골몰했다. ‘좋은 구슬이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꿰어 볼까?’라고.

딸 다섯을 둔 ‘석봉 탐험대’ 곽동신 대표는 자칭, 주업이 ‘아빠’고 부업이 ‘직업인’이라 했다. 석봉 탐험대의 큰 추도 아이들을 향하고 있어, 이들의 목표도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는 석봉동 교육자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찰서는 어디 있고, 주위에 은행은 몇 개나 있으며, 시장은 얼마만 한 지... 이를 위해 이들은 석봉동을 탐험하며 자료를 수집한다. 알고 보면, 곽 대표처럼 구성원 모두의 본업이 아빠, 엄마인지도 모른다. 아침 일찍 눈 비비며 일터에 나가고 가사를 돌보는 이유도 당신이 아빠, 엄마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올 5월부터 석봉동 추억의 장소, 전통문화 거리, 맛집 등을 탐험해 정보를 취합하는 중이다. 이는 우리 마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 최종 형태는 지도가 될 수도 있고 학습용 보드게임, 키트 등으로 연구 중이다. 신탄진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여럿 자리하고 있으니 이를 학생들에게 자기 고장 알기의 교재로 제공할 수 있다. 처음 이 사업은 곽 대표가 발제했다. 그는 석봉동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며 인구가 증가했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어느 날, 큰 아이가 지역탐방 숙제를 가져왔어요. 제가 도와주게 됐는데 동네 지명을 찾고 관공서의 위치도 알아보던 중 저도 이 지역에서 모르고 있는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쉽게 동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석봉 탐험대는 우선 올해에는 성과물에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 다만, 공동체 결성 첫해니 만큼 결속을 다지고 구성원 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보는 기간으로 삼는다. 이후 이들은 지금 공동체 모이자 단계에서 내년에 공동체 상위 단계인 ‘해보자’ 사업에 선정돼 길 기원하고 있다. 그 지원금으로 교육자료 발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교육자료 발간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밑그림 단계라 할 수 있다.



지역을 낚낚이 밍아 사실적인 정보를 구하다

석봉 탐험대는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석봉동 철길도로 변 화단, 지역 선결재 나눔 카페, 전통 맛집 등에서 5회의 만남을 가졌다. 석봉 탐험대는 지역을 순회할 때도 주로 안 가 봤던 길로 가본다. 석봉동 구석구석이 궁금해서다. 언젠가 네이버 에도 안 나오고 허름한 곳이라 잘 가지지 않는 식당에 들렀다. 그런데 우연히 맛봤던 그곳의 음식이 훌륭했다. 기대치 않은 의외의 보물을 발견한 듯해 모두 즐거워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화려하게 게재된 맛집에 가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믿을만한 지역민의 소개라야 훨씬 유용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걸 안다. 탐험대는 지역을 낚낚이 다니며 이런 사실적인 정보를 구해서 전하는 믿을만한 단체가 되고 싶다. 석봉 탐험대는 석봉동에 좀 더 다양한 문화관광 거리가 있었으면 한다. 마침 내년에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 문화시설 등이 들어올 예정이란다. 발전될 마을 상에 대해 기대하며 석봉 주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대해 본다.

공동체... 먼저 사람을 얻어서 좋다!

아이의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하던 곽 대표는 지인의 제안으로 작년에 주민 자치회 가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치위원에 선정됐다. 이후 올해는 이 공동체의 대표가 됐다. “먼저, 사람을 얻어서 좋죠. 타지인 석봉동에 처음 이사 와, 앞집 사는 사람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좋은 분들을 알게 됐어요. 구성원들은 제게 어머니뻔 삼촌, 형뻔이죠. 그분들은 다들 역량이 대단해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많죠. 사람이 모이고 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뭔가가 나오더라구요”

곽 회장은 석봉동에 이사 온 지 4년여 됐지만 지역을 잘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지역 사정에 밝아지고 있다. 구성원들 중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 요리 교육하시는 분, 행정에 밝은 분 등 조언 얻을 분들이 많아 부자가 된듯하다. 지난여름에는 대청댐 방면에서 농장을 하시는 구성원 한 분이 석봉 탐험대를 그곳에 초대했다. 그때 고기랑 반찬을 준비해 오신 분, 주류를 가져오신 분. 과일을 챙겨오신 분들 덕분에 식탁이 풍성했다. 닭들이 꼬꼬댁하며 뛰어노는 마당 가운데서 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구성원들의 사는 이야기가 줄줄 이어졌다. 퇴직하신 분은 일거리 고민을 털어 놓았다. 농장의 복숭아 익는 냄새가 달달한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도 익어 갔고 돈독한 정도 익어갔다.

명절 때 다복한 가정이 되고 싶어 아이를 넷이나 뒀다는 곽 대표. 그는 지난 6월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 “땡둥!” ‘경사났네^^ 경사났어^^ 나라를 위해 모두의 미래를 위해 큰일을 해내셨네요’ ‘딸 많아 비행기 엄청 타 좋겠어요’

곽 대표의 휴대폰에는 구성원들의 축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다. 여러 명의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겠다며 구성원들은 출산축하금까지 모아 전달했다. 곽 대표는 그들의 진심어린 축하가 마음에 감동으로 남았다. 자신들의 경사인 양 같이 기뻐해 주니 더욱 끈끈함이 생겼다.

그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라며 공동체를 통해 얻는 것이 참 많다고 했다. 11살 9살 큰 아이들은 공동체 모임에 데려가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공동체 활동을 알려주기 위해, 또는 아빠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





주민조직, 자생적으로 뭉치고 시너지 내야...



본업은 아빠, 부업이 직장인인 곽 대표는 아이들 수가 늘어날수록 아빠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했다. 처음에 아이에게 세세히 챙겨주던 것들을 나중에는 점점 줄이게 된다. 더 어린아이부터 배려하게 된다. 그러니 언제부턴가 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관에서 여력이 없어 다 챙겨주지 못하는 것을 주민 자생기관이 자발적으로 꾸려 나가는 것처럼, 세상 이치는 닮아있는가 보다.마지막으로 곽 회장은 공동체 단계인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에 나누어져 있는 공동체가 언젠가는 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었으면 했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경험담을 풀어놓고 서로의 경험으로 함께 배워 나가는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했다. 사람끼리 모여도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데 단체가 모여 내는 시너지는 훨씬 클 것이라는 논리다. 언젠가 대덕구에서 공동체들의 경험담들이 춤추듯 풀어 헤쳐지고 나누어질 날을 기대해 본다.

다
섯

미디어
다시
문화

05

스튜디오 파이프

대덕구의 '미모'
잘 가꾸고
화장도 하자!



코로나 블루... 스스로 즐길거리와 재미 찾아야

‘스튜디오 파이프’라는 공동체 명에서 뭔가 역동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떠올랐다. 이태진 대표는 ‘구성원이 함께 대덕구의 명소를 걸으며 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목적이라 했다. 50~60대 직장인 남녀 8명이 모여서 결성됐다. 이 작업실을 찾았을 때, 벽면을 차지한 큰 책꽂이가 먼저 눈에 띄었다. 다양한 국내·외 소설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는데 낯선 제목도 많았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그들이 얼마 전 공연한 낭독극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들은 코로나 시국을 이겨낼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고, 새로운 재미를 창조하는 진정한 예술가들의 집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성원들은 문학회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시 낭송, 글쓰기 지도 등의 특기를 가졌다. 구성원들의 대화나 관심사도 인문학적이다. 이들은 2년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사람들은 지금 너무 고독하거나 적적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것처럼 ‘코로나 블루’도 사회적으로 심각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동체를 결성하기까지의 고민을 들려줬다.

“정부는 지원금, 백신으로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데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서로 모여 관계 맺고, 함께 어울려 활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 소외되고 고립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육체의 전염도 문제지만 정신적 우울의 전염도 극복 방안을 찾아야 했죠”



대덕구의 명소를 영상으로 소개하겠다.

스튜디오 파이프는 ‘모여 함께 걷기’가 코로나 블루의 비방이란 결론을 내렸다. 걷기는 대중화되고 널리 애용되는 건강 관리법이자 취미 활동이다. 하지만 혼자 걷게 되면 적적해지고 선뜻 길을 나서지지도 않는다. 함께 걷기로 약속된 사람들이 있다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걷기의 또 다른 즐거움은 ‘같이 걷기’라는 것이다.

그들은 올해, 읍내동 굴다리 주변을 걸으며 주위 탐방 활동 3회를 가졌다. 중리동 먹자골목도 같이 걸었다. 오정동 한남대 캠퍼스 주변의 조각공원은 거닐며 구경하기도 좋았다. 향후 남은 일정은 코로나 추이를 보가며 금강 로하스 공원, 송촌동, 계족산 쪽을 찾아볼 예정이다.

걷기를 하는 과정에도 여러 정보를 수집하며 둘레길 소개 영상 제작을 위한 윤곽도 잡아보고 있다. 이들은 처음 대덕구에 있는 굴다리길을 한 유명인이 걷고 사진으로 남기자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시작 때는 읍내동 굴다리 길 정보로만 영상을 제작하려 했는데, 대덕구 전체의 관광 정보 영상으로 반경이 커져 계획이 수정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덕구의 추천할 만한 걷기 명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있다. 나중에는 이것들을 취합해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원래 대덕구는 문화관광으로 유명한 곳인데 체계적인 자료로 이를 알리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 대표는 대덕구의 많은 트레킹 장소 중 계족산 황톳길이 백미라 했다. 특히 이곳은 황토의 질감을 느끼며 맨발로 트레킹을 즐기도록 조성돼 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황토의 감촉이 보드랍고 편안해서 마치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된 듯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힐링을 느끼게 해준다고 했다. 널리 알려져 ‘세계 걷기대회’도 여기서 열렸다면 한번 방문해 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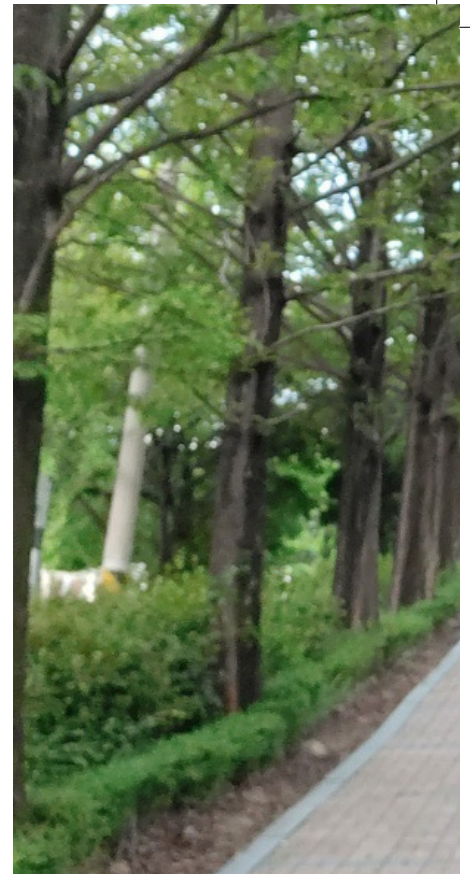
구성원들이 다들 직장인이다 보니 활동은 퇴근 후에 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경 모여 걸었고 1시간 반여 걸렸다. 걷기가 완료되면 주변 커피숍을 이용해서 같이 다과를 나누며 회의를 했다. 지원받은 보조금으로는 영상제작과 걷기 행사 시 구성원들의 음료 및 회식비로 사용한다.

그들만의 재미진 놀이... '낭독극 낭송'

걷기 일정이 없는 목요일이면 이들은 다른 이유로 스튜디오파이에 모였다. 이들은 그들만의 재미진 놀이가 있었다. 바로 '낭독극 낭송'이다. 국내·외 명작 소설을 선별·각색하여 구성원들이 스튜디오 파이프에서 배역을 맡아 낭송 공연을 한다. 지난 회차에 공연한 '어쩌다 마주친 부부'(원작 대머리 여가수, 외젠 이오네스코) 등은 녹화하여 스튜디오 파이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기도 했다.

사실, 낭독극은 올해 공동체 구성 이전부터 이들이 계속하여 오던 활동이다. 구성원 모두가 문학적 소양이 깊으니 구성원들끼리 문화예술공연을 직접 향유해 본다는 계기로 이태진 대표가 착안하고 이끌었다. 이 대표는 낭독극으로 만들 소설 작품을 직접 고른다. 70년 이상 된 소설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해외 작품을 주로 취급한다

“예술 활동 하면서 빚은 안 져야겠죠.... 낭독극은 구성원이 교통비 정도만 들여 모이면 돼, 다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여럿이 모여 소설 속 다양한 배역의 삶을 나눠보고, 그 배역의 목소리가 돼 낭송해보면 그만한 재미와 감동이 없어요” 배역은 어떻게 정할까? 이 대표는 ‘다소곳한 사람한테 악당역을 시킬 수는 없지요...’라며 구성원의 목소리 톤,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지목하고 개인 취향에 따라 안배하기도 한다. 또 대사의 비중도 함께 협의한다. 이 대표는 낭독극의 각색, 연출, 제작, 기획을 도맡아 한다. 지난해 연말에는 안톤 체홉의 ‘청혼’이라는 작품으로 스튜디오파이프에서 낭독극 발표회를 가졌다. 올 연말에는 다른 작품으로 2회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남대 공연장에서 ‘어쩌다 마주친 부부’를 낭독 공연하기도 했다.





서로 배려하며 꾸려가는 '스튜디오 파이프'

구성원들은 문학인으로 모인 만큼 저마다의 개성이 강하고 주관도 뚜렷하다.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의견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김 대표는 되도록 상대방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려고 노력한다. 서로의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공동체의 큰 방향은 지켜가도록 요청한다.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소개하며 그들은 말했다.

“구성원이 다 같이 걸기를 즐기고, 문학적인 취미도 맞아 이렇게 꾸준히 모여 활동할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인연인가요. 우리 구성원들은 다들 공동체 활동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히 임하고 있죠.”

스튜디오 파이프의 앞으로의 포부를 물었다.

“우리 대덕구가 유명 관광지가 되게 일조하고 싶어요”이 대표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영국 에든버러 축제에 갔을 때부터 시작됐다 했다. 그때 축제를 준비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인상 깊었다. 그래서 그들처럼 이 대표도 사람들을 모았고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는 공동체 활동 중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 대표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아름다운 미모를 타고나도 계속 가꿔야 유지되고, 가끔 화장도 해야 빛납니다. 우리 대덕구의 명소도 계속 관리하고 홍보해야 빛을 받을 겁니다”

06

구구석투

밋밋한 일상에 찾아온 마을 어귀의 ‘버스킹’





석봉동의 스타를 발굴하자!

다들 지루하고 재미를 찾을 수 없다는 코로나 시대. 주민들의 맛있는 삶에 색다른 즐거움을 심어 주고 싶다는 염원으로 시작됐다. 석봉동 주민자치회 ‘펼치자’ 분과는 지난해부터 문화, 축제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나눠왔다. 이 단체는 올해 ‘구구석투’(구석구석 석봉 투게더 줄임말)라는 공동체를 결성했다.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예산 문제 등으로 벽에 부딪혔던 이들에게 공동체 보조금 지원 소식은 호재였다. 구구석투는 공동체 보조금 400만 원을 올해 지원받고 총 4회의 지역공연을 기획했다. 석봉동 주민들을 무대에 세워 석봉동의 스타를 발굴한다는 거창한 포부로 첫 출발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기발한 기획은 단비와도 같이 주민들에게 스며들어 행복한 한때를 선물처럼 만들어 주었다.

지난 5월, 마지막째 주 금요일. 석봉동 한 빌라 단지 공터에는 색소폰 연주가 울려 퍼졌다. 빠른 탱고곡이 나오자 관람하던 주민 몇몇이 앞으로 달려나가 신나게 몸을 흔들었다. 이어 음악이 느릿한 클래식 으로 바뀌자 그들은 멋쩍어 재빨리 객석으로 들어왔다. 관객들은 연주를 즐기다,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에 ‘하하 호호’ 폭소를 터뜨렸다. 어떤 한 관객이 트롯곡을 신청하자, 연주자는 기다렸다는 듯 간드러진 연주를 이어갔다. 이 공연에 장르의 경계는 없었다. 공연 말미가 되자 풍채가 넉넉하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다. 자신도 노래 한 곡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할머니의 애환이 녹아 있는 구성진 가요 ‘여자의 일생’이 석봉동 빌라촌을 적시고 공연은 주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마무리되고 있었다. 주민 오디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어 사람을 모으고 선발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행사 일정은 다가오고 시간은 촉박했다.

마을 어귀에서 마주치는 '버스킹'

구구석투는 할 수 없이 지역의 기성 가수들을 섭외하여 공연하기로 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관객이 너무 모여도 걱정이었다. 그래서 대규모의 축제보다는 장소에 구애 없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버스킹을하기로 했다. 버스킹 장소는 마을 구석진데도 좋았다. 좌석 없이 거리두기를 위해 서서 듣는 형식이었고 주택이나 빌라 등지에서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듣게 했다.

대대적 홍보도 자제했다. 주민들은 골목을 지나가다 발길을 멈추고 모여들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의 연주와 공연에 주민들은 반기며 즐거워했다. 가족 단위, 노인들, 연주자들의 지인들, 공동체 구성원의 가족들, 어린 학생들... 관객은 예상보다 많았다. 공연은 오후 5시에 시작해 1시간 반 정도 진행했다.

석봉동 아무 곳이나 공연자가 서면 그곳이 무대가 되었다. 공연의 사회는 비용을 줄이고자 펼치자 분과 회원이 맡아줬다. 보조금으로 받는 400만 원은 앰프 대여비 등으로 쓰였다. 악기 연주와 노래, 주민 사연 읽어주기, 주민 신청곡 받기 등으로 프로그램은 엮어졌다. 연주자와 가수는 신탄진에서 활동하는 음악 그룹 중에서 섭외했다. 그들은 장비 임대료 정도 만 받고도 기꺼이 공연에 참석해 주었다. “노래 부르고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석을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하죠. 저희도 신나게 노래 좀 해보고 싶어요. 너무 노래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지역의 음악가들은 지역민과 함께 자신들의 노래를 나눌 수 있는 버스킹을 소중히 생각했다. 주민들은 그들의 공연을 들으며 기꺼이 즐기고 놀라워하며 외쳤다. “신탄진에 즐길 문화 거리가 잘 없었는데 너무 좋아요! 석봉동에 이런 멋지고 실력 있는 분들이 계셨나...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주민들에게 잠시, 잠깐이라도 힐링을 주고 싶었다는 구구석투 구성원들은 주민들이 좋아하니 덩달아 신이 나 일했다. 중·고등학생들도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길을 멈추고 버스킹을 지켜보았다. ‘텔레비전에서 버스킹을 자주 봤었는데 석봉동에서도 한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신난다. 기대 이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석봉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버스킹, 핑크물리 필 무렵 다시 열렸으면

구구석투는 올해의 버스킹에 주민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주민자치회 주도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처음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경험이 없어 ‘4회나 되는 행사를 어떻게 해내지’라며 걱정이 많았다. 또, ‘주민들의 반응이 시들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명석을 깔아놓으니 주민들은 그 명석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신명 내어 한판 놓고 있었다. 그들의 걱정은 기우였다.

오 대표는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다. 그런데 코로나로 수업이 힘들어지자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 우연히 주민자치회에 가입했다. 이어 구구석투 공동체 대표까지 맡게 됐다. “저는 자치회 위원이나 지역 활동가들이 다들 돈 받고 일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 단체에 가입하고는 ‘돈 하나 안 주는데 왜 이렇게 다들 나와서 열심히 일하지’ 싶었죠. 자기 주머니 털어가며 지역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는 사실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는 마을에 ‘지역 활동가’가 있는지, 이렇게 관이 행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주도로 일어나는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랐다. 공동체 공모사업도 당연히 활용할 줄 몰랐다. 주민자치단체 위원들은 활동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야 해 자신들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고 다양한 사안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힘든 만큼 얻어지는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것도 이제 그는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고리타분한 말일지 모르지만, 지역 활동가들은 석봉동을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토착민들의 애착이 특히 강하세요. 새로 유입돼 들어오신 분들의 의욕도 만만치 않고요” 많은 석봉동 주민들은 구구석투가 마련하는 버스킹이 내년에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가을, 석봉동 금강 변에 핑크물리가 분홍 꽃을 활짝 틔울 때 그곳에서 버스킹이 열리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고대한다. 다만, 인력으로 어찌지 못할 일이다. 코로나의 추이가 변수니 만큼 두고만 볼 일이다.

다섯

미디어
다시
문화

07

중리미디어단

손발로 찍고
가슴에 남기다



지영아! 언니!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그녀들. 그녀들은 중리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인연을 맺은 중리댁들이다. 중리동에서 활동 좀 하는 ‘언니’들이었던 그녀들은 중리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받고 중리동과 더 긴밀해졌다. 3년 전에 만난 그녀들은 2020년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고자 캠코더를 들고 중리시장을 누볐다. 제대로 다들 줄도 모르는 캠코더를 들고 진땀을 빼면서 상인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 일折腾에 ‘진심’하나만으로 공모에 당선이 되고 아마추어 영상 작가라는 이름도 덤으로 건졌다.



그 때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기록은 그리움까지 담다.

길, 매일 오가는 길이지만 눈길을 끄는 길이 있고 애정이 가는 길이 있다. 둔산동에서 한밭대로를 타고 중리동의 관문인 중리 영진아파트로 좌회전을 한다. 경사진 언덕을 오르며 하늘만 바라봐도 사계절을 온몸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가을이면 유난히 높은 파란 가을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언덕을 오를 때의 아름다운 그림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던 자연이 만든 화폭이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그 아름다운 하늘이 작년 가을부터 사라졌다. 언덕 끝 말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내 시야에서 높은 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아파트를 뚫아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내 손으로 사진이라도 담아둘걸’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남들이 찍어놓은 사진에는 내 마음을 담을 수 없다.

익숙한 것은 늘 곁에 있을 것 이라는 믿음을 주지만 그 믿음은 종종 우리를 배반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이라는 도구를 빌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을 시간의 흐름 안에서 또 갖고 간다. ‘언덕위의 그 파란 하늘을 내 눈에 담아 내 손으로 사진에 담아둘걸’ 아쉬움으로만 남은 언덕위의 가을은 이제 그리움이 되었다. 아파트 숲에 묻혀버린 하늘 바람 구름...

기억 그리고 추억은 과거의 나를 묶는 구속이 아니라 그리움을 내내 기억하고 싶은 마음의 자리이다. 기록은 그리움까지 담을 수 있다. 우리 중리미디어단이 중리동의 기억 그리고 추억을 영상에 담는다. 중리동의 그리움까지... 우리는 중리동의 과거와 오늘, 살아 있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는 초보 영상 작가들이다.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물으면 첫마디 대답은요?

그러게 말이다. 돈도 안되고 발품만 파는 일을 뭐가 좋다고 서류만 보면 머리에 쥐가 나서 다음에 안해야지 하면서 또 하게 된다. 은근 중독성이 있다 과연 뭘까? 관심의 중심점이 같은 이웃들이 모여 우리가 사는 마을을 눈에, 가슴에 담는 이 작업이 재미와 의미 두 가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중리동 토박이들이다. 나름 주민자치센터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활동하던 우리들을 주민자치 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었다. 10여명의 주민 자지위원들이 모였다. 내가 살고 있는 중리동,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중리동을 조금 더 근사한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엄마들이 손품 발품을 보태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다.

영상, 아마추어의 진수 그러나. 진심을 담았다

2020년 대덕구청에서 공모가 있었다. 우리는 한창 영상을 배우는 수강생이었고 ‘영상 만들기’에 한번 도전해 본 것이 당선이라는 결과를 얻고 미디어단 활동으로 까지 이어졌다. 전통시장으로는 대전에서 3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중리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는 생생하고 숨쉬고 있었다. 매일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이야기도 생생했지만 너무나 아마추어였던 우리들의 어설픈 발걸음이 아마도 생생함을 더 하지 않았을까 반문해본다. 기우뚱거리며 캠코더를 들고 장보러 나온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이마에 땀방울 맺힌 상인들을 촬영하는 일은 어색하고 낯선 일이지만 진심하나만으로 시장을 누볐다. 삶은 내색도 감수해야 했다. ‘이 아줌마들 뭐야’ 라는 눈치밥도 당연히 먹었다.

20년 넘게 살아온 우리 동네, 우리아이들이 장가가고 손주도 안아볼 곳, 학원도 드물고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이 수두룩하지만 난 중리동이 좋다.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곳. 경쟁의 프레임을 감하지 않은 곳, 중리동이 좋다. 그래서 중리동의 날것을 영상에 담아 기록으로 남기는 시간에 매료되었다.

서류? 힘들죠. 그 너머의 유익함 그리고 즐거움

활동은 너무 재밌다. 누군가 힘든 일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서류라고 즉답을 한다. 물론 중간 지원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나씩 정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낯설고 두렵다. 조금은 간소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모두 착한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돈 때먹을 이도 없고 영상 결과물안에 어설픈 활동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는다. 최소한 복잡한 서류 때문에 공동체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년에도 공동체를 할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고민중이에요” 라고 답할 수밖에...그 고민의 한가운데 서류가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주민들도 행정의 단면을 배우고, 행정도 주민들에게 작은 편의를 제공해서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을 향한 애정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도 건전한 공동체를 양성해나가는 그 길의 선상에 놓여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모였을 때 더 곤고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마을활동가들이 활동하는 토양을 옥토로 만드는 작은 역할을 영상에 담아본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조금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08

화덕마을 방송

영미(영상미디어)야 놀자



영미야 놀자~~!!

'영상 미디어야 놀자'고 꼬드키는 경상도 사나이, 회덕마을 방송 정중한 대표는 천상 영상쟁이다. 사진을 전공하고 광주방송국에서 카메라 촬영을 시작하면서 내내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대구, 광주, 대구를 찍고 다시 대전에 정착했다. 사람들과 신대동 골목골목을 누비며 영상을 만들고 공동체 활동을 넘어 '온미디어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마을 미디어에 대한 꿈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

미디어라는 단어가 자본가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편견을 깨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마을 미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선봉장이 되고자 한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골목을 누비며 마을을 영상에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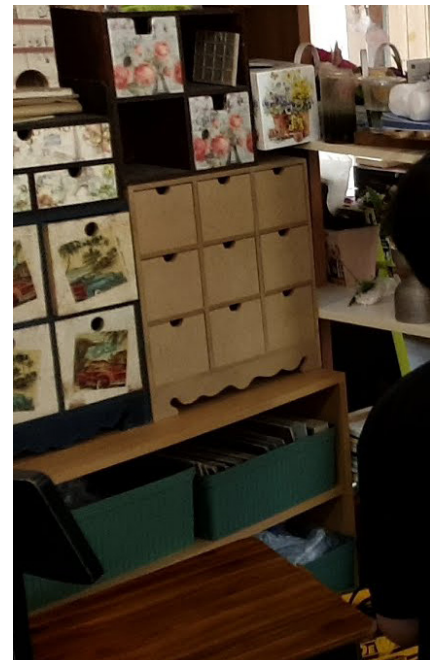
'영상 너 뭐니' - 공동체 1년차

2020년 공동체를 만들고 현수막을 내 걸었다. '영상 너 뭐니'라는 문구를 만들어 함께 영상을 만들 사람들을 모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지인들이 합세해 15명이 모였지만 150명이 모인 것처럼 응원군이 되었다. 2020년은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공동체 1년차는 제대로 활동 한번 못하고 움츠린 채 영상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로 아쉽게 마무리를 했다.

회덕동 주민자치회에 분들과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다. 공동체 활동으로 자생단체장들 열 세 분 정도의 30분 토크콘서트 영상을 촬영 편집 작업까지 했다. 장비 미비로 유튜브 송출만 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마을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벽돌 한 장을 엮었다. 마을 미디어에 관심 갖고 있던 중 현수막에 걸린 마을 공동체 공고를 보았다.

한창 대덕구 공동체 센터가 사무실을 만들고 있을 때 방문하고 어설프게 공동체 1년차 마을 미디어를 시작했다. 어찌어찌 15명이 모인 것도 생각해보니 기적이다.

사람들이 모이기 전이라 공동체 이름정하고 사업계획서 쓰고 혼자서 복치고 장구치며 시작을 하고 일단 동네사람들을 모았다. 집사람은 대전 올라와서 만났는데 아마도 경상도 사나이인 내가 대전에 올라올 운명이었던 모양이다. 아내도 만나고 마을 미디어 사업도 하게 된 것을 보니 운명의 프레임 안에 이미 계획돼 있던 것일까...





메이저 미디어들은 넘쳐나지만 내용은 오히려 공허하다. 큰 덩치를 채우려니 오히려 알맹이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 틈새에 우리 같은 마을 미디어가 알짜배기 노릇을 하고 있다. 좁은 골목을 누비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영상을 채운다.

누구나 미디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미디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대덕구에 마을 미디어가 없었다. 마을 신문도 없었다. 그래서 경력을 마을 미디어에 쏟고 싶었다. 우리 동네 신대동은 읍내동 대한통운을 넘어오면서 달라지는 공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오염 안 된 마을이다. 대단한 문화공간은 없지만 그 이상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회덕 마을 방송이 있다.

감나무 두 그루가 마당을 지키는 우리 집, 그 집의 주인인 나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만드는 마을 미디어가 바로 우리 신대동의 속살이다.

공동체 2년차 -영미야 놀자

2021년 사업은 공동체를 담다-

공동체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소개, 어려움, 보람, 등을 인터뷰형식으로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사진 한 장, 영상 한편에도 우리의 삶을 녹여낼 수 있다. 회덕동은 이제 재개발 사업권 안에 들어왔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10년 안에 우리 신대동도 와전 탈바꿈 될 것이다. 자...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마을 미디어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2021년의 마을, 사람들, 골목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둔다. 다시 2031년 10년 후 지난날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변한 회덕동을 2021년 우리가 남겨놓은 사진과 영상 안에서 다시 찾게 된다.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 단순한 기록에서 그치지 않고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송고하고 거룩한 일이 된다.





공동체 활동 권하고 싶으세요?

“그럼요 꼭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공감할 수 있는 이들과 모여 결과를 만들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만도 이미 행복지수는 두 배로 올라간다.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가 사는 마을을 위한 일, 그리고 우리와 벗이 된 마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대가가 크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이상의 보람과 가치를 얻는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고 실행해 옮기는 건 축복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우리 회덕 마을 방송이 ‘온 미디어’라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얻은 가치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었다. 희망의 부재, 소외의 문제들에서 벗어나 작은 마을이지만 우리끼리 모여 마을 이야기를 나누고 더 좋은 마을을 만드는 청사진을 그려본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긴다. 기억을 추억으로 진화시키는 ‘온 미디어’의 전신인 회덕마을 방송..

아직 코로나의 율가미에 갇혀 험악하고 있지만 우리는 소박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며 더 따뜻한 겨울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겨울이 두렵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다섯

미디어
다시
문화

09

글고운
캘리그래피

고운 글씨,
글씨 보다 더
결고운 마음



글씨에도 감정이 담겨있다. 우리가 캘리그래피를 읽으면서(보면서) 그림 일까 글씨일까 가우뚱하는 이유는 작품 안에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마음도 글에 나타난다. 아장아장 걷는 아가의 천진한 모습도 글에 그려져 있다.

캘리그래피, 글씨에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글씨.

그녀가 쓰는 글씨처럼 예쁜 ‘글고운 공동체’의 박대표도 한때는 주민 센터의 캘리그래피 수강생이었다. 배우고 진화하면서 아름다운 그림과 글씨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녀의 여정이 글씨만큼이나 곱다. 재능 나눔과 봉사를 겸한 문화 예술 공동체, 캘리그래피가 감정을 그림과 글씨로 드러내듯이 ‘글고운’은 다양한 예술 세계로 지역사회를 곱게 물들이고 있었다. 비록 단풍철은 지나고 겨울을 맞이했지만 ‘글고운’이 그리고 쓰는 겨울은 어떤 모습일지 고운 상상을 해본다.

배워서 다시 가르치다, 재역사회로 재능 나눔

‘글고운’은 지역 주민들과 캘리를 배우고 가르친다. 동사무소에서 실력 있는 강사에게 배운 재능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의미로 시작된 동아리가 공동체 활동가로 만들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동아리활동을 시작하면서 체험부스를 열었다. 다들 처음에는 배우면서 시작하느라 어설프었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를 선수로 만들었다. 물론 배운 것을 나누는 과정이 봉사라는 이름으로도 만족스럽고 행복하지만 수익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텐데...아쉬움도 간간이 느끼면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처음에는 봉사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우리 사비를 들여 재료비를 마련하고 수익이 되면 얼마나 될 것인가 수익보다 재능 나눔에 초점을 맞춰 더니 보람이라는 열매가 찾아왔다.

글씨에 담긴 희로애락을 어르신들과 나누다.

“나에게 원래 글씨도 예쁘게 쓰세요?”라고 묻는 이들이 많다. 나는 “아니에요 저 약필이에요” 라고 즉답을 한다. 배우면서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 스스로가 얻었다.

우리가 봉사하던 어르신들은 고령자 어르신들 80-90세가 많다. 노인정, 요양센터,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즐거워 하셨다. 두 팔 벌려 반기는 어르신들은 뵈면 한글자라도 더 예쁘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부터 일어난다. 태어나서 물감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어르신, 글씨를 안 써보신 어르신도 계신다. 도안을 떼서 꽃과 나비를 그리게 하면 너무 행복해하셨다. 사실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들, 우리 주머니를 털어 재료를 준비하고 바리바리 싸들고 어르신들을 만나러 갔다. 거기에 간간이 우리를 소 닭 보듯이 하는 어르신들을 뵈면 기운이 빠질 때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다독이며 ‘그래 무슨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우리 엄마같은 어르신들께 봉사해보자’ 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이 활동 후에 ‘꽃보다 여자’ ‘나는 000입니다’ 라고 당신의 이름을 쓰시면서 신기해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글씨만 예쁜 것이 아니라 캘리는 사람의 마음까지 곱게 만드는 예술이라는 생각에 방점을 찍는다.





봉사 그 너머 문화 예술 공동체로 자리매김

커피 재능 나눔 동아리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나도 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배우고 봉사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2019년도에 모이자로 시작 마을 도서관 문고에서 언니들과 봉사 하면서 여성친화도시 봉사활동도 겸 했다. 공동체 사업의 구성원은 송촌맘 회의 엄마들로 중심이 되었지만 아이 키우면서 뭔가 생산적이고 재밌는 활동을 원하는 주부들은 동네 골목골목에 숨어 있었다. 그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캘리를 3회 가르쳐주고 서로 친구 맺어주기를 했다. 29명이 시작했지만 모두 풀코스에 함께하지는 못한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좋은 것, 예쁜 것을 나누는 과정에도 무수한 갈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고운 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활동들을 해나가 보자고 한 번 더 우리를 다독인다. 사업비로 받은 100만원이 얼마나 많은 활동비용에 보탬이 될까 만은 그래도 우리 주머니에서 꺼내쓰던 재료비를 보조받으니 수강생들에게 조금은 양질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 같이 만나 ‘밥 한끼’하면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과정으로 이끌었다. 공동체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

명절시즌에는 용돈봉투를 붓펜으로 만들어 쓰고 서로 으쓱해하면서 즐거움



을 나누기도 했다. 일반 글씨보다 캘리글씨가 더 예뻐 보이는 장점은 사람들을 왠지 더 기분 좋게 만든다. 2020년에 송촌동 가로수 길에 캘리 공방을 냈다. 예쁜 글씨 덕분에 지나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함께 할 수 있을 때 더 예쁜 캘리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을 텐데 행복한 작업 한 편에 아쉬움은 늘 동반한다. 주변상인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주고 함께 즐겨보자고 했지만 다들 생업에 바쁘다보니 시작은 좋았지만 계속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덤으로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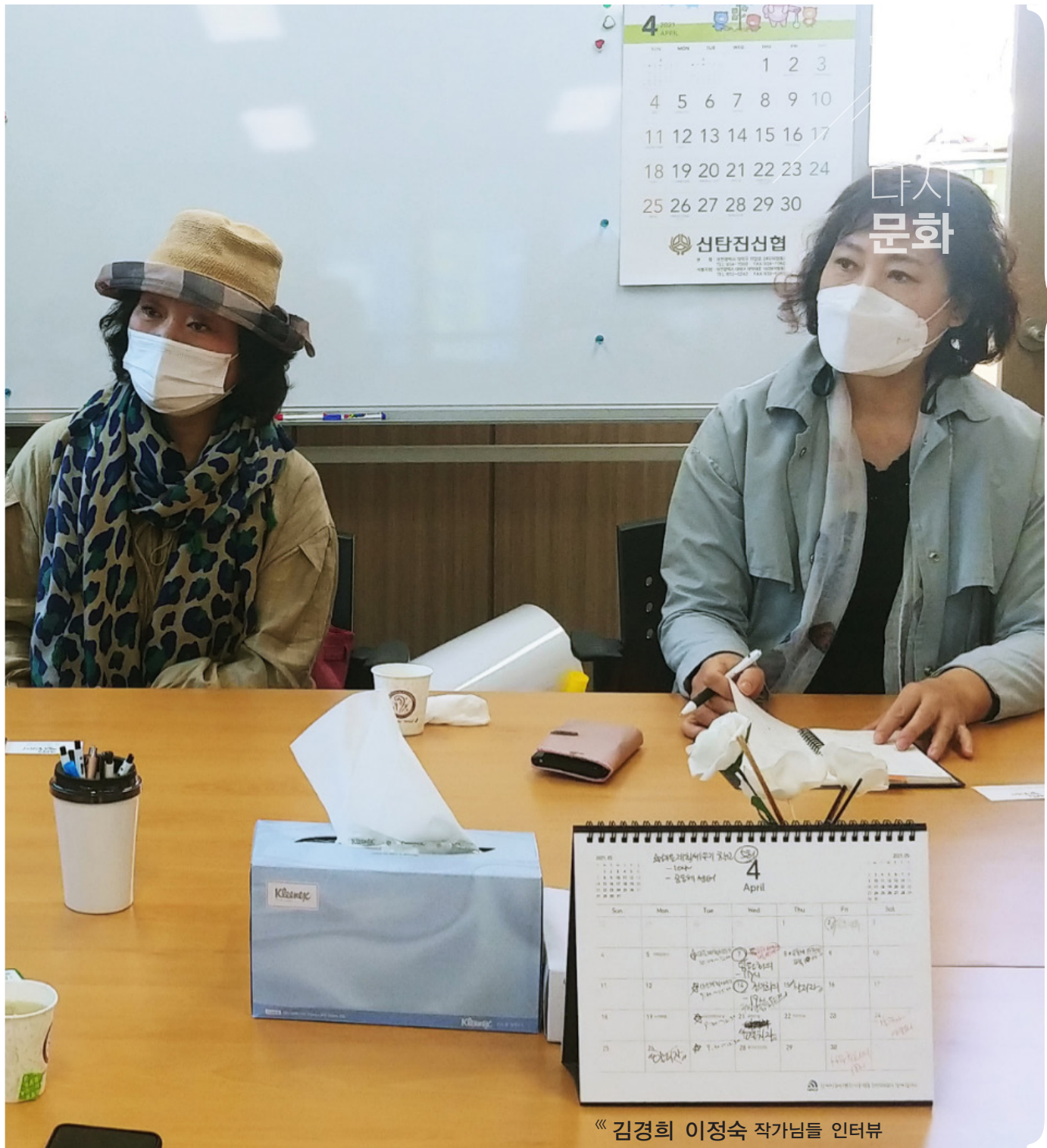
숨씨 더하기 맵시 재능으로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홀씨가 되어주는 사랑스러운 공동체, ‘글고운’ 같이 배우고 나누는 캘리그라피, 지역을 위한 아름다운 재능나눔.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서 동아리를 만들고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해도 참여자가 적을 때는 우리의 선한 마음이 왜곡된 건 아닐까 염려가 앞섰고 좋은 것을 나누는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봉사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문화처럼 향유하는 때는 언제나 올까 내가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기도 하다.

오늘은 코로나로 힘든 이 겨울에 나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글씨를 써보아야겠다. 어떤 글씨가 좋을까? 아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10

우리는 친구

기록
그 아름다운
사명과 책임감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열권도 더 나올 것이다

그래 맞다. 우리 어머니들이 회로애락을 겪으면서 당신들의 삶을 일축한 한마디이다. 비단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에만 국한될까. 열 살 꼬마의 일기장을 들여다보아도 일상의 기억과 추억이 담겼듯이 우리 삶은 모두 기록되어질 가치가 있다. 우리는 친구는 대덕구의 기록 공동체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책으로 만들어 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거부한다. 하지만 책을 받아든 그들의 눈가는 촉촉해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손사래 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읽었다. 그리고 기록을 시작했다. 가족의 이야기에서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확장시켜 나갔다. 사명감이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덕구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제작하는 공동체.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활동 근거지가 대덕구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평범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서전을 제작하던 단체에서 우리 이웃의 이야기, 지역의 이야기를 담으며 2019년부터 대덕구 공동체센터에서 활동하게 됐다.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 2019년에는 대덕구에서 20년 이상 활동하고 거주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병원원장님의 20년 활동사, 정직을 담보로 신대동에서 20년간 중고차 사업을 했던 중고차 사장님의 이야기, 입주 동기로 27년간 자매처럼 지내는 신탄진 원창빌라 주민들의 이야기, 20년간 노인공경 글짓기 대회를 진행 중인 아노복지재단의 이야기까지.... 20년 동안 대덕구를 위해 대덕구에서 활동한 분들의 이야기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2020년에는 경자년의 의미를 살려 경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의 '경자 이야기'를 만들었다. 60이 넘는 분들이라 영자 정자 미자 경자로 불리어지며 이름에 눈살한번 씩 찌푸려본 그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2021년 사업은 대덕구 공동체 스토리북 제작이다.



기록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그리고 쑥스럽다

기록이 누군가 내 삶을 들여다보는 열린 창으로 이미지화 한다면 아무도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박하고 정직했다면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나의 평범한 삶이 단 한사람에게라도 희망이 되고 힘이 된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 이야기를 기록해나가야 한다.

대덕구 공동체 마을 활동가들의 스토리를 제작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 돌봄, 환경, 재능기부, 나눔, 봉사, 문화의 키워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돈을 버는 일도 아닌데 스스로 사명감을 부추기면서 이웃을 독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가꾸고 있다. ‘사서 고생하는 그들의 신나는 이야기’로 명명될 만큼 그들의 활동은 연일 감동이고 우리는 이 책에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왜? 그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동네 골목골목에 숨어 있던 이름 없는 활동가들, 마을을 이롭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보고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돈을 버는 일도 아니다. 그저 우리가 사는 마을을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보자고 이웃들이 모였다. 한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셋이 되었다. 다시 넷, 다섯으로 세포분열을 이루면서 마을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 따님이 선물한 어머니 자서전 발간 기념



« 이연자 작가님



« 정여림 작가

공동체 기록은 행복한 일,

서류는 복잡미묘

인터뷰하고 기록만 하면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다. 예산으로 인터뷰하고 어떤 내용으로 책을 만들까 의논하려면 밥도 한 끼하고 차도 한잔 마셔야 한다. 원고 작성하느라 발품이며 손품을 판 비용도 재능기부로 국한 되지 않도록 금액으로 액면가를 매기면 턱도 없지만 원고비를 책정하고 대신 보람을 보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서류. 수백 장에 이르는 영수증이며 지출 결의서 서류, 160장의 원고 A4용지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조금 더 간소화 할 수 있을텐데 아직 거기까지 시스템이 닿지 않는 모양이다. 예산을 투명하게 쓰자는 취지에 먼저 공감하면서 서류 작성에 승복한다.



《조서정 작가님》

이제 3년차를 마감하며 세포분열을 시작하다

우리는 친구는 3년차를 지나고 있다. 기록은 우리 삶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한다. 뒤돌아보면 더불어 재미와 추억까지 남겨준다. 동일한 공동체의 3년차 활동을 마감하면서 여기서 기록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친구는 활동을 마감하지만 기록을 원하는 공동체의 세포분열을 이뤄 대덕구를 기록하는 공동체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우리는 친구에서 다시 세포분열을 이뤄 대덕구민의 따뜻한 이야기가 꾸준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나둘 모여서 큰 산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지친 지역민들에게 공동체의 아름답고 활기찬, 게다가 유익한 이야기가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공동체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즐거움과 힘이 될 것은 자명하다. 기록, 그 가치 있는 이름. 기억과 추억을 남기는 삶은 아름답다.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는 오늘도 밤샘하면서 가르르 웃음보를 터트릴 테지. 우리도 덩달아 후후후!

2021년 여름은 뜨거웠다. 가을은 지친 초록에 형형색색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고 코로나의 견제가 일상이 되었지만 그들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다.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그리고 기획공모 팀 등 네 종류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모두 38팀의 공동체가 각자의 역량을 발휘했다. 공동체의 이름도 어찌나 다채롭고 재기발랄한지, 상큼하기까지 하다. 사업명 중 “석봉아 놀자, 석봉아 걷자”는 아마도 마을 이름을 차용한 것 같다. ‘내가 결정한다’라는 공동체의 사업명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일상훈련을 돕는 공동체다.

샘물터 공동체는 자동 지하수위 측정기기로 우리 마을의 샘을 재보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버스킹 팀도 있고, 모여서 책을 읽는 공동체도 있다. 사라져가는 가족 간의 밥상머리를 체험하기도, 동네 아이들이 동네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싸드리고, 꼬마들끼리 모여서 음식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도 있다. 세대 간 먹거리를 공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코로나라는 방해꾼도 있었지만 어쨌든 해 보았다. 생태놀이터, 둘레길 걷기, 가족 참여 활동, 폐플라스틱을 활용하여 반려식물을 키우기도 했다. 쇠락해가는 중리동과 오정동의 거리를 탐방하고 조사하는 사업도 벌였다. 아직은 낯선 미디어를 배우고 활용하고자 첨단 장르에 도전해 보았다.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여 집수리가 필요한 이웃들의 집을 방문하여 말끔히 수리하는 사업을 운영한 팀은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봉사가 중독같다고 씩씩 웃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간식과 음료수도 자비를 털어서 충당했지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다. 기타를 좋아해서 모인 공동체는 기타를 튕기며 버스킹을 하겠다고 장소를 바꿔가며 열심히 연습하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조출하게 연주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커다란 비전을 기획하고 첫 걸음을 뗀 공동체도 있었다. 3년 차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는 공동체도 있었고, 이제 막 진입한 초짜 공동체도 있었다. 그야말로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며 대덕구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무지개 색깔로 아롱다롱 다양하게 색깔하는 즐거움을 가지기도 했다. 공동체 참여자들은 각자 지원하고 선정되고 활동하는 가운데,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고운 추억들을 되새기기도 했다.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는 춤을 이용하여 노는 방법도 전문가에게 배우고 나누었다. 서로가 의견을 내고 더 잘 해보자고 머리를 맞대었다. 그렇게 뜨거운 여름이 지나갔고, 늦장마에 우울함이 더해지기도 했지만 우리들의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다.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영수증을 붙이고 자료들을 다시 첨부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서류작업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모두 다 즐거운 추억이다.

마을 활동이 즐겁고 아름답게 각인되어 마을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순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대덕구 공동체의 문화이다. 문화의 정체성을 한 땀 한 땀 채워나간 것이다. 스트레스를 담보로 하는 서류 작성 과정 탓에 내년에도 다시 도전해서 공동체 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갈등을 동반하지만 결국, 한 번 더 마을 활동을 하기로 방점을 찍어본다. 으쌰으쌰는 기본이고 이런저런 경험의 벽돌을 한 장씩 올린다. 켜켜이 쌓여진 벽돌은 우리 대덕구 특유의 따뜻하고 소박한 더불어 반짝반짝 빛나는 공동체문화로 축적될 것이라 믿는다.

이 장을 마련해준 공동체 센터에 감사한다. 그들도 품을 많이 들였고 날마다 야근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다들 퇴근 후 인증샷에 달님이 암전히 담겨 있는 건 기본이다, 오늘도 밤샘하면서 까르르 웃음보를 터트릴 테지. 우리도 덩달아 후후후!



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마을을 이롭게, 마을을 따뜻하게 돌려하는 그들.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는

소소한 마을 활동의 즐거움을 알아차린 이들이 어울려
그 유익함과 기쁨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가치를 함께 나눕니다.



(좌로부터) 송직근 신정은 조수현 남은순 홍은영 권인호 배은열 전홍주